금주의 법구-〈수행본기경〉
우리의 목숨은 짧고 짧다.
이 세상은 실로 덧없는 것,
그러므로 부지런히 힘써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9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4월 23일) 2018년 6월 6일 수요일

신개념 '불교영어' 어린이 포교 이끈다

어린이 영어법회 · 템플스테이 '新 포교 트렌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그동안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답답했는데, 이번 캠프에서 배운 불교 영어로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지난 2월 10일 화성 용주사에서 열린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 제1회 불교리더십영어캠프에 참여한 이건호 학생과 학부모 김지혜 씨는 "외국인 강사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불교를 배우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2000년대 초반 어린이 영어법회가 각 사찰에서 개설된 데 이어 최근 영어캠프 및 합창공연 등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 지도자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어 능통한 스님, 없나요?

어린이 영어포교의 현주소는 어린이 영문자타가 암송대회를 보면 극명히 드러난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주관하는 어린이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는 2000년대 초반 영어 조기교육 붐을 틈타 개최됐다.

2008년 1회 대회에는 60명이 예선에 지원했다. 2회 대회 47명, 3회 대회 58명, 4회 대회 42명, 5회 대회 78명, 6회 대회 90명, 7회 대회 76명 등 꾸준히 늘었다. 이런 가운데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사찰은 1회 대회 41곳 중 22곳에 불과했다.

민병완 국제포교사회 사무처장은 "어린이 영어모임이 사찰에서 없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잘 되는 사찰에는 아이들이 몰리고, 안 되는 사찰에서는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찰에서 어린이 영어모임이 없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는 지도자 부재가 꼽힌다. 2013년 구례 화엄사는 어린이 영어법회를 시작했지만 현재 법회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화엄사 관계자는 "담당하시던 스님께서 보직을 그만두시고 나서 마땅한 지도자가 없어 중단됐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어린이 영어담마캠프를 개최하고 있는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은 "역량을 갖춘 영어 지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대체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도하는 스님이 다른 사찰로 가시거나 하면 모임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종단은 역량을 갖춘 스님들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이 2015년 제1회 조계종 외국어 스피치 대회 열었으며, 중앙승가대의 포교영어 강좌, 동국대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 개설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선센터 국제차장 보관 스님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불교를 설명하려면 현장경험 또한 많아야 한다"며 "실력 있는 스님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 사찰에 매칭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교 관심 원어민 · 불자 영어교사 활용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영어에 능통한 재가자, 불교에 관심있는 원어민들을 영어법회나 행사의 지도자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6월 3일 첫 어린이영어법회를 시작한 강화 전등사의 경우 인근 학교의 불자 영어교사를 지도법사로 초청했다. 전등사 포교국장 태정 스님은 "영어 능통 스님이나 원어민 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불자인 인근학교 영어교사를 모셔왔다"며 "신심이 깊어 자원봉사로 맡아 주셨다. 15명의 아이들이 법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템플스테이나 합창 등 원어민들이 관심있는 분야에서 이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되고 있다.

영어 지도자 의존도 높아
사찰 연결 네트워크 필요
스님 외 재가자 활용 모색
문화강좌에 원어민도 활용

서울 국제선센터는 2016년부터 방학 때마다 원어민이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영어템플스테이를 인기리에 개최하고 있다.

권진영 국제선센터 대리는 "매주 토요일 영어 명상인 담마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 참여하는 외국인들에게 아이들 지도를 부탁해 어린이 영어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도자 1명당 아이들 4~5명의 소수가 배정돼 신청접수 하루면 매진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고 말했다.

서울 봉은사는 사중 어린이합창단을 올해 3월부터 불교영어합창단으로 재구성했다. 한때 다섯명 남짓하던 합창단원은 34명까지 늘어났다. 영어 찬불가와 뮤지컬곡 등을 연습하기에 6월 둘째주부터는 지도가 가능한 원어민 강사도 참여할 예정이다.

황학현 봉은사 종무관은 "신행 뿐만 아니라 사찰 문화교육 등에는 원어민 참여도 가능하다. 어린이 포교와 영어 교육, 불교문화 체험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설악당 무산 대종사가 원적에 들면서 세간과 출세간의 추도물결이 이어진 가운데, 5월 30일 대종사의 영결식이 신흥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사진은 무산 대종사의 평생 지음이었던 고성 화암사 회주 정휴 스님이 영결식에서 행장소개를 하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주인 잃은 설악 슬픔 가득하네"

조계종 원로의원 설악당 무산 대종사 영결식 엄수

5월 30일 신흥사서 대중 운집
불교 · 문학계 등 각계 인사 참석
500여개 만장 이운행렬 동참해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제3교구본사 신흥사 조실 설악당(雪嶽堂) 무산(霧山) 대종사가 5월 26일 원적에 들면서 세간과 출세간의 추도물결이 설악산을 가득 메웠다. 산중의 주인이 떠난 자리에는 대종사가 남긴 듯 말 없는 경책이 안개로 남아 무산(霧山)을 이뤘다.

설악당 무산 대종사의 영결식은 5월 30일 속초 신흥사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세민 스님, 총무원장 설정 스님 등 종단 중진 스님들과 사회 각계인사, 전국서 모인 불자 등 1000여 대중이 운집했다.

영결식은 명종과 영결법요를 시작으로 문도대표인 마근 · 문석 스님의 헌향과 헌다가 진행됐으며, 호상을 맡은 무산 대종사의 지음(知音)인 정휴 스님이 행장을 소개했다. 이어 생전 법문영상에서 "모름지기 수행승은 삼독의 불길 잡는 소방관이 되어야 그림자가 부끄럽지 않다"는 무산 스님의 법문이 장내에 울려 퍼지자 대중은 합장 인사하며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종정 진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무산 대종사께서 남기신 팔십칠의 성상은 선과 교의 구분이 없고, 세간과 출세간에 걸림이 없던 이 시대 선지식의 발자취였다. 오직 본분수행과 후학불사, 불교문화 쇄신을 평생의 원력으로 매진했다"면서 "산중을 지혜와 덕망으로써 원융화합을 이뤄내고, 설악의 불교문화를 부처님 정법으로써 세계문화로 전승하고 전법포교로 회향하셨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 또한 추도사를 통해 무산 대종사가 한국불교와 일반사회에 남긴 업적을 기렸다. 설정 스님은 "스님께서 남몰래 품어 온 우리 종단과 세간의 중생들은 무량한 스님의 자비심 속에서 함께 했다. 참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내고 고통에서 일어설 용기를 가졌다"고 대종사를 추도했다.

무산 대종사 가르침 기린 대중

무산 대종사가 불교뿐만 아니라 문학계, 지역사회 등 곳곳에 영향을 미친 만큼 조사 낭독에는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과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의정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성우 스님,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정래옥 前용대리 이장 등 많은 대중이 참여했다.

특히 마을주민 대표로 나선 정래옥 前이장은 용대리~백담사 셔틀버스 운영권을 주민들에게 넘겨주는 등 지역민을 살뜰히 챙긴 무산 대종사의 넓은 품을 회고했다. 정 前이장은 "큰스님께서는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장학금을 주시고, 노인복지에도 늘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다"며 "마을 발전에 물심양면 도와주신 덕분에 용대리가 우뚝 서게 됐다. 저희들은 용대리 어느 곳을 가나 스님께서 남기신 발자취를 돌아보며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사오니 편히 잠 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산 대종사의 상좌인 득우 스님과 유발상좌격인 이근배 원로시인은 각각 조시와 헌시를 낭독, 대종사의 삶과 업적 · 가르침 등을 돌이키며 원적을 추도했다.

영결식이 끝나고 다비의식을 위해 무산 대종사 법구가 일주문 밖으로 이운됐다. 사부대중은 인로왕번을 선두로 500여개의 만장을 들고 이운행렬에 동참했으며, 다비장소인 금강산 건봉사로 이동해 거화의식을 봉행했다. 대중은 "큰스님 불 들어갑니다!"라고 함께 외치며 불을 놓았고, 적멸의 길을 떠나는 무산 대종사를 배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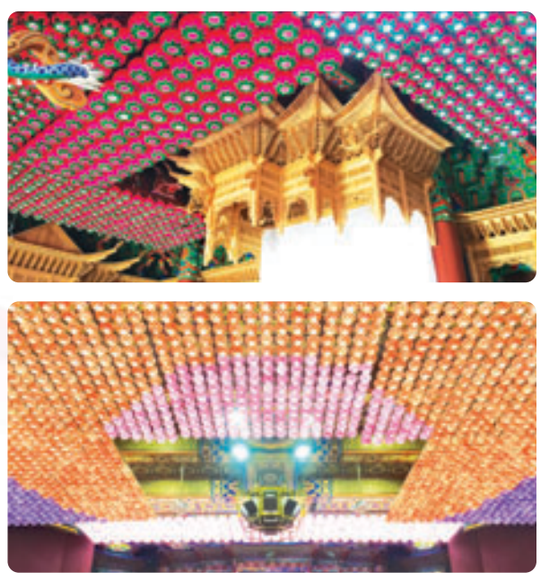
속초 신흥사=윤호섭 기자

설악당 무산 대종사 추모특집 B1~5면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010-9446-1862 | 010-2788-7270
031)768-7270 | 031)768-7271
e-mail : hskhsg@naver.com

불교의식 '문두루법' 복원된다

진각종, 6월 14일 관련 연구발표… 국가안정 기원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나당전쟁 당시 당나라군을 막기 위해 치러진 국가차원의 불교의식인 '문두루법'. 국민들의 일치된 힘을 일궈낸 밀교 전통인 '문두루법' 의식을 복원하는 불사가 시작된다.

밀교종단 진각종(통리원장 회성)은 5월 30일 간담회를 열고 〈한국밀교문화총람〉 편찬사업 일환으로 6월 14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에서 '밀교의 진호국가와 문두루법' 연구발표회와 10월 진각문화축제서 '문두루법 의식 시연'을 한다고 밝혔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문두루법은 나당전쟁이 촉발한 670년 명랑 법사가 당시 신라에서 신성한 곳으로 일컬어진 경주 신유림에서 행한 밀교의식이다.

문두루법은 중국 동진(東晉) 시대 인도승려 삼장 금시리밀다라(三藏帛尸梨密多羅)가 번역한 〈관정경(灌頂經)〉에 근거한 것으로 자신이 부처와 다름없다는 생각을 지니고, 각 방위의 오방대신(五方大神) 명호를 적은 나무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이에 마음을 모으는 의식이다.

오는 10월 복원 시연 계획도
나당전쟁 국민화합 이끈 의식
국가안녕의 진각종 전통 반영
신라·고려 중점설행, 가치 높아

문두루법은 밀교 특징인 불교의식과 민족고유 신앙이 습합된 모습을 잘 나타내며, 나당전쟁 당시 통일 초기 불교신앙과 사상으로 신라와 백제, 고구려 민중들이 하나로 뭉쳤음을 의미한다.

진각종 창종 71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연구발표회에서는 먼저 '진호국가의 의미와 기도의 종류'를 주제로 발제가 이뤄진다.

문두루법 의식 설행의 본 취지인 국가안정과 발전에 대한 기원 의미를 부각시키는 발표다.

진각종은 1947년 한국전쟁 직후 창종하며 국난 소멸과 국가발전을 기원하는 '진호국가 불사'를 주요 종책기조로 표방했으며, 이에 따라 매년 진호국가 불공을 비롯해 다양한 불공을 진행하고 있다.

첫 발표에 이어 '밀교의식 중 문두루법의 위치'를 고찰하고, '문두루법 연구현황 및 의식재현'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간다.

간담회를 주최한 진각종 교육원 교법연구실장 법경 정사는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는 6월 12일에 이어 14일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염원하는 의식을 고찰하는 연구발표회가 이뤄져 의미가 깊다"며 "문두루법은 신라와 고려시대 민중, 공동체, 국가 안위에서 개인의 안위 기원으로 이어지는 사상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한국전통의식"이라고 설명했다.

법경 정사는 이어 "아직 밀교의식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낮지만, 현재 무형문화재인 영산재와 수륙재처럼 점차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밀교의식 복원 및 연구발표회를 비롯해 진각종은 현재 밀교문화총람 편찬 3개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4월 회향하는 밀교문화총람사업은 총서 형식으로 발간되며, 현재 2년차 사업까지 70%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각종 측은 "한국불교문화 저변에 자리한 주술과 의례, 수인 등 다양한 밀교문화를 주목해 국민들에게 한국전통의 소중함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새 총무부장에 지현 스님 임명

기획실장 일감 스님
사서실장 삼혜 스님


지현 스님


일감 스님


삼혜 스님

지난 5월 1일 MBC PD수첩 방영 이후 조계종 총무원 핵심 부실장들의 사임으로 인해 공석이 된 소임에 제34대 집행부를 이끈 스님들이 다시 자리하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5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신임 총무부장에 지현 스님(조계사 주지), 기획실장에 일감 스님을 임명했다. 지현 스님과 일감 스님은 제34대 집행부에서 맡은 소임을 이번에 재차 맡게 됐다. 이어 31일에는 사서실장에 삼혜 스님이 임명됐다.

설정 스님은 임명장을 전달한 뒤 "부실장 인사를 하는데 상당히 고심했다. 본사주지를 비롯해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분으로 모셔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이번에 임명된 부실장스님들은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가장 원만하게 소임을 볼 수 있는 분이라고 주변에서 추천받았다. 고생이 많겠지만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설정 스님은 이어 "지금 시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종단 교권자주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 잘 구성해서 종단 매사를 잘 풀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원장스님을 모시고 부실장스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한편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법종 스님을 은사로 1971년 수계(사미계)했다. 총무원 문화부장,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역사문화조성추진위 총도감, 제12~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사 주지를 맡고 있다.

기획실장 일감 스님은 원융 스님을 은사로 1990년 수계(사미계)했다. 자성과 쇄신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총무원 기획실장 및 재무부장,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완주 옥련암 주지를 맡고 있다.

삼혜 스님은 탄허 스님을 은사로 1982년 수계(사미계)했으며, 삼장사·금당사 주지 및 제15~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영월 보덕사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청소년 불교문화재 전문가 양성

파라미타·불교중앙박물관, 문화체험 MOU

어린이 청소년들의 불교전통문화 교육과 체험활동을 위해 불교계 청소년단체와 문화재 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심산)와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오심)은 5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시청각실에서 어린이 청소년 불교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문화재청과 함께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불교계 청소년 단체다. 현재 2만2000여 명의 청소년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파라미타가 진행하는 문화재 지킴이 활동과 관련해 각 지역서 불교성보박물관 학예사들이 불교문화재에 대한 설명과 안내, 문화재 보존활동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성보박물관 탐방 등 청소년들의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불교중앙박물관장 오심 스님은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불교문화를 접하고 애정을 갖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파라미타협회장 심산 스님은 "불교문화재는 우리 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문화재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관계자는 "충북 파라미타 활동을 하면 적어도 충북지역의 문화재, 그리고 불교문화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파라미타 활동 후에도 지역 문화재 보존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업무협약 취지"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삼법인 영원한 것은 없다

'십년 세도 없고 열흘 붉은 꽃 없다'(權不十年 花無十日紅)는 권력무상을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요즘 불자들은 전직 대통령들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뉴스를 보고 들으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부귀영화도 인연따라 왔다가 인연따라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운 것은 무아이다'라고 일러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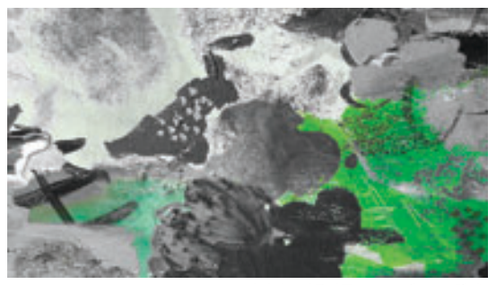
*모든 것은 덧 없다(諸行無常)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一切皆苦)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諸法無我)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범부 중생은 항구불변을 바랍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재산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바라는 모든 것에 집착합니다.

제행 무상은 중생의 이러한 착각을 일깨워 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지혜의 눈으로 제행이 무상함을 바르게 보는(正見) 공부를 합시다.

***일체개고:** 제행이 무상한데 유상으로 착각하면 삶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사성제의 고제(苦諦)에서 팔고(八苦)를 살펴 보았듯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갈애가 생기고 집착이 일어나 괴롭습니다. 이 이


삼법인 · 성주괴공 그림 · 조향숙

내 몸이 내 것입니까?
'무상 고 무아' 바로보면
집착 떨어져 열반적정에

이 게송은 불교의 세 가지 근본교의로 삼법인(三法印)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나타낸 불변의 진리 삼법인은 법의 특성으로 불교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잣대입니다.

괴로움을 바르게 보고 청정에 이르는 삼법인의 가르침은 연기법, 사성제와 일치합니다.

***제행무상:** 일체 함이 있는 세간의 움직이는 모든 모습이 제행입니다. 유위(有爲)와 같은 뜻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순간순간 끊임없이 생멸변화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은 덧없는 것, 제행무상입니다.

마음은 생주이멸(生住異滅)하고
육신은 생로병사(生老病死)하고
우주는 성주괴공(成住壞空)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위법을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범부 중생은 항구불변을 바랍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재산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바라는 모든 것에 집착합니다.

제행 무상은 중생의 이러한 착각을 일깨워 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지혜의 눈으로 제행이 무상함을 바르게 보는(正見) 공부를 합시다.

***일체개고:** 제행이 무상한데 유상으로 착각하면 삶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사성제의 고제(苦諦)에서 팔고(八苦)를 살펴 보았듯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갈애가 생기고 집착이 일어나 괴롭습니다. 이 이치를 바르게 보고 알면 집착과 탐욕을 내려놓게 됩니다.

***제법무아:**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긴 존재이므로 나라고 할 실체가 없습니다. 나 또는 내것이라고 집착하는 자아(自我)는 조건에 의해 일시적으로 생겨난 무상한 오온(色受想行識)에 매달리는 현상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이면 늙고 죽음을 왜 내 뜻대로 못할까요. 모든 존재는 생멸하는 연기(緣起)만 있을 뿐 고정된 실체가 없으므로 제법무아입니다.

***열반적정:** 무상-고-무아의 이치를 깨달아 탐진치 삼독이 소멸되면 열반적정(涅槃寂靜)에 이릅니다. 삼법인에 더해 사법인이라 하거나 일체개고를 빼고 삼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최근 타계한 LG그룹의 구본무 회장은 무상과 무아를 바르게 알고 실천한 기업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덕적 기업 경영과 소박하게 떠난 마지막 길에서 그의 본지풍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불자 여러분 무상과 무아를 잘 공부하여 완전한 행복에 이릅시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참선수행의 최고 안내서'이자 '수행 고백서'
원오심요 역주

'불법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중국 송대의 선의 중장인 원오극근 선사가 법을 묻는 이들에게 보낸, 선의 요체를 담은 가르침!
원오극근 지음/강승욱 역주/신국판 양장/976쪽/값 45,000원

참선하여 도를 깨치는 문으로 이끄는 '깨달음의 노래'
증도가 합주

『육조단경』과 함께 선종의 '이부경전二部經典'으로 불리는
『증도가』의 대표적 주석서 4가지!
남명 법천 외 저/철우 역주/신국판 양장/496쪽/값 25,000원

번뇌를 끊는다니 말이나 되는가!
번뇌를 끊는 이야기

번뇌를 끊으려는 그 생각이 또한 번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번뇌를 끊는다고 말하고 나와야 한다.
조계후학 현웅 저/신국판 양장/520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불 붙은 설정 스님 '친자의혹' 진실공방

PD수첩 추가 의혹제기 VS 조계종 친모 증언 공개

PD수첩 "전○경 최근 국내 있었다"
조계종 "출국 이후 확인된 사실"
전○경 친모 "방송 내용 사실 아냐"
친모 법정소송 증인 참석 전망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PD수첩이 5월 29일 설정 스님 친자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가운데 조계종은 전○경 친모라고 밝힌 김○정 씨(사진 오른쪽)의 증언 영상을 공개했다.

MBC PD수첩이 5월 29일 '큰스님께 묻습니다' 2부를 방송했다. 이번 방영에서 PD수첩은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친자의혹을 받는 전○경 씨가 최근 국내에 머문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 증거로 최초 의혹을 제기한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의 증언을 실었다. 이 대표는 방송에서 "(PD수첩) 방송을 전후해서 전○경이 국내에 들어와있었다는 목격자들을 여럿 만났다"고 밝히면서 '전형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다만 목격자들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조계종은 미국에서 자신이 전○경의 친모라고 밝힌 김○정 씨를 만나 촬영한 인터뷰 증언 영상을 5월 30일 언론에 공개하며 PD수첩 보도를 전면 반박했다. 인터뷰는 5월 7일 진행된 것으로, 한국문화원 장소 협조를 받았다고 조계종 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MBC PD수첩과 조계종 간의 설정 스님 친자의혹 진실공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김 씨는 영상에서 "당사자인 나에게 사실 확인도 없이 방송해 인권을 무시했다. 방송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전○경은 설정 스님 딸 아니다"

김 씨는 전○경의 출산배경을 상세히 밝혔다. 영상에 따르면 김 씨는 출가 후 경북의 한 시골사찰서 노스님과 함께 살았다. 어느 법회 날, 노스님은 지방에 일이 있어 출타하고 50대의 김모 처사가 오후 늦게까지 절에 남았다. 그리고 혼자 있는 김 씨를 이 처사가 성폭행했다.

김 씨는 "처사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나는 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나를 힘으로 붙잡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했다. 그의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졌다"며 "부끄러워서 부모님께도 말 못한 채 친한 노보살님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김 씨는 출가자의 신분으로 산부인과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고 전했다. 노보살과 함께 지내며 트레이닝복과 모자로 변복한 채 임신 7개월쯤 처음 병원에 갈 수 있었다. 양수가 터졌을 때 대구에 있는 병원서 아이를 낳았지만 병원비 때문에 입원 이틀째 퇴원했다. 이후 입양을 마음먹고 평소 가족들과 인연 있던 수덕사를 찾아가 설정 스님에게 입양 주선을 부탁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설정 스님 속가 여동생에게 딸을 입양 보냈다. 김 씨는 얼마 뒤 미국으로 건너가 27년째 살고 있다.

김 씨에 따르면 전○경이 6살 무렵, 입양가족은 김 씨 부모에게 연락해 "잠시만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거절하지 못한 김 씨 부모가 전○경을 집에 들이고 돌봤지만 시간이 지나도 입양가족은 찾아오지 않았다. 사실상 파양인 셈이었다. 게다가 초등학교 입학 무렵 주소지를 옮겨오면서 전○경 호적이 설정 스님 여동생 측이 아닌 큰형에게 올라간 사실이 드러났다. 설정 스님 여동생 남편이 호적에 올리는 것을 반대했던 것이다.

"설정 스님 연락 안 돼 친자소송"

김 씨는 친자의혹의 핵심 쟁점인 친자 확인소송에 대해 "설정 스님과 갑자기 연락이 끊겨 어쩔 수 없이 한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김 씨는 "설정 스님이 나를 피한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호법부 스님이 나중에 취하하면 되니 급한 만큼 친자 확인소송을 내라고 조언해 그렇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김 씨 아버지가 설정 스님 속가 가족으로부터 소송에 대한 사실을 전해 듣고, 김 씨에게 소를 취하할 것을 당부했다. 김 씨는 "아버지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면서 무고죄로 큰일 날 수 있으니 빨리 변호사를 찾아가 없던 일로 하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김 씨는 과거 설정 스님이 주지로 있던 대전 심광사에 주소지를 둔 것과 관련해 출국을 위한 증명서 준비로 인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아이를 낳기 전 외국에 나가려고 준비하다 보니 주소를 잠시 옮겨야 했다. 설정 스님께 허락 받고 실무를 맡던 젊은 스님을 통해 주소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언론이 드라마 작가들인가?"

김 씨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다"며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작가가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다리 건너뛰어 소문만 들은 게 진실은 아니다. 제가 말하는 게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영상공개 후 조계종 측은 PD수첩 2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전○경의 입국사실과 관련해 윤승환 기획차장은 "종단은 5월 23일 법원서 받은 사실확인요청서를 통해 인지했다. 4월에 입국해 5월에 출국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불교닷컴과 소송 과정에서 양측 모두 유전자검사에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오히려 종단에 전○경 입국 사실을 알려주고 유전자검사를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윤 차장은 또 "김 씨를 법정에 화상으로 증인 출석시켜 양측 변호인이 공동 심문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 씨도 필요하다면 국내에 들어오겠다는 의지도 밝힌 상태"라며 "종단 내부 검토 후 최승호 사장을 비롯한 MBC 관계자들에 대한 관련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평위, 차별 없는 지방선거 당부

종교평화 문화정착 위한 토론회서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도 높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종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가 없는 지방선거를 당부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만당, 이하 종평위)는 5월 30일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문수실에서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을 좌장으로 '종교평화 문화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지역 종교 갈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만당 스님은 인사말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개개인에게 작은 정부로 다가올 것이다. 지방정부가 튼튼하고 바른 길을 걸어야 국가도 이를 기반으로 더욱 완성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했다. 그런데 현재 사람 간 차별이 눈에 띄게 발생하고 차별은 혐오와 증오로 변해 사회적 갈등이 됐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이번 토론회가 통합과 상생, 평등의 사회를 구현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발제를 맡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국가 차원서 차별금지 내지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별이나 종교 영역에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사회에 다양한 차별이 주관적 편견 속에서 존재하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를 입힌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했다.

이에 박수호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학부 교수는 "정치권의 의지에 따라 법이든 조례든 제정, 개정이나 폐기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런 일이 가능한 근본적 이유는 차별과 불평등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 사회의 문화에 있다. 요즘 미투운동이나 대한항공 사주 일가의 '갑질'로 인해 일부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모두 이런 문제를 반성하고 극복하기 위한 각오와 연대의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진형 기자

읽고 쓰고 토론하는 '新불교학교' 문 연다

대안연구공동체, '명법 스님 불교학교' 개강

'불교+인문'書 읽고 글 쓰며
문제 사유 · 토론 중심 강좌
'스스로 공부하기'에 주안점
6월 8일부터 총 12강 진행

사찰 불교대학이나 불교 관련 아카데미의 강의 방식은 '교리 중심 강의'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 같은 강의는 불교 관련 지식은 빠르게 접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체화되기는 어렵다는 장단점을 지닌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 읽고 쓰고 토론하는 새로운 방식의 불교학교가 문을 연다.

인문학 연구 단체인 대안연구공동체(대표 김종락)는 오는 6월 8일부터 '명법 스님 불교학교'를 개강한다.

매월 2 · 4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총 12강에 걸쳐 진행되는 '명법 스님 불교학교'는 일방적인 강의로 진행되지 않는다. 읽고, 쓰고, 사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재들은 불교 관련 고전 · 저서부터 불교와 인문이 접목된 저술까지 광범위다. 이번 학기에 다루는 주요 텍스트로는 〈탈식민시대 우리의 불교학〉 ·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 · 〈최초의 불교란 어떠했을까〉 · 〈출가란 무엇인가〉 · 〈고대 인도사회와 초기불교〉 · 〈붓다를 만난 사람들〉 · 〈인도불교사상〉 · 〈초기불교의 이념과 명상〉 등이다.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도에 따라 교재를 읽고 글을 쓴 뒤 토론할 준비를 해야 한다. 주말과 휴가 등을 이용해 집중 세미나와 수행도 병행될 예정이다.

강사로 나서는 화엄탑사 구미불교대학 주지 명법 스님은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미학으로 석 · 박사 학위를 받는 이색적인 경력의 소유자다. 불교와 미학, 전통과 현대의 학문적 소통을 추구하며, 새로운 형태의 신행모임 '무빙템플'과 상담연구소 '은유와 마음'을 이끌고 있다.

사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강의를 만든 것은 학제의 틀에 맞춘 불교 강좌에서 벗어나기 위한 명법 스님의 원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명법 스님은 "이번 불교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불교 교리나 경전 공부가 아니라 국내외에서 발간된 다양한 불교 관련 텍스트를 접하며 스스로 사유하고 토론하고 실천하는 노력"이라며 "소수정예의 장기적인 강좌가 될 것이다. 강좌는 2년까지 계획 중이며, 2년차 과정에는 대승불교와 중국 선불교에 대한 텍스트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교학교의 목적은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불교가 제시한 방법들을 토론 · 성찰하는 데 있다"면서 "과정을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명상 강좌를 함께 병행하며 머리만이 아닌 가슴과 몸이 변화하고 삶이 바뀌는 학교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의 (02)777-0616

신성민 기자

동국대 불교대학 첫 韓中 학술대회 연다

한국과 중국 불교학자들이 한자리에서 동아시아 불교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진행한다.

동국대 불교대학(학장 신성현)은 6월 7일 오전 9시 30분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제1회 한중불교 학술교류대회'를 개최한다.

'동아시아 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교류대회서는 △선종: '불교' 자체로 돌아가라(진견 산동대 교수) △동아시아 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고영섭 동국대 교수) △일본불교의 토착화에 대한 약론(우건과 산동대 교수) △한국선의 보편성과 특수성(한가람 동국대 박사 과정) △대원국사법지 비석 연대에 관한 보증(마총총 산동대 박사 과정) △영명연수와 보조지눌의 유심정토와 타방정토(정도 스님 · 동국대 교수) △보조지눌과 〈육조단경〉(이해도 산동대 교수) △화엄경을 통해 본 분노의 원인과 조절법(자헌 스님 · 동국대 박사 과정) 등의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범종의 명가 성종사가 만들면
풍경(풍탁)도 작품이 됩니다

풍탁과 연꽃 풍경 모두 대·중·소 3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람판도 물고기, 연꽃, 구름 3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선택 가능 합니다.



특징
❶ 체인이 동재질이 아닌 스텐레스 재질로 되어 있어 강도와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❷ 바람판이 두꺼운 황동재질로 되어 있어 견고하고 바람에 덜 흔들려 소리가 은은합니다.
❸ 바람판과 풍경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아름답습니다.
❹ 바람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람판 : 물고기, 연꽃, 구름)

견고하고 아름답고
소리 좋은 풍경(풍탁)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바람에 강하고 아름다운
최고급 명품 풍경(풍탁)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장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습지길 35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이제 처마에도 연꽃을 달자!



연꽃 풍경



1) 황금컬러
2) 무늬
3) 민무늬 3종

구입문의
성종사
☎ 02)733-6141

걷기명상, 한강서 시민을 만나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6월 23일
제1회 한강걷기명상…
2000명 규모 대회 개최

소외계층 위한 기금 모연
후원앱 활용, 1보당 1원
시민 명상상담 및 안내도





5월 29일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진행한 숲속걷기명상 프로그램의 모습. 6월 23일에는 2000여 명이 참가하는 한강 걷기명상대회로 열린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서울시민들이 불교 걷기명상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대규모 명상축제가 열린다. 불교계 명상단체들의 모임인 '한국명상지도자협회'(협회장 혜거)는 6월 23일 한강 여의도공원 물빛무대 일원에서 '명상, 한강을 걷다' 제1회 대회를 개최한다.

1회 대회는 걷기명상을 주제로 한국명상지도자협회 회원단체인 금강선원, 행불선원, 참불선원 등 20여 단체에서 약 2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오전 9시부터 가족놀이와 걷기와 관련된 건강상담, 명상체험 등을 할 수 있으며, 명상음악 공연 등이 진행된다. 또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의 사회 아래 개회식이 진행되며,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의 대회사, 조계종 포교원장 지흥 스님의 인사말,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격려사, 서울시장 당선자의 축사 등도 이어질 예정이다.

개회식 후에는 물빛무대에서 바이크 페리선착장까지 약 3.3km 구간을 걸으며 각 단체별 단체티 및 팔찌를 맞춰 구분할 수 있게 했다. 행렬 정리는 조계종 포교사단이 맡는다. 이와 함께 각 명상을 지도하는 불교명상 전문지도사 20명이 일반인들의 안내를 담당한다.

한강걷기대회 홍보위원장 월호 스님은 "이번 대회는 늘어나는 명상에 대한 관심 속에 불교 명상에 대한 소개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목적도 지니고, 건강 점검도 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참여해 불교명상을 접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소외계층 기금마련을 위한 것으로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걷는도시 서울' 캠페인과 함께 진행된다. 캠페인은 '워크온' 앱을 통해 1보당 1원 가치의 마일리지가 적립돼 서울시 캠페인을 후원하는 기업에서 소외계층에 직접 이 마일리지 만큼의 생필품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걷기명상 기준으로 1인당 6000보 가량이 예상돼 2000명 기준 약 1억 2000만원이 소외계층 후원 기금으로 모금될 예정이다.

조직위원장 선업 스님은 "서울시의 후원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측의 반응도 좋기 때문에 향후 대회를 정례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수행의 첫걸음은 자기성찰이다. 시민들이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 보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 8회 반야학술상 공모

오는 7월 15일까지 접수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은 오는 7월 15일까지 제8회 반야학술상을 공모한다.

저술상과 논문상으로 나눠 공모되는 반야학술상은 최근 2년 내에 출간 · 발표된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저술과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응모자는 추천서와 이력서, 논문 PDF 파일을 첨부해 guguis@hanmail.net으로 보내면 된다. 저서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주년기념관 4층 불교사회문화연구원으로 송부해야 한다.

저술상과 논문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불교학 및 불교문화 우수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반야학술상은 매년 저술상과 논문상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문의 (010)4731-3471

신성민 기자

신행 · 신앙 전문 연구 초석을 놓다

한국불교학회 제1회 성운학술상
시상식 · 춘계학술대회



제1회 성운학술상 수상자들과 상을 제정한 성운 스님(사진 왼쪽 네번째). 사진 왼쪽 첫번째인 이금순 박사는 지난해 작고한 어머님을 생각하며 염불신앙에 대한 연구논문을 썼다며 대중에게 감동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불교학회가 5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2018춘계학술대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불교학 진흥에 대한 대중들의 열망이 느껴졌다. 제22대 한국불교학회장 임기를 마친 학회장 성운 스님이 성운학술상을 제정, 처음으로 시상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학회장을 회향하며 만든 학술상의 제정에 역대 불교학회장을 비롯해 학자, 신도대중 300여 명이 모여 축하했다.

성운 스님은 이날 "종교의 생명력은 그 안에 들어 있는 사상과 철학이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 또 이러한 사상체계를 발전하는 사회에 풀어내는 데 달려있다"며 "임기동안 나무가 꽃을 핀 상태에서 약간의 가지치기만 했다고 생각한다"며 상을 만든 취지와 학회장으로서의 회향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황상준 전자불자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초빙교수와 김은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이 우수상을, 황금연 서울불교대학원대 외래강사, 서정원 동국대 불교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대공 스님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들은 "값진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더욱 정진하여 염불신앙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한국불교학회는 '불교와 불교학, 현재의 반성과 미래의 지향-인간을 고민하는 불교학의 필요성'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불교학 연구에 있어서 문헌학적 연구의 한계와 전망(강형철/ 동국대) △불교사상사 연구, 개념과 현실 사이의 잃어버린 접점(석길암/ 동국대 경주) △불교사 쓰기의 오류와 방법론적 극복(한지연/ 금강대) △법화경에 나타난 신행과 전법-불교포교방법론의 반성(혜명 스님/ 동국대 경주) △염불신행에 대한 불교학적 고찰(송재근/ 창원대)이 발표됐다.

또한 제1회 성운학술상 우수상 수상작인 '염불신앙을 통한 현대재가불자의 가피사례 연구(황상준)'와 '교육과정 텍스트로서의 정토삼부경의 재조명(김은영)'도 대중에게 소개됐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⑨

오달연 영남대학교병원 호스피스 봉사자

"호스피스는 나를 다스리는 길"



오달연 봉사자가 생일파티를 열어 생일을 맞은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다.

1996년부터 영남대학교병원에서 봉사를 해 온 오달연 씨는 2005년, 봉사팀장의 권유로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했다. 오 씨는 1996년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영남보현자원봉사단을 설립해 지금까지 단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지역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활동하고 있다. 오 씨는 어머니를 간호하던 당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환자와 보호자를 돕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불자인 오 씨는 봉사를 통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봉사활동 중 만났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 아이가 호스피스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죽음의 목전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했죠. 아이는 친구들을 불러 한 명씩 얘기를 했어요. 용서해주고, 잘못한 일 있다면 사과하고 화해를 했죠. 어린 나이인데도 어른도 못하는 일을 의연하게 해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점이 많았습니다."

봉사를 통해 인생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오 씨는 호스피스 봉사뿐 아니라 홀몸노인들에게 밑반찬을 조리해 배달하고, 후원금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양질의 봉사를 꾸준히 해온 오 씨는 가장 기억에 남는 대상자로 50대에 뒤늦게 결혼식을 올린 말기암 환자를 회상했다.

"장성한 딸이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못 올린 50대 말기암 환자에게 결혼식을 올려준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스님이 주례를 맡아 병원법당서 진행했는데 한복을 차려입은 부부가 입장하자 장내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 분은 1달 후 운명했습니다. 사별가족모임에서 고인의 노모가 참석해 자식의 영상을 보며 고개 숙여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던 모습이 선합니다."

오 씨는 환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주로 환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준다고 설명했다. 말기암 환자들과 가족처럼 지내기도 하지만 임종하는 환자가 있을 땐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오 씨는 대구자원봉사대상 개인 본상, 국제라이온스 대구 총재상 등을 받은 바 있다. 호스피스 봉사를 하면서 임상웃음치료 자격증도 갖고 있는 오 씨는 시간이 되면 호스피스 심리상담도 하고 싶다는 포부다.

"호스피스 대상자가 불안하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호스피스는 대상자뿐 아니라 봉사자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하며 자아를 찾을 수도 있고요. 진지한 마음가짐과 충분한 교육이 동반된 호스피스 봉사자가 앞으로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진형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 · 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불교진흥원 화요열린강좌

"미래물리학 핵심은 수행 방점 둔 불교"

물리학은 불교를 어떻게 볼까. 불교의 관점에서 양자역학을 소개하는 강좌가 열렸다. 대한불교진흥원은 5월 29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소광섭 서울대 물리학과 명예교수 초청 '화요열린강좌'를 개최했다. 소광섭 교수는 과거 물리학은 자연의 궁극적 원리에 집착했지만, 결국 미래물리학서 '인식'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소 교수는 "정체된 현대물리학의 발전 방향을 부처님의 대승기신론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A.I.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인식'에 방점을 두고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형 기자

주제 : 불교와 물리학의 만남

소광섭 서울대 물리학과 명예교수



소광섭 교수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코넬대학교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동 대학 명예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대통일이론> 등이 있고 연구분야는 양자장론 및 일반상대성이론이다.

앞으로 물리학은 더욱 발전할 것이고, 그만큼 불교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현대물리학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게 양자물리학입니다. 자연현상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양자물리학의 포인트기 때문에 양자물리학과 관찰을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뉴튼과 태동한 고전물리학

우선 고전물리를 살피겠습니다. 고전물리학이라 하면, 물리학의 시작이죠. 고전물리학을 학문으로 정착시킨 사람이 뉴튼입니다. 뉴튼 전에는 모든 것이 자연의 진리, 우주의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고전물리학은 뉴튼이 만든 운동법칙과 중력법칙이라는 과학철학에 바탕 하게 됩니다. 주관은 제멋대로 변하고 일관성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주관적인 것은 과학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전물리학 이전에는 주관과 객관 중 어느 게 더 믿을만한지도 분별이 안됐습니다.

고전물리학이 열리면서 자연현상은 확실하게 여겨졌고, 주관은 믿을만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학에 대한 여러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자연현상은 나의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그냥 발생하는 것이 자연현상이죠. 고전물리학의 중요한 점은 관찰을 하든, 자세히 보든 말든 그대로 있는 것. 이것이 자연법칙에 대한 고전 철학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기술적이다 하면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연의 법칙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기껏해야 그 법칙을 활용할 뿐이라고요. 이런 생각이 정말 실제일까요, 아니면 개념적 허상일까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F=ma)'라는 것이 뉴튼의 운동법칙입니다. 이 단순한 법칙으로 지구가 365일을 걸려 태양을 돈다든지 조석간만의 차가 얼마인지 하는 것들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뉴튼이 이 세상의 진리를 밝혔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과 저 다른 별에서 똑같이 느낄까요? 다른 별에서도 힘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서 체험한 것이 보편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좁은 세상에서 경험한 것을 마치 모든 현상을 섭렵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F=ma'가 우주 전체의 법칙으로 성립하진 않는 거죠.

오리무중에 빠진 현대물리학

현대물리학은 크게 두 개의 발견으로 구성돼있습니다. 하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입니다. 상대성이론에 의해 힘이나 가속도라거나 하는 개념 없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양자역학인데, 양자역학을 만든 오늘날의 대표적인 학자가 하이젠베르크와 슈뢰딩거입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 물질의 근본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2천 몇 백 년 전부터, 이 세상은 원자로 구성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천 년이 지나 19세기 말에 원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거 자연현상 자체에 집착
현재 오리무중의 정체 상태
미래 인공지능이 우위 점령
인류가 지배하려면 수행해야

원자를 찾으니까 이세상은 92개의 원소로 구성돼있다고 하며 이 세상의 끝까지 온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원자가 끝이 아니고 그것이 핵과 전자로 구성됐단 걸 알죠. 핵을 보니까 핵 속에 양성자, 중성자가 또 있는 거예요. 이런 소립자의 종류는 무한히 많았어요. 그리고 20세기 후반 현재는 소립자론이 장벽에 부딪혔어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정체 상태입니다. 이 세상 궁극적 물질의 요소에 대해 오리무중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가장 확실한 것이라고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과학은 불확실함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불확실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연이 불확실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불확실한 걸까요? 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불확실성은 관찰의 불확실성이에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강력한 현대기술은 불확실한 전자에 바탕 하고 있고 그 불확실성은 내가 잘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한 한계성입니다. 현대과학의 기술적인 체계를 보면 원리는 철학적인데 관찰에 관한 원리인데 이것이 불확실합니다. 그것을 수학적으로 이론화한 것이 양자 물리학이고 공학적으로 개념화한 것이 핵발전이나 DNA 등입니다. 수학 철학적인 것이 무용지물의 개념이 아니라 가장 밑바탕에서부터 그 위에 쌓인 게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관찰로 세상을 이해하거나 세상 자체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과 관찰을 떠난 세상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 변한다는 것이고 관찰의 법칙이 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현상 자체를 연구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고전물리학이고, 현대물리학은 관찰자가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관찰자라는 것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대표적인 관찰자입니다. 센서 같은 것도 관찰자입니다. 방 안의 공기, 온도, 미세먼지 등을 센서로 재는 것이 관찰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센서가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교환하고 처리하는 것을 인공지능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지요.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세돌과 알파고가 게임을 했을 때 알파고는 자신이 이겼다는 사실을 알까요? 자기가 바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더욱 발전시키면 감정을 가지게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슬퍼하는지를 알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는 인식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물리학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미래물리학 – 인식의 문제

고전물리학에서는 자연의 법칙을 찾는다고 했어요. 현대물리학은 자연을 관찰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하고 미래물리학은 인식의 법칙을 논하는 것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인식하는 것에 대한 물리학을 불교는 어떻게 볼까요. 미래의 교육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심리학과 물리학이 통합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인식의 문제가 오고 우리가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었던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가 돼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은 어디서 얻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것은 대승기신론에 있습니다. 1식은 한마음이죠, 대승기승론 앞에 전체 요지가 나오는데 한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생의 마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부처나 조사께서 우리 중생이 부처라고 하셨죠. 사실은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근원에 그 마음이 있죠. 그 근본 마음에서 하나는 그 마음의 본질에 관한 논리이고 분별심, 주관과 객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품에 대한 부분이 심지명입니다.

제가 다른 책이나 논서에 비해서 대승기신론을 좋아하는 이유는 심생멸론이 자세히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심생멸론은 세계의 모든 현상 경험세계의 기원과 현상에 대해 써놓았어요.

첫째, 세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상이 고요하고 적적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세상의 기원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의 무명의 마음이 동하여, 즉 동한다는 말은 한자로 쓰면 업입니다. 카르마라고도 불리는 움직이는 것, 마음이 동해서 세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고전물리학이나 현대물리학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은 세상이 있으니까 관찰하는 거지만 여기에는 인식 주체가 생기고 인식 주체가 생겼기 때문에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인식하는 주체가 있으니까 인식하는 분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우리가 깨치기 전에 분별하는 분별심. 분별하는 두뇌작용을 잘 보면 찰나 찰나 영화의 필름처럼 되어있습니다. 스마트폰 속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연속이 아닙니다. 커트로 되어있죠. 그것을 우리 머리에서 연결하죠. 그래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움직이니까 변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두뇌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데 필름은 여러 컷이지만 돌리면 연속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시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머릿속에 있어서 작용하는 겁니다.

제가 대승기신론에서 가장 놀란 것은 인식 주체가 먼저고 대상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의 기본 철학이 삼계가 다 우리가 만든 상이고 계속 존재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대승기신론은 철학적으로 보여줬으니까 이 상황을 과학적으로 만들어야죠. 인식의 법칙이 가장 포괄적인 최상위법칙이 될 것입니다. 신경계가 하는 일은 대부분은 A.I.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신경계는 인식의 하위입니다. 신경계가 과학자들은 전부라고 하지만 인간은 그 이상의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세계보다 A.I.보다 상위질서 물질적 세계보다 포괄적인 질서를 찾고 지배하려면 수행하셔야 합니다.

명상과 수행은 불교가 최고입니다. A.I.가 좀 더 진행되면 명확해질 거예요. 물질의 근본도 없고 마음도 찾을 수 없는데 우리는 '찾으면' '구하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수행의 포인트이고 좌선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에 본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자까지 깨뜨리고 더 깨뜨려서 소립자, 그리고 더 이상 깨뜨릴 수 없는 상황에 왔어요. 소립자의 근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완전히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 밖에 따로 심리학과 물리학이 만나 새로운 세계로 향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KGU 경기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 동양문화학과

2018학년도 후기(정시) 신(편)입생 모집(안)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과정	학 과	전 공	모집인원
석사과정 : 2년(수원캠퍼스/야간제)		동양문화전공 : 명리학, 풍수, 관상학, 주역, 동양철학 중심의 교과 과정	• 신입학 : 00명 • 편입학 : 약간명 • 외국인 : 약간명
• 신입학전형 • 편입학전형 • 외국인전형	동양문화학과		

※ 전공별 모집인원은 지원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인원 배분 ※ 대학원 사정에 따라 모집이 취소 될 수 있음

2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원서 교부 및 접수	2018. 05. 08(화) ~ 06. 15(금) • 월.화.수 [14:00~21:00] • 목. 금 [09:00~17:00]	행정 · 사회복지대학원 교학팀(교육관 405호) • 우편접수 가능(마감일 당일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원서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전형료 : 50,000원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17-886297 (예금주 : 경기대학교)
면접 전형	2018. 06. 23(토) 10:00	• 행정 · 사회복지대학원 교학팀(교육관 405호)
합격자 발표	2018. 06. 28(목) 14:00	• 홈페이지 입학안내 ➡ "합격자발표"
등록 기간	2018. 07. 02(월) ~ 07. 06(금) 16:00까지	• 가상계좌 납부(전국 신한은행 지점) • 합격증 및 등록금고지서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지원자격 ① 국내외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 취득 및 취득예정자
②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항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홈페이지 : www.kyonggi.ac.kr/pubadmin / 전화 : ☎ 031)249-9021
※ 토 · 공휴일은 원서교부 및 접수를 하지 않음.

제38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법주사 대회

◆일 시 불기2562년 6월 25일(월) ~ 6월 28일(목)
◆장 소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 제 「청소년 인격형성에 있어서의 사찰의 역할」
◆주요일정 6월 25일 18시 환영만찬 - 청주 그랜드플라자 호텔 3층 그랜드볼룸
6월 26일 10시 세계평화기원법회 - 법주사 대웅보전
13시 학술세미나 - 법주사 설법전
6월 27일 부여 백제문화단지 탐방
◆협의회사무국 02-720-1708, 725-3677

-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
회 장 대한불교조계종 설정
부 회 장 한국불교태고종 편백운
대한불교천태종 문덕
대한불교진각종 회성
대한불교관음종 홍파
대한불교조계종 원행
이 사 장 대한불교관음종 홍파
부이사장 대한불교보문종 인구
사무총장 (재)대한불교원효종 향운



화두일념 천번 만번 의심하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識得 杖子(식득주장자)하면 官不容針(관불용침)이요 私通巨馬(사통거마)로다.

이 주장자의 진리를 알 것 같으면 관에는 바늘도 용납하지 않음이요, 사사로이는 거마가 통함이로다.

금일은 무술년(戊戌) 하안거 결제일(結制日)입니다.

결제에 임하는 사부대중(四部大衆)은 이번 안거(安居)에 반드시 자기의 본분사(本分事)를 해결하여 생사에 자재(自在)하고 진리(眞理)의 낙(樂)을 수용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높은 진리인 심인법(心印法)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크게 흥하다가 한국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우리나라에만 한 줄기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간(世間)과 선원(禪院)에서도 화두참선(話頭參禪)이 아닌 다른 수행법에 관심을 보이는 이가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시회대중(時會大衆)은 먼저 화두(話頭)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화두참선은 일초즉입여래지(一超卽入如來地)에 이르는 경절문(徑截門)입니다. 조사선(祖師禪)의 가풍(家風)은 안종사(明眼宗師)인 선지식(善知識)이 제자를 지도할 때에 부드러운 봄바람이 아니라, 벽력같은 할(喝)과 온몸이 부서지는 방(棒)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화두를 알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에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부처님과 조사(祖師)를 알고 팔만 사천 법문을 모두 아는 것이어서,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천하를 종횡하는 것입니다.

대중들은 이번 결제기간 내에 반드시 일대사(一大事)를 해결하겠다는 대장부의 용맹심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흉내 내어 따라한다거나, 참선이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본다거나 하는 생각으로는 일대사(一大事)를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가 밀리고 밀려도 포기하지 않고 노를 저어 상류로 올라가듯이, 바위를 올리고 또 올리다가 굴러 떨어져도 다시 올려서 산 정상에 성(城)을 쌓듯이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의지를 가지고 조금도 빈틈없이 정진하고 또 정진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참구하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합니다.

이 화두를 일상 생활하는 가운데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밥을 먹거나 산책을 할 때에도 챙기고 의심하여, 화두일념이 지속되게끔 하루에도 천 번 만 번 챙기고 의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참의 심이 시동 걸리게 됩니다.

이때는 몇 시간이 지나가고, 며칠, 몇 달이 지나가는 줄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가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진리의 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략〉

이렇게 태고보우 스님이 부처님의 정법정안(正法正眼)을 부촉(付囑)받으니 57조 법손이 되어서 그 법맥이 우리나라에 전해졌습니다. 그 후, 조선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면면(綿綿)히 이어지고, 조선 중기의 63조 청허 휴정선사로 이어진 후,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풍전등화(風前燈火)로 그 법맥이 이어져왔습니다.

근세인 한말(韓末)에 75조 경허(鏡虛) 선사에 이르러 선풍(禪風)을 중흥하여 혜월(慧月) 스님에게로 법(法)을 전했습니다. 혜월 스님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법을 펴시니, 운봉(雲峰)선사에게 전해지고, 향곡(香谷)선사에게로 등등상속(等等相續)하여 부처님 심인법 79세인 산승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역대(歷代)의 모든 불조(佛祖)께서 끊어지지 않도록 노심초사한 부처님심인법이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전해진 후, 오직 한국에서만 오늘 날까지 그 법이 우리의 선불장에서 오롯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귀하고 귀한 부처님의 심인법을 다시 세계에 널리 선양(宣揚)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법은 임제 선사의 선풍(禪風)을 이은 임제종입니다. 예전에 향곡 선사께서 산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덕산 선사의 '방(棒)'의 가풍(家風)을 소중히 여기느냐, 임제 선사의 벽력같은 '할(喝)'의 가풍(家風)을 소중히 여기느냐?"

그래서 산승(山僧)은, "두 가풍을 모두 한 구덩이에 매장하겠습니다"

또 물으시기를, "필경일구(畢竟一句)는 자마생(作 生)고?"(필경에 일구는 어떻게 생각 하는고?)

산승이 답하기를, "무운생령상(無雲生嶺上)하고 유월낙파심(唯月落波心)이라"(산봉우리에 구름이 걷히니 산마루가 드러나고, 밝은 달은 물결 위에 떠 있습니다)

'무(無)' 자 화두로 용맹심 내자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조계산은 본래 육조대사께서 머무르셨던 도량이름에서 유래합니다. 육조 스님은 나무꾼이었다고 하고 남방 사람이었다 하는데, 금선(金仙)의 혜명(慧命)을 아시고 황매산 홍인대사의 법을 계승하셨습니다.

불조의 정맥을 철견(徹見)하여 정안종사(正眼宗師)가 되는 데는 재상이나 나무꾼의 차별이 없습니다. 혜능이 〈금강경〉 읽는 소리에 마음이 열려서 점검받을 스승을 찾던 중, 황매산 홍인대사가 당대의 선지식이라 찾아갔을 때, 5조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에서 무엇을 구하러 왔는가?"

혜능이 대답하기를 "저는 신주에서 부처가 되기 위해 왔습니다"하니, 조사께서 "그대 같은 영남 사람에게 불성(佛性)은 없다"라고 잘라 말하자, 혜능은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지만 불성에는 남북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조사가 "신주는 사냥하는 오랑캐 땅인데 어찌 불성이 있겠는가?"라고 다그치자, 혜능은 "여래장(如來藏)의 성품은 개미에게까지 두루 미치거늘 어찌 오랑캐에게만 없다 하겠습니까?"

조사가 말했다. "너에게 이미 불성이 있다면 어찌 나의 뜻을 구하는 게냐?"라고 하면서 기특하게 여겨서 더 이상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육조스님께서는 심인(心印)을 얻어 의발(衣鉢)을 전수 받고 나서 "심지에는 모든 종자를 머금었다가 단비에 모두 싹이 돋는다. 꽃의 마음을 갑자기 깨닫고



나면 보리의 열매는 자연히 맺으리(心地含諸種 普雨悉皆生 頓悟花情已 菩提果自成)"

이런 게송을 읊은 내력이 〈조당집〉에 실려 있습니다. 하나도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오늘 조계산 칠전선원에 방부를 들이는 수좌들은 이 소식을 알겠는가? 모르겠는가? 알아도 30방이요 몰라도 30방이니, 한번 말후구(末後句)를 일러 보시오. (良久)

퇴보 말고 뼈에 사무치게 탁마하라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평상시에 밥 먹고 차 마심은 귀함이 아니요 운문의 간시궐이 참으로 이 귀함이로다. 만약 이 본분의 참된 납자일진댄 조사의 공안을 간취할지어다.

시회대중은 구순 동안 결제해서 이 언덕으로부터 곧 저 언덕에 이르기까지 맹세코 퇴보하지 말고 뼈에 사무치도록 탁마하며 죽음으로 기한하여 정진해서 일을 마친 장부는 부처님의 은혜를 보답한 자니라.

만약 그러하지 못한 자 일진댄 생각생각에 자심을 반조해서 성성하고 적적함을 함께 가지고 선정과 지혜를 쌍으로 닦아서 잠 깨고 잠잠이 한결같아서 언하에 활연대오 하는지라 어찌 쾌하지 않겠는가? 때때로 반조할지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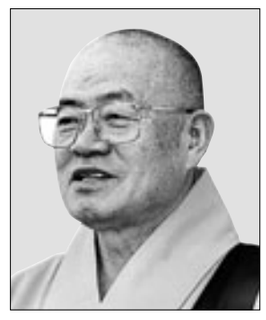
고인이 이르되 털끝이 큰 바다를 삼키고 겨자씨가 수미산을 납입한다 하니 안목을 갖춘 납승은 또 일러라.

도리어 알겠는가? 잠깐 있다가 "할"을 한 번 하고 이르시되 한 가지의 매화향기에 봄소식을 알고 노란 꾀꼬리가 나무에 오름에 한 가지의 꽃이로다. 알겠는가?

게송으로 이르시되

한 물건이 당당하게 항상 드러나서 종과 횡으로 시방을 비추어 다함이 없도다. 만약 긴요히 참구해서 몸과 목숨을 버리면 몰록 생사를 잊고 보리를 이루리라.

시회대중이 만약 생사를 해탈코져 할진댄 모름지기 삼종심을 갖출지니 첫째는 대분심이니



광겁으로 좇아옴으로 누가 성인됨을 방해했으며 둘째는 대용맹심이니 비록 육신을 보존하나 구경에 반드시 죽으며 셋째는 대의심이니 본참공안이 낱낱이 직설이어늘 무엇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고? 간절히 참상할지어다.

실참실오는 여래의 지견이요 자기를 속이고 다른 이를 속임은 사마의 권속이로다. 만약 또한 실참을 쉬지 아니하면 개개인이 망을 쉬고 정각을 이루리라.

본분사 발휘해야 참 공부인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우인제경불망심(愚人除境不忘心)이요 지자망심부제경(智者亡心不除境)이라.

어리석은 사람은 대상경계를 제거하고 마음을 잊지 않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잊고 대상경계는 제거하지 않는구나.

용아거둔 선사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습니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이 매우 어렵구나."

"조사의 뜻과 부처님의 뜻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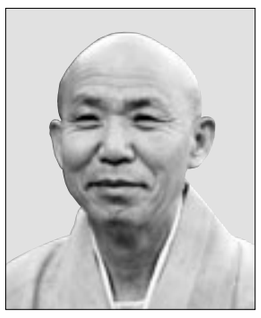
"조사는 부처님보다 나중에 왔다."

"조사는 무사사문(無事沙門)입니까?"

"사문이라면 무사(無事)해서는 안 된다."

"어째서 무사(無事)하면 안 됩니까?"

삼세제불도 무사인(無事人)이며 역대 조사 또한 무사인 입니다. 무사(無事)란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쳐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이며 일대사(一大事)를 해결하여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는 경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본래의미와는 달리 '아무 일이 없는 것'을 궁극적인 경지라고 여기는 무사선(無事禪)이 제방(諸方)에 횡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상을 있는 그대로 그냥 보내면서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지견과 알음알이조차 세우지 않는 것을 도(道)라고 생각하는 병통이 종문(宗門)에 만연하게 됩니다. 유위(有爲)의 사(事)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 다시 무위(無爲) 사(事)라는 경계에 속박된



다면 이 또한 큰 허물입니다. 정작 마지막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략〉**

그래서 평상사(平常事) 속에서 본분사(本分事)를 발휘할 때 제대로 된 공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자기 손으로 번뇌망상의 못과 쐐기를 뽑고 기름 때로 찌든 모자를 벗기며 냄새나는 베적삼을 벗기고 자기 몸까지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무사를 체득한 납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또 결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아주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다가 안 쉬면 내생(來生)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사람 몸 받기 힘들고 부처님 법 만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을 적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애써 정진해서 공부를 성취하도록 합시다.

단어사상통무사(但於事上通無事)하고 견색문성불용롱(見色聞聲不用聾)이로다.

단지 일을 하는 중에 일없는 도리에 통해야 하며 색을 보고 소리를 들음에 귀머거리와 봉사처럼 할 필요는 없구나.

힘든 세상, 악업참회·수행매진부터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달마 스님께서 혜가 스님에게 묻기를 "모든 반연(攀緣)을 끊었는가?" 혜가가 답하길 "이미 끊었습니다."

달마 스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단멸에 떨어진 것은 아닌가?" 혜가가 이르길 "단멸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밝고 밝아 어둡지 않고 분명히 항상 알고 있으니 말로 하려해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불교는 고요하고 가라앉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마음이 치달리는 것을 쉬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저 '고요해야지, 적정해야지' 하는 것으로는 허무적멸에 치우친 번뇌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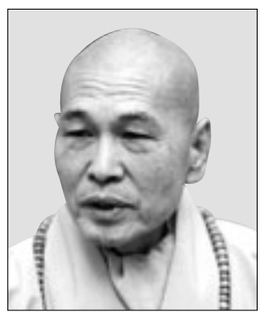
단견(斷見)도 상견(常見)도 모두 떠나 중도(中道)로써 관(觀)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게 됩니다. 근래 세상의 욕망성취들이 눈부시다보니 사람들 역시 천경만론(千經萬論)을 자주 접해서 과거 사람들과는 비할 바 없이 아는 것이 많습니다. 상황이 그렇기에 어설픈 지식으로는 세속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이고 특히나 탈권위의 시대, 탈종교의 시대이기에 과거 농경시대의 개념과 인식으로 굳어진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비참해지기가 쉬워집니다. **〈중략〉**

우리 불교는 분명 단견(斷見), 상견(常見)을 모두 떠나 중도로써 실상을 그대로 바라보자는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관념들과 선입견들 과거의 경험으로 생겨진 사유들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보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합니다. 자신의 아상(我相)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나'라는 생각을 초월해버리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不欺自心(불기자심)!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들을 속이고 진리를 속이는 대망어(大妄語)의 죄를 짓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과 주관적 경험이 정도(正道)라고 믿는 병폐를 여러 번 봤습니다. 불자로서 살아가기 참으로 어려운 날들입니다. 이럴수록 늘 발원을 굳건히 세우고 과거의 악업들을 참회하며 수행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작금의 현실을 돌파해나가는 길이 그것뿐입니다.

우리 민족의 일이 잘 풀려나갈 것이라 믿었는데 역시 세상일이라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처님 당시 카필라국도 지금의 우리처럼 4대 강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통을 받았고 부처님께서도 그러한 모순들, 즉 민족과 민중계급의 모순



들이 만들어낸 비인간화된 사회를 고민하시다가 결국 출가를 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중략〉**

우리 결제대중은 이러한 난관 속에서 고뇌하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잊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불교는 이조 오백년과 정화 때도 그랬고 10.27법난도 극복해 나왔습니다.

이렇게나 힘든 시절 우리 대중들은 불조의 가르침을 결연히 믿고 엄격한 절제와 자기반성,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 각종 모순들을 타파합시다! **〈하략〉**

최상승자(最上乘者), 세간의 복전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如斬一握絲(여참일악사)하야 一斬一切斷(일참일절단)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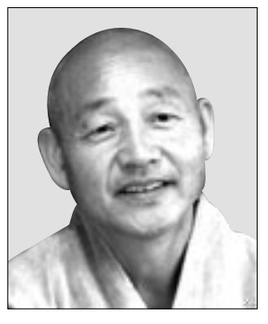
마치 한 줌의 실을 끊음과 같아 하나를 끊으면 모두가 끊어진다네.

여름 석 달을 기한으로 안거를 시작하는 결제일입니다. 산문출입을 삼가며 총림대중이 화합하여 정진하는 이유는 무명업장에 가려진 본래 구족한 지혜덕상을 바로 보고 활용하게 하는 최상승인의 안목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명업장을 끊어내는 일에 있어서 헝클어진 실을 풀어내듯 풀려고 한다면 마침내 풀어지지 않아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상승의 수행을 하는 공부인은 그 수행을 오롯이 하기 위하여 삭발하고 가사를 입어 세상 사람들과 모습을 달리하며, 안거제도를 활용해 처절한 수행정진을 합니다. 이러한 수행법 가운데 가장 수승하고 쉬운 방법이 바로 화두를 참구하는 일입니다.

오직 한 타래의 실을 끊어버리는 마음으로 먹고 자는 일까지도 잊고서 정진하다 보면 더러운 것도 싫어하지 않고 깨끗한 것을 집착하지도 않으며, 제도할 중생을 보지도 않고 증득할 만한 열반을 보지도 않으며,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다는 마음도 짓지 않으니 이것을 최상승이라 하고 일체지(一切智)라 하며, 무생인(無生忍)이라 하고 대반야라고 합니다. 즉 한 법도 일으키지 않고 일체법을 성취시키는 일이 됩니다.

이러한 수준에 이르러야 만나는 사람마다 인천의 사표가 되게 하고, 진참회가 이루어진 청정한 대중이 되게 하며 증애와 시비를 초월한 대자유인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마치 한 타래의 실을 염



색하는 것과 같아서 한 번 물을 들이면 모두가 물들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수행인이 배출되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감동적인 일이며, 중생계에 희망을 주는 일이며 청정승가가 유지되고 법희가 충만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략〉**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⑪ 4차 산업혁명과 명상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IoT, 무인운송수단, 로봇,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기술 중에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AR)은 현재 이미 우리 현실에서 가장 체험하기 쉬운 기술이면서도 그 효용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기술이다. 우리는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지,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편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교육이나 체험게임에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제한된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마치 1980년 후반에 컴퓨터 교육 열풍이 불던 당시에 정작 컴퓨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계인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감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가 삶의 일부로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계가 된 것은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후의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윈도우즈 운영체제와 인터넷이 보급된 것에 기인한다. 여전히 미지의 영역에 있으면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인간의 감각과 의식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을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공감각(synesthesia)이라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전체인구의 2% 정도로 알려진 공감각 소유자들은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과 공유하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지닌다. 어떤 이는 C#의 음계로 연주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푸른색이 보이는 등 각 음계마다 다른 색깔을 인지하며, 어떤 이는 검은 색으로 인쇄된 활자를 읽으면서도 알파벳이 각각 다른 색깔로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등급(grid) 60의 사포 표면을 손으로 만질 때는 죄책감을 일으키고, 등급 120에서는 새빨간 거짓말의 느낌을 불러내기도 한다.

그런데 일부의 공감각은 현재의 증강현실 기술로도 보통 사람들이 재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강현실 기능을 탑재한 안경 형태의 HUD(Head Up Display)를 착용하고 음악을 들으면, 음계에 따라서 다른 색깔이 나타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즉, C음이 울리면 노란색 물방울이 나타나고, E음이 울리면 빨간색 물방울이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소리가 크면 큰 물방울이, 높은 옥타브에서는 높은 위치에 물방울이 나타나게 하고, 소리의 잔향이 줄어들면서 물방울이 희미하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증강현실을 통해서 별다른 교육과정 없이 후천적인 절대음감을 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음악관련 종사자나 소수의 애호가들만 지닐 수 있었던 감각을 쉽게 체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과는 다르다. 또 이를 통해서 장기간 청각과 음악적 감각을 훈련할 경우, 그로부터 체득한 음악적 이해가 HUD를 벗은 후에도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현실의 재현과도 다르다. 세간에서는 염불을 할 때마다 세상이 실제로 환하게 보인다는 사람이 있다. 그런 것을 분석하고 재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것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이와 같이 새로운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불교와 관련하여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의 또 다른 가능성은 명상에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명상이라는 말이 광범위한 외연을 지니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명상'이 건강을 증진시키고 심리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서 일부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상이 사회적으로 널리 보급되지 못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유의미한 명상 체험에 실제로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체험조차도 개인적 차이가 두드러져서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며, 세 번째로는 현대적 방식의 교육체계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미래에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명상에 활용될 경우 이런 점들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경과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였던 존 릴리(John Lily)는 격리탱크(Isolation Tank)라는 기계를 발명하여 인간의 변성의식을 유도하는 실험을 하였다. 격리탱크는 침대 크기의 탱크 속에 부력을 높인 액체를 넣고 그 안에 사람을 눕히고 뚜껑을 닫을 수 있는 형태의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빛과 중력뿐만 아니라, 안이비설신의 다섯 가지 감각이 모두 차단된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당시의 실험결과로는, 격리탱크 속에 들어가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이 중지된 상태의 피실험자들은 불과 수십 분 사이에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심리상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무한한 심리적 평온을 느끼기도 하고, 감각이 차단되면서 자아라는 관념이 붕괴되는 느낌을 가지기도 하고, 환각을 보기도 하고, 유체이탈을 하기도 했는데, 그 중 일부는 명상에 길이 들었을 때와 같은 초월적인 체험을 겪었다고 이야기기도 하였다.

증강현실, 감각 체득에 활용

감각의 제어는 욕망의 제어

데이터 축적으로 마음 지도 가능

켄 러셀감독의 영화 '상태개조'에서는 이런 격리탱크에서의 체험이 다소 왜곡된 형태로 자세히 묘사된다.

위와 같은 격리탱크 실험이 드러내는 것은 감각이 우리의 자의식을 형성하는 데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위의 실험결과를 해석해보면, 평상시 인간의 의식은 끊임없이 제공되는 시각 · 청각 · 후각 · 미각 · 촉각적 정보에 의해서 형성되고 유지되지만 그런 감각적 정보의 제공이 단시간만 차단되어도 의식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며, 심지어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의식이 붕괴되고, 나아가 속박으로부터 근원적으로 벗어난 기분을 느끼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초기 불교경전에서는 다섯 가지 감각의 제어가 곧 욕망의 제어이며, 그것을 통해서 명상의 최고의 단계를 획득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또한 초기 자이나교 경전에서도 다섯 감각의 제어를 통해서 애착과 혐오를 제어하며, 이전에 지은 업을 소멸한다는 내용이 있다. 고전 요가에서도 감각의 제어가 삼매로 가는 과정에 위치한다. 적어도 실험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릴리의 격리탱크 실험이 이런 명상에 대한 신빙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릴리의 격리탱크가 과연 명상의 상태를 체험하게 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할 만한 학문적인 방법도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을 가상현실로 재현할 수 있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기인 HMD(Head Mounted Display)는 가상현실 2세대 기술에 속한다.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3세대 기술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뇌파연동을 통한 가상현실 구현기술이다. 그리고 현재의 기술이 외부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하여 '현실처럼' 속이는 기술이라면, 뇌파연동 구현기술은 인간의 뇌에 직접 가상현실 정보를 송수신하는 기술이다. 일본의 애니매이션 '소드아트온라인'이 그와 같은 기술을 지닌 근미래를 그려낸 작품이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되면, 격리탱크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그대로 재현되는 프로그램도 개발 가능하며, 그럴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를 체험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이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정보의 공유'라는 것이 진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통한 '체험의 공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겪을 일들이고, 불교의 입장에서도 고민해야 될 일이다. 환각제 LSD의 보급이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히피 운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고 단기간에 확산되었던 것처럼, '체험의 공유'라는 것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집단적 의식의 전환'을 야기하며,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격리탱크의 구현은 가상현실이 명상체험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며, 가능성에 주목하고 아이디어가 모이기 시작하면 수많은 '실질적으로 명상에 유용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은 '체험의 공유'를 '정보의 공유'로 연결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재생산할 수 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3세대 가상현실 기술이 개발되면, 예를 들어 위에서와 같은 격리탱크의 체험이 실현될 경우, 수많은 체험자들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가 취합되어 패턴별로 정리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명상 혹은 유사체험과 관련된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명상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 기존의 명상체계는 어떤 위치를 가지게 될까? 그리고 어떤 면을 시사할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볼 때, 사무라이 시대의 검도와 현대의 검도를 비교하면, 향후 명상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지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무라이가 존재하던 시대의 검도는 각 유파마다 스승으로부터 비기를 전수받는 교육시스템을 지니고 있었다. 다른 유파와의 시합에서의 패배는 죽음과 직결되기도 했다. 그런데 무구를 쓰고 죽도(竹刀)로 대결하는 현대의 검도 도장에서는 사무라이 시대의 생사를 넘나드는 무도(武道)는 없어졌고 더 이상 겪을 수도 없지만, 검술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진보했다. 더 이상 유망주가 죽는 일도 없어졌고, 생사와 무관한 수많은 시합들을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었고, 교육시스템도 개선되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선수의 약점과 개선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코치가 동의할 만큼 객관화도 이루어졌다.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진정한 무도인지를 고민하기 이전에 예전의 방식이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향후에 명상이라는 것도 극소수를 제외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대에는 고대처럼 종교적 스승으로부터 직접 비전을 전수받는 것도 어렵고,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극소수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갈 뿐이다. 그 대신에 수많은 사람들의 체험과 부작용, 애로사항, 유형별로 적합한 방법 등을 데이터의 누적을 통해서 체득한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명상지도를 할 날이 올 지도 모른다.



강형철(동국대학교 인도철학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제99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7월 23일 월요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제8회 반야학술상 공모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제8회 반야학술상**을 공모합니다.
불교학 및 불교문화 우수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반야학술상은
매년 저술상과 논문상 두 분야를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불교학 및 불교문화연구자들의 많은 추천과 응모 바랍니다.

저술상
응모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출간된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창의적인 저서 및 역서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저자 1명에게 500만원 지원

논문상
응모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국내외 불교학, 종교학 및 철학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불교학 및 불교문화 우수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저자 1명에게 500만원 지원

■ 추천 및 응모 마감 : **2018년 7월 15일** (우체국 소인 확인된 것까지)
■ 추천 및 응모방법은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banyaresearch.org)를 참조바람.
■ 시상일 및 장소 : 추후 공지
■ 문의처 : (사) 반야불교문화연구원 구자상 (010 · 4731 · 3471)
우명주 (010 · 9027 · 5193)

(사) 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

굴곡진 근현대사서, 도난으로 고통받다



최선일의
다시 찾아야 할 聖寶들

⑩ 구례 화엄사 · 암자의 도난 성보







왼쪽부터 도난된 구례 화엄사 지장보살도, 화엄사 시왕도, 화엄사 산내 암자 지장암 목조보살좌상. 사진 제공=문화재청, 조계종

개별 사찰에서 유출된 성보문화재를 조사하는 첫 단계는 여러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재산대장을 수집하는 일이다. 이 작업은 한국전쟁 이전에 사찰 소장 성보문화재의 현황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서, 작성 시기가 다른 여러 본이 남아있어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유물의 소유 현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에 활동한 사람들의 자서전 등을 통해서 관련 내용까지 정리된다면 당시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구례 화엄사는 여순사건이나 한국전쟁의 포화 중에도 피해를 입지 않은 사찰이다. 이는 몇 사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차일혁 총경의 자서전 〈빨치산 토벌대장 차일혁의 기록, 또 하나의 전쟁〉에 따르면 "최영희 8사단장 주재로, 지리산 전투경찰대 사령관 이하 참모들과 경찰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경합동작전을 위한 작전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만한 사찰이나 암자를 소각하라는 지시와 함께 고찰 화엄사에 대한 소각 지시가 하달되었다"라고 적었다.

이때 차일혁 총경과 방득윤 대대장은 화엄사 전각의 문짝을 마당에 쌓아놓고 불을 질러 상부의 명령인 관측과 사격을 용이하게 해놓았다. 이처럼 문화재를 살리려는 몇 사람의 노력이 없었다면 화엄사는 구례 연곡사, 장성 백양사. 정읍 내장사 등과 함께 전쟁 중에 소실되었을지도 모른다.

구례 화엄사는 연기대사가 창건한 절로 전해내려온다. 1978년에 신라 경덕왕 대의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이 발견되면서 이 책의 발문에 황룡사(皇龍寺)의 연기 스님이 발원하여 754년(경덕왕13)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화엄경〉 사경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화엄사의 창건이 경덕왕(재위 742~765) 때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화엄사는 신라 말 도선(道詵)에 의하여 크게 확장되었다. 고려 광종대 홍경선사(洪慶禪師)와 인종대 정인왕사(定仁王師)가 사찰을 중수하였다.

이후 화엄사는 1424년에 선종대본산(禪宗大本山)으로 승격되었지만, 임진왜란의 병화로 완전히 소실되었다. 전쟁이 끝나자 1630년에 각성(覺性) 스님이 사찰중건을 시작하여 7년 만인 1636년에는 대웅전을 비롯한 여러 전각이 건립되었다. 마침내 1649년에는 선종대가람(禪宗大伽藍)으로 승격되었다. 1702년에 성능(性能) 스님이 장륙전을 중건하고, 숙종이 이를 각황전(覺皇殿)이라 사액(賜額)하고 선교양종대가람(禪敎兩宗大伽藍)으로 점차 격을 높였다. 이후 1757년에 대웅전과 1769년에 각황전을 중수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재산대장에 의하면 화엄사 유물은 110건 616점(석경 약 1천점, 신장경 334점 제외)이다. 이렇게 많았던 재산대장 유물 가운데 일부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조선 중기의 전각과 다수의 성보문화재가 남아있는 소중한 사찰이다.

이 사찰에 관련된 재산대장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동국대학교 도서관 복사본, 조선총독부 관보본이 남아있는데, 품목과 크기 등이 달라서 각기 다른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 현존하는 유물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부터 사찰성보의 도난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1932년 6월 8일 동아일보 기사 중에 "전남 구례에 있는 조선 고절로 굴지하는 화엄사 법당에 있는 6백여 원 가량 되는 불체를 지난 3일 오전 2시경에 절취를 당하였다는데 당지 구례경찰서에서는 범인 체포에 노력하여 오던 중 지난 5일 오전 11시경에 구례읍에서 1인을 체포하고 또 2인은 순천군 황전면에서 체포하였다(하략)"라는 기사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이외에도 여러 도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75년 11월 22일 경향신문에 "특히 전남 구례 화엄사에 있는 지방문화재 23호 금잔과 충남 지방문화재 2호 송영달 씨 소장의 송자대전각판을 도난당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는 것은 매우 놀랍고 개탄할만한 일이다"라는 기사를 보면 사찰 문화재의 지속적인 도난과 유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2016년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에는 화엄사 지장보살도와 시왕도(1862년 作, 2001.12.28), 목조금강역사상과 목조판관상(1998.8.8), 경갑과 어작(御爵, 도난 시점 미상)이 실려있고, 산내암자인 지장암 목조보살좌상이 도난 신고됐다.

구례 화엄사 전쟁 피해 없었으나 일제강점기부터 도굴범 인해 몸살 현대에 와서도 지장보살도 등 도난 성보 파악 위한 연구 · 관심 절실해

1988년 7월 14일에 사찰에서 도난당한 지장보살도와 시왕도의 기존에 조사된 화기를 참조하면 "同治元年聖上卽位十四年壬戌十一月日全羅左」道求禮華嚴寺冥府殿證明」畵像新造成仍奉安 奉爲 … 金魚秩」片手 海雲堂益贊」豊谷堂德麟」片手 月虛堂俊彦」海冥堂山水」春潭堂奉忌 圓宗」 妙華」壯植」昶學」德順」守文」正官」和忌 如安」就賢」仁祐」華演」…"으로 1862년 11월에 해운당 익찬, 풍곡당 덕린, 월허당 준언, 해명당 산수 등의 불화승 17명이 조성한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재산대장 3건 중에 1932년 11월 30일 조선총독부 관보에 실린 소장품 목록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재산대장에는 지장화상(地藏畵像) 1점(장 8척, 폭 6척5촌)과 시왕화상(十王畵像) 2점(장 7척5촌, 폭 6척7촌)으로 적혀 있어 쌍을 이루는 시왕도가 두 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장보살도는 지장보살삼존상을 중심으로 8대보살을 대칭적으로 배치하고, 화면상단 지장보살의 두광 양쪽으로 동자가 두 명씩 그려진 구도의 작품이다. 지장보살은 높은 대좌에 결가부좌한 자세이고, 스님과 같이 머리는 민머리에 오른손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리고, 왼손을 무릎 위에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을 취하고 있다.

설채법은 적색, 군청, 녹색이 주조색이고, 지장보살과 육광보살은 황색조의 안료로 칠을 하였지만,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은 백색으로 안면을 칠하였다. 시왕도는 2폭 형식으로 10명의 왕을 5명씩 그려 두 폭으로 나누어 그렸다.

현재 도난 신고된 시왕도는 짝수 대왕이 그려진 불화이고, 홀수 대왕이 그려진 시왕도는 오래전에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시왕도는 화면을 2등분하여 상단과 하단이 절반씩 차지하고, 상단의 시왕 부분은 각 시왕과 책상 주위 권속들로 빽빽하게 그려져 있어 복잡한 도상을 이루고 있다. 적색과 녹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주황, 청색, 백록이 쓰였다. 하단 지옥 상면은 상단처럼 각 시왕의 해당 지옥을 구름으로 구획지어 2단으로 만들어 각 지옥의 이름을 적어 놓았다.

이 불화를 그린 해운익찬(海雲益贊)은 수화승으로 19세기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한 화승이다. 익찬스님은 18세기 이 지역에서 활동한 의겸(義謙)에 의해 확립된 전통적인 불화양식을 계승하면서 19세기 금암천여(錦巖天如) · 원담내원(圓潭乃圓)과 함께 전라도의 불교회화 화단을 이끈 대표적인 화승이다. 그는 주로 1830~1860년대에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였다. 광주 원효사의 화원승 풍계(楓溪)의 제자였다고 전하는 것으로 보아 원효사의 승려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내원과 천여 등 당시 전라도의 대표적인 화승들과 함께 전라도 일대의 많은 작품들을 제작하였다. 현재 30여 점의 작품이 남아있으며,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은 1821년 '아미타불도'이며 가장 늦은 시기의 작품으로는 1862년 화엄사 명부전 '시왕도'가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화엄사 지장보살도와 시왕도는 작품성뿐만 아니라 19세기 중반 불교회화사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화엄사 산내안자인 지장암에서 2006년 7월 4일에 도난당한 목조보살좌상은 얼굴을 약간 앞으로 숙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화염문(火焰文)과 화문(花文)으로 장식된 커다란 보관을 쓰고 있다. 보살상의 얼굴은 각이 진 방형(方形)으로 눈꼬리는 약간 위로 올라가 있고, 코는 곧게 뻗은 삼각형이며, 작은 입에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다.

머리카락은 귀고리를 단 귓불 위를 지나 양쪽 어깨에서 팔뚝까지 길게 보주형(寶珠形)이 겹친 형태로 늘어져 있다. 따로 제작된 양손 가운데 왼손은 가슴까지 올려 엄지와 검지를 둥글게 맞댄 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손가락에 정병을 끈으로 묶어놓았다. 대의자락은 오른쪽 어깨에 완만하게 접혀 늘어지면서 팔꿈치와 배 부분을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자락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수직으로 내려와 반대쪽 대의자락과 배 부분에서 U자형으로 겹쳐 있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은 배 부분에서 수직으로 늘어져 있다. 대의 안쪽에 걸친 승각기(僧脚崎)는 사선으로 접혀 간략하게 표현되었다. 이와 유사한 보살상이 1612년에 부휴선수(浮休善修)와 벽암각성(碧巖覺性)의 공덕(功德)으로 화원(畵員) 현진(玄眞), 명은(明隱)이 제작한 경상남도 함양군 상련대 목조보살좌상이다. 화엄사 지장암 목조보살좌상도 17세기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1998년 8월 8일 목조금강역사상과 목조판관상과 도난 시점 미상인 경갑과 어작 등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유물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
공저=홍은미 옥천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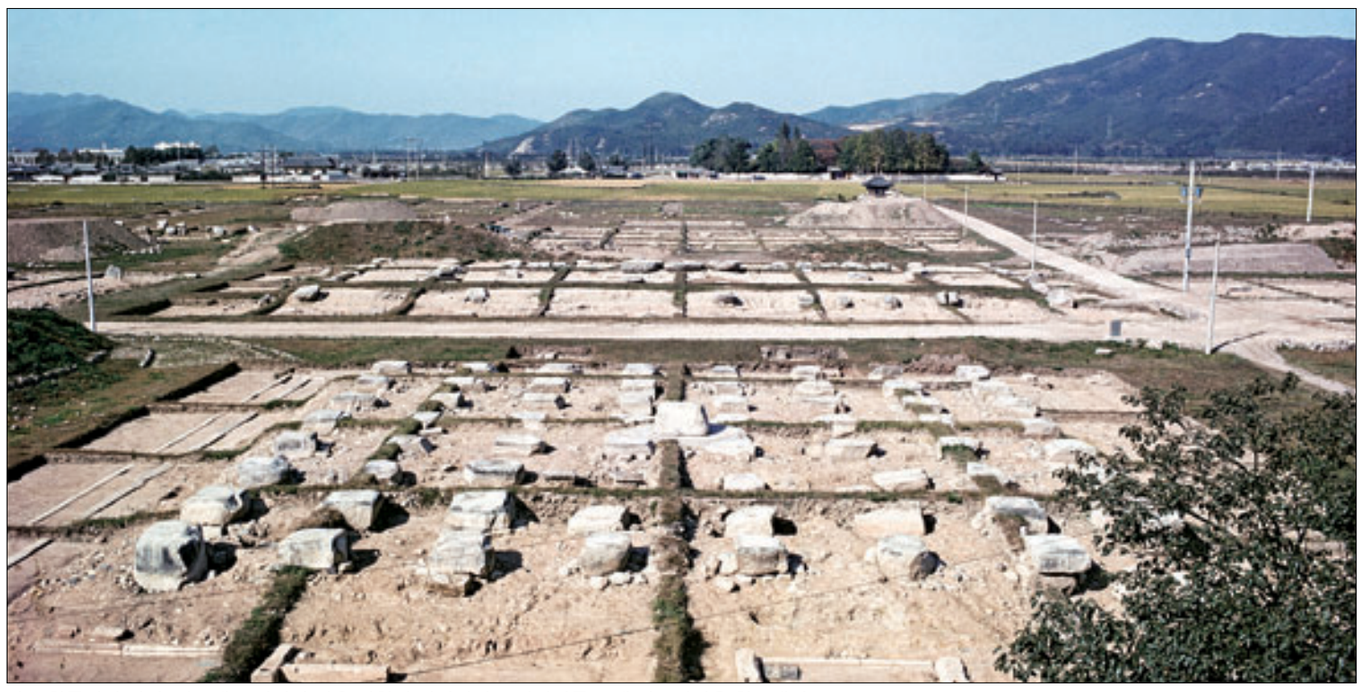


사찰도 구역관리가 필요하다



조기룡의
사찰경영, 산문에 들다

⑩ 사찰 관리 체계화



경주 황룡사지 전경. 경주에는 당시 수많은 사찰이 있었지만 구역관리를 통해 신도권역을 확보했다.

흔히 구역관리라고 하면 기독교에서 하는 신도관리 방법으로만 생각하고는 한다. 교회에서 보편화된 신도관리 방식이라서 그런지 불자들은 '구역관리'라는 용어 자체에 원인 모를 거리감마저 느끼기도 한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실제로 구역관리를 통한 신도관리를 하지 않는다. 사찰의 구역관리라고 하는 것이 구역별 축원카드 관리 수준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구역관리가 다른 종교에서 일반화된 방식이라 하여서 우리 불교가 시행하기를 기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구역관리는 신도를 동일생활권별로 소규모의 조직을 구성하여 가정에서도 신행생활이 지속되도록 관리하는 체계로, 사찰의 신도관리 및 조직관리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찰을 중심으로 한 신도의 결속력과 유대감을 강화해 주고, 또한 재일(齋日) 기도에 그치기 쉬운 신도의 신행을 일상화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역관리를 위해서는 동일생활권 내에서 소규모로 구역조직들을 구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우선 구역관리의 기초가 되는 이 구역조직의 기능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구역조직은 신도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의 수행과 가정법회의 봉행, 경전공부, 친교의 나눔, 포교의 실천을 가능하게 해준다. 상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가정법회는 동일한 구역조직의 신도가 한 가정에 모여서 법회를 봉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불자의 상당수는 종교 활동을 하지 않거나 1년에 1차례 즉, 사월초파일에만 법회에 참석한다. 자칭 불자이면서도 상당수는 1년에 사월초파일 하루 정도만 절에 나오거나 아예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다. 이들을 절로 인도하기 위해선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동일 생활권에 있는 신도들이 가정에 모여 법회를 봉행하게 되면 불교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은 좁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에 따라 종교활동이 증가함으로써 신행의 부족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신도가 일상생활에서 혼자 경전을 공부하기는 마음처럼 쉽지 않다. 이는 시간의 할애, 공부가 주는 지루함, 그리고 내용상의 어려움에 주로 기인한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경전을 공부하게 되면 시간을 할애하기 용이하고, 지루함이 덜하며, 그리고 내용상의 어려움을 토론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친교(親交)라는 것은 서로 신행 안에서 유익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가정법회만 봉행하고 헤어지면 형식적인 모임으로 전락할 수 있다. 신도 간에 인사를 나누고 상호 간에 정감어린 대화를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친교의 뜻을 잘못 해석해서 구역조직 모임 때마다 먹고 노는 유흥의 시간이 된다면 구역조직의 참 의미를 잃게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구역조직은 포교의 기초 단위가 되어야 한다. 구역조직에는 새로운 이웃을 동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웃 사람들을 모임에 초청하여 포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사찰에 가기를 꺼리는 이웃 사람도 친근한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모임에는 보다 쉽게 동참할 것이다.

그러면 구역조직의 원리와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구역조직은 먼저 10명 내외의 소조직으로 구성하나 해당 사찰의 형편에 맞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찰성장에 따라 구역조직 확장원칙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하며, 한번 세운 원칙만을 고집하지 말고 유동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재평가와 연구 분석을 통하여 방향을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구역조직은 반드시 신도의 필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하고 조직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야 한다. 이러한 제원리들에 의거한 구역조직의 활성을 위해서는 소속감의 형성, 수행정진과 경전 공부의 독려, 불교적 리더십의 배양, 선의의 경쟁 유도가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구역조직의 인격적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사찰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시켜주어야 한다. 오늘날 사찰의 의사소통도 점차 비인격화되는 경향이 있다. 종종 그것은 계산적이기도 하며 직업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규모인 구역조직 안에서는 반드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종교조직의 특성상 사찰은 포교를 위한 기능을 요청받는데, 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위의 지도자가 되는 구역장이 소속감을 가지고 포교에 임하여야 한다.

어떠한 형태의 수행에 정진하거나 어떠한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친교와의 차별성을 부여해 주며 구역을 종교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각 개인에게 인간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간적인 만남 속에서 이루어는 수행과 경전 공부는 서로의 신심을 제고시켜주기 때문이다.

신도가 구역에서 포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불교적 리더십을 배양해야 한다. 종교조직의 특성상 사찰은 포교를 위한 기능을 필수적으로 요청받는데, 신도가 타인에게 포교하기 위해서는 불교적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불교적 리더십이 없으면 타인을 불교적으로 지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교적 리더십은 강한 신심에 최소한의 인간관계기술이 수반될 때 배양될 수 있다.

포교의 기초단위 구역조직
10명 내외 소규모로 구성
신도조직 체계화 기반에 도움

각각의 구역장들에 대하여 선의의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다. 구역장들이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활동을 분석하여 포상할 수 있는 일련의 보상제도(token system) 혹은 공적제도(merit system)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그러면 구역조직을 이끌어가는 구역장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구역조직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이 시원치 않으면 구역조직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구역조직에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이들에게는 몇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경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불법(佛法)의 근원이 되는 경전의 의미를 모르고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 경전을 잘 알아야 구성원을 불법에 맞게 가르칠 수 있으므로 구역장은 경전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열성이 있어야 한다. 이 세상 어떠한 일이라도 그 일에 성공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구나 소규모라도 남 앞에 서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려면 열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열성 없는 구역장은 누구에게도 감화를 끼칠 수 없다. 비록 학식이나 지식에는 모자람이 있을지라도 신심에 기반을 둔 열성이 있으면 구성원들의 존경을 받아서 구역조직을 이끌 수 있다.

또한 비전(vision) 의식이 있어야 한다. 구역장이 오늘도 내일도 잘만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한다든지, 모든 일이 그저 그만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야 구역조직을 잘 인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포교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구역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고민하는 사람이 구역장의 소임을 맡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돈독한 신심은 쉽게 구성원들에게 전달되어 구역조직을 신심이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는 실천하지 않고 남에게만 행하라고 한다면 그의 말은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없다. 구역장이 계(戒)를 지키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 때 구성원들이 그의 지도를 따른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구역조직을 토대로 하여서 구역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첨언하고자 한다.

구역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구역조직에 대한 치밀한 연구조사와 사려 깊은 계획을 해야 한다. 먼저 사찰의 연구조직을 구성하여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사찰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비교 · 검토하여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구역장을 위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구역장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구역장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구역장 임명을 위한 교육이 종료되었더라도 사후 교육을 지속하여야 한다. 분기별로 한 번 정도 구역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구역장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동기를 제공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합리적인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구역활동이 질적으로 하락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 평가는 서류상으로만 하지 말고 구성원들과 교역자가 자주 만나 상담해 봄으로 인해서 합리적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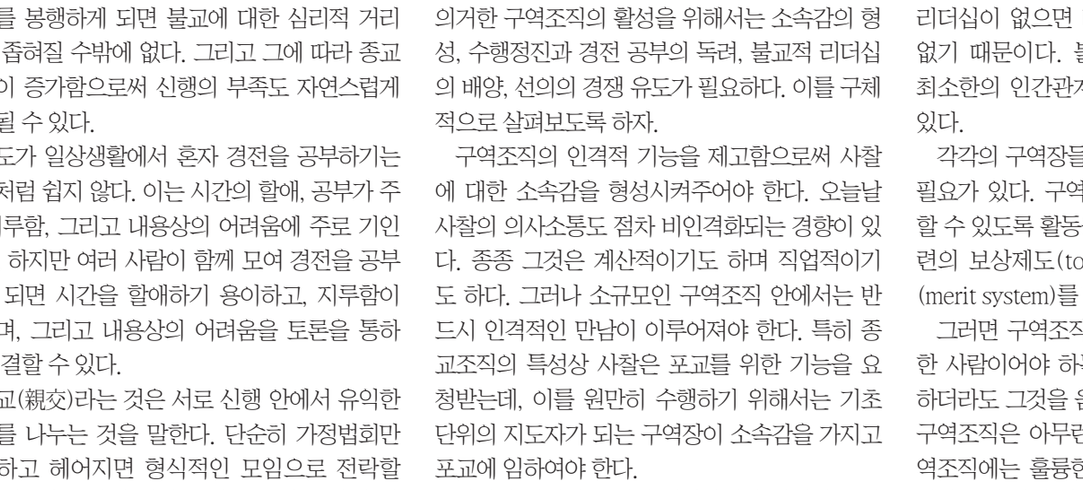
넷째, 사찰의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구역조직은 사찰 전체 조직 안에 일부로서 존재한다. 사찰 안의 모든 조직은 유기적으로 연계된 조직이다. 따라서 구역조직은 사찰의 다른 프로그램과 연관되어야 한다.

다섯째, 구역관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단시간에 구역관리를 활성화하여 사찰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욕심일 수 있다. 다른 사찰에서 성공한 구역관리 프로그램을 단순하게 모방하지 말고 해당 사찰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정 사찰에서 성공한 프로그램이 다른 사찰에서도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찰의 형편에 맞게 시작하여 기간을 가지고 향상시키려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사람은 많되 결속되지 않은 조직을 일컬을 때 흔히 모래알 같다고 한다. 우리 사찰의 조직이 그와 같은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신도 수는 적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막상 일을 추진하려면 사람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교단-종단 혹은 사찰 차원에서 여러 조직을 결성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도 전에 유야무야 사라지고는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단과 종단의 기초 조직인 사찰의 신도조직에서부터 결속력을 다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신도들을 소규모 단위로 조직화하는 것은 신도조직에 결속력을 강화하면서 체계적인 정비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불교교단은 신도들을 소규모 단위로 조직화해주어야 한다. 만일 '구역관리'라는 용어가 거부감을 준다면, '법등(法燈) 관리' '법단(法團) 관리'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 된다. 근래에 들어 급속한 성장을 이룬 소위 대형 도심포교당들을 분석해보면, 신도조직을 소규모로 조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든 그 기초 조직이 튼튼하여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이고 다른 조직들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조직관리 기법이다. 더 이상 구역관리라는 용어에 천착하여 조직관리와 신도관리를 그르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chokiryong@dongguk.edu〉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후원계좌 : 국민은행(611225-92-121426 박성호)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부처님 45년 삶에 관한 이야기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⑳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

부처님에 관한 전생과 현생, 그리고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은 너무 많은데 정작 부처님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제자들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 성도하신 후 45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하신 부처님의 삶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경전이 바로 〈불본행집경〉이다.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는 대부분 율장을 중심으로 수집되다보니 너무나 인간적인 부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 아마도 부처님을 위인전 스타일로 삶에 집중해서 쓸 것인지, 그의 사상을 중심으로 문학적으로 쓸 것인지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 엄청난 양을 수집하고, 그것을 다시 잘 섞어서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한 편의 대하드라마가 탄생되었다. 이 위대한 편집자는 바로 북인도 출신인 사나굴다(jnanagupta) 스님이다. 27살에 제자 10여 명과 함께 중국에 들어와 3년간 머물다 주나라 무제의 폐불을 피해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수(隋)나라 때 초청을 받고 들어와 역경불사를 장장 15년간 주도하였다.

〈불본행집경〉 원전은 아직 발견되진 않았으나 사나굴다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직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전의 형태를 예상할 수 있다.

〈불본행집경〉은 전체 3부 6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생부 5권, 금생부 32권, 전법기 23권이다. 전생부는 과거부처님으로 시작해 석가모니불까지의 계보와 주로 전생담이다. 보리심을 발하여 도솔천에 올라갔다가 다시 마야부인의 품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담겨져 있다.

금생부는 현세에 태어나 학습하고, 결혼하며 왕자로 살았던 시기와 출가하여 스승을 찾아다니며 공부했던 시기와 깨달음을 성취하고 난 뒤에 녹야원에서 초전법륜을 전하던 시기다. 전법기는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과의 이야기와 그들의 전생과 출가의 인연 이야기들로 구성되었다.

어느 날 목련존자가 아침 일찍 탁발을 나가려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너무 이른 아침이라 걸식하기엔 너무 이르구나, 아무래도 이럴 땐 정거천에 가는 게 좋겠다."

목련존자가 정거천에 들자마자 수많은 정거천인들이 노래 부르며 목련존자를 맞이하러 갔다.

백천만겁 동안에 있어서
부지런히 보리도를 구하셨네.
많은 세월 지내오면서
중생들 가운데 큰 보배로세.
세상에서 가장 보기 어려운 분들은
오직 불세존 오직 부처님 세존 뿐이더라.

목련존자는 이 노래를 듣자마자 온 몸이 떨리고 털이 다 일어설 정도였다. 그리고 바로 부처님께로 돌아와 여쭈었다.

"왜 그들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는 것을 그렇게 힘든 것이라 하는지요."

이는 부처님과의 인연이 큰 공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근은 심고, 보리심을 구하기 위해 부처님은 수없이 많은 세월동안 많은 여래와 세존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공경 공양한 것이다. 그로 인해 부처님이 되시고 지금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찾아오는 이들에게 부처님도 그와 같이 했음을 인지해야 한다. 공경공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가섭존자 일화서도 나온다. 가섭존자는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자라면서 출가하기를 원했다. 부모가 반대하여 할 수 없이 필발라야나와 결혼은 하였지만 출가하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그로부터 15년간 이들 부부는 서로 접촉조차 하지 않고 살았다. 어느 날 필발라야나의 아버지가 별세하자 이들 부부는 바로 출가하였다. 가섭존자는 어느 날 부처님을 거리에서 만났다.

'마치 금상의 광체가 빛나듯하여 그 마음에 일체지를 내어 합장하고 크게 기뻐 세존을 뵈었네.'

가섭존자는 석가모니불에게 출가하여 비구 가섭이 되었고, 부인은 엉뚱한 곳에 출가하여 진정한 공부와는 먼 곳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

〈서울 반야사 주지〉

정법과 사법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⑲ 금강경 26분

2500여 년 전 인도에서 태어난 석가여래의 가르침이 오랜 세월 걸쳐 세계 여러 나라에 전파되면서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형태의 불법으로 변형 전개됐다. 이렇게 변형된 다양한 형태의 불법 중에서 어떤 가르침이 사람들을 밝게 하는 정법인지, 어떤 불법이 삿된 가르침인지 보통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었다.

부처님의 밝은 정법의 가르침을 받아 행복해지며 밝아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비록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는 하나 정법이 아닌 즉 사법의 가르침을 받들고 행하므로 불행하고 패가망신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

그런데 과연 어떤 가르침이 정법이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또 지혜롭게 하는 가르침일까?

부처님께서는 정법과 사법에 관한 구분을 금강경 26분에서 실감나게 규명했다.

약이색견아(若以色見我)
이음성구아(以音聲求我)
시인행사도(是人行邪道)
불능견여래(不能見如來)

만일 겉으로 드러난 모양으로 또 겉으로 들리는 명성으로 부처님을 판단하는 사람은 사도(邪道)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므로 정도(正道)를 모른다.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란 실은 자신의 마음속 분별심이 만들어낸 허상이며, 명성이란 자신의 선입견이 만든 허명(虛名)이다.

이렇게 모양이나 명성으로써 부처님을 판단하고, 현실을 진단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분별심이나 선입견이 현실을 만든다는 일체유심조의 진리, 또 그 분별심아란 것이 착각이요 본래 없는 것이라는 공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사람은 올바른 지혜가 없기에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이다.

정법에 관해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었나? 금강경에 실무유법(實無有法) 명위보살(名爲菩薩)이라는 말씀을 하시었다. 즉 실무유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보살이요 곧 정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인데 다시 말해 일체유심조의 진리나 공의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은 정법을 행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이끄는 단체는 정법단체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무유법은 일체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법과 사법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보자. 보통 성직자들(정법을 행하지 못하고 사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난제를 호소하며 난해한 질문을 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여 난제에 대한 정답을 제시한다.

자신이 난제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반드시 올바르다 할 수 없기에 난제해결에 결정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일체유심조와 공을 깨친 성직자들(즉 지혜로운 성직자들, 정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난제를 호소할 때 호소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부처님과 똑같이 난제를 해결할 지혜가 있음을 일깨워 주고 이를 발견하게끔 도와 줄 뿐이다. 자신의 마음 속에 부처님과 똑같은 전지전능의 위력은 어떤 절체절명의 난제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처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일체유심조나 공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는 설법은 정법이 되지 못하는 것이며, 이들이 이끄는 단체 역시 정법행하지 못하는 단체 즉 사도를 행하는 단체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불경(佛經) 속의 똑같은 말씀이라도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설명하면 사법(邪法)이 되는 것이요, 지혜로운 사람이 설(說)하면 상대의 지혜를 밝게 하는 정법(正法)이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회광반조 '이 뭣고'

참선(參禪)을 흔히 직지인심견성성불(直指人心見性成佛)이라고 한다. "교학에 의지하지 않고 곧바로 마음의 본성을 직관해 부처를 이루게 한다"는 의미이다.

견지망월(見指忘月)이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않고 손가락만 보고 달을 봤다고 하듯이, 내안의 부처를 외면한채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겉모양에 집착해 밖으로 허상을 찾아 해매는 중생들의 마음을 안으로 되돌려 깨침에 이르게 하는 것이 간화선 '이 뭣고' 이다. 화두는 관(觀)하는 것이지 견(見)하는 것이 아니다. 견은 육안과 업식으로 보는 것이고, 관은 심안으로 꿰뚫어 보는 것이다.

관은 한 면(面)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연따라 생겨나는 것을 보며, 기울어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도(中道)를 보는 것이며, 절대 평등을 보는 것이다. 이 단계가 지나면 '이 뭣고'의 이것이 바깥서 주인 자리로 환지본처 즉 회광반조(廻光返照)하게 된다.

초점을 '무엇'이 아닌 '이것'에 맞추어야 진정한 실상과 주인 자리가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실천 수행이다.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눈을 보지 못하듯이 마음을 찾는 내가 있고 찾는 대상이 따로 분리된 상태가 아니고, 주(主)와 객(客)이 분리되기 이전의 세계이다.

'정전백수자(庭前柏樹子)' 화두는 그 말이 나오기 전, 조주 스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닌 상태를 화두라고 한다. '뜰앞의 잣나무'라는 소리가 나오기 이전 조사스님의 그 뜻이 화두인 것이다. 마음의 눈을 뜨는 방법이 의정이고 의심이다. 화두는 그 뜻이 나와 벽이 허물어진 상태를 보여 준 것이니까, 내가 찾을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다. 찾으려 하는 자와 찾아야 할 대상을 둘로 나누면 그 의미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다.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것이 대체 무엇인고?

"생멸심(生滅心)이나 진여심(眞如心)은 두 개로 나눠지지 않는 모두 한 마음인 중도이지만 양자는 서로 별개처럼 작용한다. 그러나 생멸이면 진여가 아니고 진여이면 생멸이 없다"

'이 뭣고' 화두는 이런 회광반조를 발생시키는 발문이 된다. 본래 자기 성품인 고요함과 신령스런 앎인 공적영지(空寂靈智)를 한순간에 자각하도록 하게 한 것이다.

화두는 반조(返照)되어야 한다. 반조는 습기를 제거해 진여로서 영성을 체득하게 만든다. '이 뭣고' 할 때 '이' 하고 숨을 길게 내쉴 때 심안(心眼)으로 '이(是)'를 비추어 보는데, 이것이 회광반조이다.

망상(妄想)의 눈으로 보면 보는 것이 상(相)을 따라 좇아 가지만, 심안으로 관하게 되면 관 하는 사람은 사라져 버리고 진여불성(眞如佛性)만이 홀로 훤히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견성성불(見性成佛)인 것이다. 그러나 내안의 불성을 자각은 했지만 오랜 세월 익혀온 습기(習氣)를 단박에 없앨 수는 없기에, 깨달음에 의지해 수행을 꾸준히 하여 성스런 성태(聖胎)를 길러야 하는데 이것을 점수(漸修)라 한다. 이것을 보조국사는 회광반조로 설명한다.

〈기신론〉에 "생멸심(生滅心)이나 진여심(眞如心)은 두 개로 나눠지지 않는 모두 한 마음(一心)인 중도이지만 양자는 서로 별개처럼 작용한다. 그러나 생멸이면 진여가 아니고 진여이면 생멸이 없다"고 하였다.

우리들은 '이 뭣고'로 신령한 앎(반야지혜)를 증득하고, 생활속에서 바로 굴려쓰면 사업, 학업, 건강 등이 '해주십시오' 하고 빌지 않아도 자동적(自動的)으로 성취(成就)되는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오직 선택받은 스님께만 행운이 돌아갑니다... 지금 바로 예약 하십시오!!
법당의 구형 음향설비를 「300만원대」의
최고급 엠프 설비로 160만원에 보시!!
(제공 : 800W(USB)엠프+450W 스피커2개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사용중인 엠프 스피커는 회수함!)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법당 엠프설치비 가격표
• 기본〉 A형 : 93만원 (앰프, 스피커, 마이크2)
B형 : 127만원 (A형 + 무선헤드셋 1조)
C형 : 158만원 (B형 + CD 1대)
D형 : 185만원 (C형 + 믹서 + 케이스)
• 법당 표준형 : 225만원 (D형 + 무선 2인용)
• 최고급형 일절 : 325만원 (800W 믹싱포함 일절)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고급헤드셋 포함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 조절
가격 : 185,000원

신상품 삼신각(명부전,전용) 앰프 세트



전체 1세트(SET)
580,000원
(엠프〈USB용〉+스피커+마이크스탠드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초고성능 마이크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 : 175,000원(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일 주 문



KCRP 종교대화위원장에

정각 고양 원각사 주지 스님은 5월 30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종교간 대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불교청소년지도자 연수

심산 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 스님은 6월 22~24일 서울 법련사 강의실에서 '불교청소년지도자 기본과정 연수'를 실시한다.



동련 지도자 연수회

신공 사단법인 동련 이사장 스님은 6월 23~24일 충북 보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제64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제10회 마음모아 바자회

노숙령 불교여성개발원장은 6월 15~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나무갤러리서 제10회 마음모아 함께 바자를 개최한다.



제4기 불교포럼 임원 위촉

김동건 상임대표 등 2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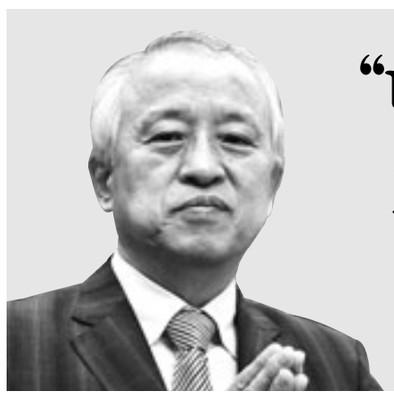
제4기 불교포럼 임원 25명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5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김동건 상임대표를 비롯한 제4기 불교포럼 임원을 위촉했다.〈사진〉

제4기 불교포럼 공동대표는 고영일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김상규 공무원불자연합회장,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박홍우 국제포교사회장,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이희구 (주)지오영그룹 회장, 이진호 동국대의료원장, 유민봉 국회의원이 맡는다. 감사로는 손수일 법무법인 로쿨 대표변호사와 이두형 前여신금융협회장이 참여한다.

또한 운영위원에는 문흥식 체육인불자연합회장,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 정연만 중앙신도회 부회장, 정구정 한국조세연구소장, 하복동 동국대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실무를 담당할 집행위원은 김봉석 k&j법률사무소 금상 변호사, 성기홍 6th Vital Sign Lab 회장, 소종섭 인포마스터 부사장, 박기련 동국대 법인사무처장, 조문배 학교법인 덕성학원 홍보실장, 임명배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상임감사, 한명우 동국대 일산병원 대외협력관, 허남결 동국대 비서실장이 맡는다. 한편 제4기 불교포럼 임기는 2020년 4월 30일까지다.

윤호섭 기자



"대중이 함께 호흡하는 재미있는 학술대회 계획"

Interview

김성철 제23대 한국불교학회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5월 25일 총회서 만장일치 선출

'한국불교 내실화·세계화' 목표

신행지침·불학심포지엄 등 추진

"앞으로 2년 동안 한국불교학회의 뒷바라지에 앞장설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임기종료일까지 불교학과 한국불교학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욕심이 있다면 승가와 재가를 포함해 한국불교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한국불교학회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보고 싶습니다."

5월 25일 열린 한국불교학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23대 학회장에 선출된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사진〉는 취임 소감과 각오를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학회장 업무에 들어간 김성철 회장은 후보 정책소견에서 밝힌 대로 '한국불교의 내실화,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김 회장은 학회의 본분인 학문 연구와 학문 대중화를 위한 계획을 모색 중이다.

"회원들의 연구 성과는 논문집을 통해 드러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불교학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 〈한국불교학〉에 양질의 논문들이 실리도록 뒷바라지하는 일입니다. 한국불교학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학술대회와 워크숍은 많은 청중이 참여하는 만큼 이들이 동참하고 함께 토론하는 재미있는 학술행사가 돼야 합니다. 〈한국불교학〉 논문집에는 소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논문을 주로 싣겠지만, 학술행사의 경우는 다수가 공감하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발제하고,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려고 합니다."

신행 현대화와 대중화를 위한 전문 연구와 이를 통한 신행 지침서 제작도 김 회장이 생각하는 중요한 사업들이다. 이는 자신이 주장했던 '체계불학(Systematic Buddhology)'의 과제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체계불학은 '불자들의 신앙과 수행지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불교학'입니다. 불교신행을 현대화하는 것 역시 일종의 체계불학적인 과제입니다. 불교신행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육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여 불교 입문에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불자들이 일상생활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불자 신행 지침서'를 제작해야 합니다. 워크숍에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모색'이라는 주제로 난상토론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하는데, 그 때 그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제안도 내놨다. 김 회장은 범불교적 차원의 '불교학 결집대회 경주 비엔날레'를 제언했다. 또한 신진학장들을 양성하기 위해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해 열고 있는 '신진학자들이 연구한 우리 시대의 불교학' 주제의 워크숍을 지속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 회장은 서울대 치의학 석사까지 받았지만, 불교학에 뜻을 두고 전향한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이후 중관학으로 동국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저서 7권과 81편의 논문을 쓰면서 왕성한 학술활동을 전개했으며,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1996년 가산학술상, 2004년 불이상, 2012년 청송학술상, 2014년 올해의불서10 우수상을 수상했다.

20년간 달랜 전쟁희생자들의 넋

대원불교조계종, 제20회 태평양전쟁 희생자 추모식



1940년대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벌어진 태평양전쟁서 희생된 선조들의 영가들을 추모하는 법석이 열렸다.

사단법인 대원불교조계종은 5월 28일 총본산 양산 불광사에서 '제20회 태평양전쟁 희생자 추모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서 대원불교조계종은 당시 희생된 한국인 희생자 2만1709위를 모시고 추모대재를 거행했다.〈사진〉

행사에는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정산당 청봉 대종사, 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대강로, 한국고승협의회 前촌정 가산 대장로, 세계불교법륜종 법광 대장로,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종정 혜륜 대선사, 용화교단 종정 청강 대선사, 대한불교화엄종 종정 엄산 지엄 대선사, 대원불교조계종 종회의장 원명 대종사 및 문중 스님, 봉행위원장인 총무원장 혜오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추모식은 대원불교조계종이 주최하고, 태평양전쟁 희생자추모회와 청봉문도회가 주관했다.

행사에서는 종회의장 원명 스님의 고불문에 이어 총무원장 혜오 스님이 환영사를 했다. 혜오 스님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의 만행으로 끌려가 미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희생된 젊은이들의 고귀한 넋을 기리고자 추모식을 준비했다. 선조들이 바친 몸과 넋이 밀알이 돼 세계 속에서 빛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극락왕생 하시어 부처님 원력으로 정토세계에서 부처가 돼 해탈열반을 성취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춘계 야외학습·구도법회

한국불교법사대학, 재학생 대상으로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학장 지일)은 5월 27일 경북 구미 소재 죽장사에서 춘계 야외학습과 구도법회 행사를 개최했다.

대학원 각 과정에 재학 중인 법우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행사는 대방광 불화엄경 약찬게 야외학습 강좌와 구도법회, 국보 제130호 구미 죽장리 오층석탑 문화탐방으로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한부모 청소년에 희망을"

(사)깨달음과나눔, 제5회 정오장학금



사단법인 깨달음과나눔(이사장 이매옥)은 5월 26일 서울 송파구민회관에서 제5회 정오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중학생 25명과 고등학생 25명, 한부모 검정고시 합격자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2016년 3월 시작된 정오장학금은 현재까지 171명에게 총 661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윤호섭 기자

외국인근로자 어울림마당

좋은이웃, 완주산업단지서 개최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불자모임 '좋은이웃(대표 정용기)'은 5월 27일 완주산업단지 현대자동차 인화관에서 '외국인근로자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스리랑카, 캄보디아, 미얀마 등 17개국 근로자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통문화 체험과 장기자랑 등이 진행돼 고국을 향한 외국인근로자들의 향수를 달랬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광고게재·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	연 락 처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부 산 지 사	이 도 경	051)405-9402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0-8642-7733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울산BBS, 행복한 마음나눔 자리 연다

6월 14일, 개국 10주년 기념 '토크쇼' 개최

조선경기 불황 등 계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시민의 아픔을 치유할 힐링 토크쇼가 마련된다.

BBS울산불교방송(사장 이진용)은 개국 10주년 기념 '행복한 마음나눔 토크쇼'를 6월 14일 오후 2시 30분 울산 남구 달동에 위치한 KBS 공개홀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1부 '법륜스님의 즉문즉설'과 2부 기념식 및 축하공연으로 진행된다. 1부 토크쇼는 국민멘토로 활동 중인 법륜 스님이 나선다. 법륜 스님은 정토회 지도법사로 전국에서 즉문즉설 법석을 열어 대중에게 힐링을 선사하고 있다. 법륜 스님은 조선업 실직자와 청년 실업자 등 경기침체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울산시민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며, 열린 토크쇼를 진행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예정이다.

2부 개국 10주년 기념식은 울산불교방송의 10년을 돌아보는 영상 상영과 공로패 증정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울산BBS 운영위원장인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 등 내빈들의 격려사 및 축사로 개국 10주년을 축하한다.

축하공연에서는 정수라, 주병선, 김희진, 조은새 등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와 울산불교방송 합창단과 울산불교방송남성중창단의 개국 10주년 축하 음성공양이 펼쳐진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전북 청소년 끼 뽐낸 모악축제

전북파라미타, 백일장 · 사생대회 · 음악페스티벌

전북지역 불자 청소년들이 자신의 개성과 숨겨진 기량을 뽐내는 '제22회 청소년 모악축제'가 5월 26일 전북 김제 금산사 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사)전북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총재 성우, 금산사 주지)는 전북도내 300여 명의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운문, 산문, 한국화, 서양화 분야로 나눠 백일장과 사생대회, 청소년 음악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사진〉

올해로 21번째 맞이한 청소년 모악축제는 자연과 인간의 친화적 요소를 제공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금산사 대장전에서는 108배 참선이 진행됐으며 보제루에서는 △다도 체험 △단주 만들기 △연꽃등 만들기 △수묵화 그리기 △목탁



배우기 △사경 및 사불 △페이스 페인팅 등의 다양한 체험부스가 열려 청소년들에게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청소년 음악페스티벌에서는 중등부 상관중학교 '신스'팀, 고등부 전북기계공고 '천신'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백일장과 사생대회 입상자 등은 차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시청 불자모임 '연우회' 재창립

전주시청 공무원 불자들의 모임인 연우회(회장 김상용)가 재창립됐다.

전주시청 연우회는 5월 30일 전북불교회관 4층 큰법당에서 창립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불교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통한 신행생활을 할 것을 다짐했다. 법회에는 금산사 혜일 스님을 비롯해 정혜사 법성 스님, 백준기 담마선우회장, 최동수 완산경불회장 등 내빈과 전주시청 연우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재창립된 전주시청 연우회는 2005년 전주시청 불자들이 창립한 '전불회'가 승진, 퇴직, 전근 등으로 유명무실해진 지 10년 만에 '전주시청 연우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난 2월 41명의 회원으로 전주시청 동호회로 등록했다.

김상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라며 "좋은 인연으로 만난 시청 불자들이 다른 단체 회원들과 소통해 어려운 곳을 보살피는 자비를 실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붓다의 날' 다짐한 붓다의 삶

한국테라와다불교, 울산서 웨사카 축제 열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오른쪽 어깨에 발우를 걸쳐 메고, 남방불교 복식을 갖춘 스님들이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겼다. 재가자들은 손에 밥과 국 그리고 선물을 담아 공양을 올리기 위해 한 줄로 섰다. 곧이어 재가자들은 합장하며 스님의 발우에 정성을 담아 공양물을 넣었다. 서울, 부산 그리고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불자들은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스님들에게 감로법문을 펼쳐 행복의 길을 보여주길 청했다.

사단법인 한국테라와다불교(이사장 진용)는 5월 27일 울산 붓다의길따라 선원에서 웨사카(Vesākha) 축제라고 불리는 붓다데이 법회를 봉행했다. 웨사카 축제는 테라와다 근본불교 수행국가인 미얀마와 스리랑카 등에서 부처님의 탄생과 성도 그리고 열반을 웨사카 달 음력 보름에 함께 기념하는 행사다. 웨사카 축제는 부처님 당시 인도력의 둘째 달인 위사카(Visākha)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으며, 현재 음력 4월 15일에 진행되고 있다.

이사장 진용 스님은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붓다의 날이 한 해를 통틀어 최고의 축제일"이라며 "부처님의 탄생과 성도 그리고 열반은 최종적인 목표, 윤회를 끝내기 위한 것으로 가장 성스러운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웨사카 축제일은 붓다의 가르침을 다시 진심으로 회상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회에서 불자들은 팔리어로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고 삼보의 의미를 회상하는 게송을 독송했다. 이어 필수독송 〈자애경〉을 함께 합송 후 △붓다의 날 게송 △촛불과 향, 꽃, 청정수 공양 게송 △청법 게송 및 8계를 청하는 8계문을 독송했다.

탄생 · 성도 · 열반 함께 기념
정성으로 탁발 공양 올려
진신사리 친견 자리 '환희'
해탈 의미 되새기는 기회로

불자들은 붓다의 날을 맞아 하루 동안 8계를 지키고 정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진용 스님의 법문에 집중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덕을 회향하는 게송으로 법회를 회향했다.

진용 스님은 "부처님의 위대한 사건, 탄생과 성도 그리고 열반은 궁극적 목표인 해탈을 위해 있다. 웨사카 축제를 하는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해탈을 목표로 삼고 정진 수행하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님은 일체 생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이다. 이런 부처님의 제자로 지도 받고 있는 것이다. 붓다의 날을 맞아 부처님께 존경의 마음으로 예불 드리자"고 법문했다.

법회 후 불자들이 부처님 진신사리를 비롯해 아난다, 사리붓다, 목갈라나 등 제자들의 사리를 친견하는 자리도 열렸다. 사리는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불교학과 교수가 보시한 것으로, 미얀마에서 정 교수와 그의 아버지가 함께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한 재가불자들은 부처님의 뜻을 따라 정진을 다짐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도반들을 만나니 환희심이 생긴다고 입을 모았다.



5월 27일 울산 붓다의길따라 선원에서 열린 웨사카 축제. 스님들이 발우를 들고 탁발하며 재가불자들에게 공양물을 받고 있다.

정대화(71 · 부산 동래구) 붓다의길따라 운영회장은 "그동안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등을 달았는데 이번에는 부처님만을 생각하며 승가에 공양을 올리고 정진을 다짐했다"며 "바른 수행을 다짐하고 오로지 나눔으로 진행한 행사라 더욱 자유롭고 순수한 마음이어서 기쁨이 가득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제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테라와다 수행자들이 참석했다. 정법에 대한 목마름이 이룬 결과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테라와다불교는 수행도량 담마와나(담마의 숲) 선원 개원을 알리는 법회를 6월 16일 오전 10시 담마와나 선원 법당에서 봉행한다. 개원 법회 법문은 이사장 진용 스님이 맡는다.

"장자 역할한 조방원 업적에 감사"

곡성 성륜사, 조방원 공덕비 제막

호남의 대표적 선지식이었던 청화 스님이 주석한 성륜사의 창건을 이끈 아산 조방원(1926~2014) 선생의 공덕비가 제막됐다.

곡성 성륜사(주지 명원)는 청화 스님과의 일대사 인연으로 토지와 고택 등을 기부하며 성륜사 창건을 견인한 조방원 선생의 공덕비 제막식을 5월 25일 경내 육화당 앞마당에서 열었다.

조방원 선생은 마지막 남종화의 대가를 이룬 인물이다. 그는 평생 모은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성륜사에 땅 11만 평과 100여 년 된 고택 3채를 기증해 사찰창건에 공헌했다. 또한 성륜사 인근 옥관미술관에 1만여 점의 유물과 작품을 공공의 재산으로 기탁했다. 특히 기증된 고택 중 육화당, 안심당은 최근 유형문화재로 등록되기도 했다.



곡성 성륜사에 마련된 조방원 선생 공덕비. 제막식에서 사부대중이 함께 제막하고 있다.

조방원 선생 추모 4주기를 맞아 열린 제막식에는 문도대표인 용타 스님, 도일 스님,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을 비롯해 조방원 선생 유가족과 문하생 등 1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해 선생의 업적을 기렸다. 이날 제막한 공덕비는 조형작가 윤선종 씨의 조각에 정진백 작가의 글과 학정 이돈흥 선생의 글씨가 더해진 작품이다.

벽산문도회 문장 용타 스님은 "두 분은 나이를 뛰어 넘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로 조방원 선생께서 청화 스님을 깍듯이 모셨다. 그런 깊은 인연으로 스님들의 수행도량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준 조방원 선생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진불 재능 펼치는 혜원문화축제 열린다

6월 9일, 백일장 및 음악회

지역민과 소통하는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

부산 혜원정사(회주 원허)는 6월 9일 경내에서 혜원문화축제를 개최한다. 혜원문화축제는 어린이들의 끼와 재능을 펼치는 제21회 혜원백일장과 제17회 혜원음악회로 구성된다.

혜원백일장은 행사 당일 오전 9시에 열리며 전국 초 · 중 · 고등학생 모두 참여 가능하다. 사전 접수는 홈페이지(www.bokhyewon.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후 팩스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6월 8일까지.

혜원음악회는 오후 6시 경내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가수 양하영, 리아킴, 남상일, 김종환 등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다. (051)868-0138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종무원
원융불교대학 7기 학인 수시모집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 모집

· 교육과정 | 초. 중. 고급반
조석예불, 종성,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다림(목탁, 요령), 요잡, 천도의식, 49재, 관음시식
· 학 장 | 종무원장 도안스님
· 강 주 | 상진스님
· 강 사 | 법진스님
· 개강일시 | 2018년 6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0번길 8 (한국불교태고종충북교구종무원연수원)
· 모집학과 | 불교의식 (범패)학과, 기초 불교 교리
· 강의시간 | 초. 중. 고급반 (추후공지)
※ 상기수업시간과 요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반명함사진 1매, 입학원서(불교소정양식) 1부
(태고종승려는 승적증명서 1통, 수계증 사본)
· 접수시간 | 수시모집
· 접 수 처 | 충북교구종무원(043-265-7100) / 교학처장 도성스님(010-7738-0966)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보살, 재가불자, 일반인 염불의식에 관심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가능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귀의 하옵고, 불제자로서 수행과 전법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임 | 원

대 승 정 : 성광당 경보 대종사
원로원장 : 무명당 월곡 종회의장 : 대진당 혜월 승가원장 : 고암당 정인

▶각교구원장◀

서울교구 : 법룡 부산교구 : 무비 대구교구 : 지광 인천교구 : 혜초 대전교구 : 정수
창원교구 : 정우 경기교구 : 연봉 충북교구 : 심공 충남교구 : 능원 전북교구 : 진원
경북1교구 : 서암 경북2교구 : 대현 경남교구 : 혜묵

■ 문의 : 입종문의 안내(입종 구비서류 및 발급 증명서)
☎ 053)654-0408. 010-5051-34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현충로 5길 99 원광사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남 · 녀 행자 수시 모집 합니다

※ 본 종단은 문광부 허가 제2010호-4호
※ 법인등록 274321-0029935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사)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승가원 승가원장 고암 정인 합장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s.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전생에 관한 일들을 말하지 말라 그러한 말들은 이치에 도움도 되지 않고 법에 보탬도 되지 않으며, 지혜로운 일도 아니고 바른 깨달음도 아니어서 아무런 이익도 없느니라.

– 잡아함경 –



관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불광(佛光)에너지 체험

관세음보살 · 약왕보살
가피받는 비법전수,
건강회복, 운명(팔자)바뀜

블로그에서 묘진사 검색

053-652-2714
010-9616-2477
묘진사 (대구 내당동 소재)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용품 고가매입 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의통성취 회향

(무료 보시)

- 추운 곳 기도 수행 스님
- 체질적으로 추위 타는 스님

010-3044-2559
※난치성 질환 상담해 드립니다
화정 합장
※ 면역력 상승을 위한 효소를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명예박사학위취득 필요한분상담환영

(미국령, 대학교)
1.정치외교학 2.경제학
3.문화예술학 4.철합,문학
5.종교학 6.체육학
7.대체의학
상담:070-8844-2030

비구,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010-3871-1547

절에서 일 할 청소, 심부름 할 처사 구함

절에서 공부 할 행자 구함
010-3840-4355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도깨비를 내 맘대로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
  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3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七星 철학 命理 學堂

※실천통변술 해법(命理學神通術)
※실 천 반 모 집(1:1 맞춤 직강)

∵ 칠성사 부설 칠성문화원
경기도 시흥시 뱀내장터로 21(신천역)
☎ 031-315-4684
010-8427-6199

한국 민간 요법 연구소

전립선 도움 | **비염 치료**

내성이나 향체가 강하면 연고 2개를 쓰시고, 약하신 분은 1개를 쓰세요.
25일 사용
70 ~ 80% 치료 효과
한달 분 가격 55만원 **가격 40만원**

010-9523-3338
농협 421019-58-009257 (이광주)
※ 37년간 연구 했음

청동 불상 조성 하실분 안내

(기존 대웅전에서 조성)

- 청동불 : 석가모니불1, 관세음보살 2
- 범종사 제작종 : 60관(225kg) • 후불탱화 : 1
- 기타 관세음보살상 외 1

※ 기존 대웅전에서 모시던 조성청동불을 인연되시는 분에게 저렴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문의 : 010-7244-6116

대한불교조계종 영락사

요양하실 분 / 기도 하실 분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033) 435-9556
010-7137-5924 / 010-4717-1960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FAQ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 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맛이 삼나 효모 밥죽 순 콩단백 족 콩고기

국내기술로 만든 콩단백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1,0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5,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영양성분표 : 수분 10%이하, 탄수화물 28%내외 단백질 60%이상 지방 3% 이하, 총열량 360Kcal 이하
특 수 성 분 : 폴리페놀 2,793mg/kg, 사포닌 1,807 mg/kg, 베타글루칸 1,233 mg/kg



효모 밥죽 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12만원
- 깨끗한 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샘나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인천산업유통센타 37동 201호 ㈜샘나
농협 301-0222-8806-71 /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샘나]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이메일 jabi2018@naver.com | 02) 2004-8213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와서 바로 이세상을 보라. 왕의 치장한 수레와 같다. 어리석은 자는 거기에 빠져들지만, 현명한 자는, 집착하지 않는다.

– 법구경 –



포항시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법당. 요사채. 삼성각. 토지 7.200㎡
- 뒷편산 사찰. 위치 좋고 기도도량. 교통 편리함
- 양도 : 13억원 (위치 알려드리지 않음)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 127-15호)

청도 사찰(급)안내
- 산중 기도 사찰
- 목조법당. 요사채 .목조삼성각.
- 지대 조금 높음.물이 보이고 경관 좋음
- 신도 관리와 기도 수행하기 좋음
- 양도가액 : 17억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구입의사 있으신 스님만 모심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정릉유원지 근처
- 대지 : 734평(국유지)
  인법당 10평 정도
- 방8개, 화상실 3개 시설완벽
  주차 : 마당에 10대 가능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

010-3700-1893
02)911-924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수도권
◎ 대지 : 140평
◎ 법당 : 40평
◎ 요사 : 30평.40평
◎ 양도가 : 12억 3천
◎ 위치 : 서울북한산,
◎ 부지 : 100평사용,
◎ 인법당 : 약 60평,
◎ 산속,무허가건물
◎ 양도가 : 5천 5백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서동에 있는 작은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위치
- 오르막 없는 평지 주차 넉넉함
- 하천부지 약100평(산신각포함)
- 양도 또는 전월세도 가능

010-7121-3030
010-3574-3303

도심 속의 땅 넓은 사찰 (50년생)
- 위치 : 부산시 신평동
- 총부지 :4800평
  ※ 일부 주거지(800평)
- 건물 : 법당 및 산신각, 요사채(60평)
- 조망권 : 바다와 노송이 우거진 멋진 전망
- 양도가 : 평당 20만원

010-3560-852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동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 법당 50평, 방 3개, 공양실, 화장실 2개
- 보증금 1,500만원,월70만원 보증금 3,5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3884-0122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동대동 천변
- 신축 건물 2층 40여평 트인 전망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

010-5438-01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관이 수려한 고찰로써 수행하기 좋은곳
- 대지 1,80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황토) 창고
- 주차시설 아주 좋음
- 확인 후 절충가능

주지직 010-7918-7328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삼장면 소재
- 600평 건물 6동
- 법당 53평 그 외 용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전화 상담

010-8957-8089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소재
- 부지 : 6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2층,청기와,단청)
- 요사채 : 35평(1층)
- 기타 : 일주문,산신각등
- 가액 : 3억2천만원
- 특징 : 신도구성이 잘되어있는 도심번화가의 포교도량입니다.
- 위치 : 경주시 천북면소재
- 부지 : 약 100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목조,3포7포,단청)
- 요사채 : 60평(목조,황토)
- 산신각 : 10평(목조,맞집,단청)
- 기타 : 석탑,석등
- 가액 : 10억5천만원
- 특징 : 도심인근의 대가람의사찰로 포교와 기도도량으로참 좋습니다.

전국소재 사찰, 절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010-4942-0455

사찰상가주택(급)안내
- 대지 : 210.5㎡ / 건물 : 500㎡ (실제 조금 더 큼)
- 1층 : 찻집(30평)
- 2 ~ 3층 : 총 6가구 입주
- 4층 : 요사채(40평) /
- 5층 : 법당(30평)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위치
- 총금액 : 6억 8000만원

010-6656-8117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진주시 중앙시장 앞
- 2층 70평 정도
- 각단 탱화 및 삼존불 시설 완벽, 즉시 법회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약간있음

010-6208-5555
055)747-98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 전원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총대지 300평
- 정자(3×5m) 원목
- 진주20분 도로 잘되어 있음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 벽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문의처 010-2607-7114

별장같은 토굴
- 위치: 김해 선암다리에서 5분거리
- 새 인연을 찾습니다
- 창건 20년 모든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뒤에는 산, 앞에는 1,500세대 아파트
- 대지 : 270평
- 가액 : 평당 300만원 (은행 2억천 안고) 6억

010-9906-36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3억

010-5421-1536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로
- 2층 : 33평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준비 할것 없음
- 가액 : 전세 3,000만원,월 20만원 시설비 : 2,500만원
- 22년 포교중 ※불사관계로 (급)

052-287-8526
010-7572-8526

토 지 안 내
- 위치: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563
- 864평, 평당 170만, 2차선 인접
- 주택 복지사업, 종교시설 가능함
- 연락처는 문자로 남겨주세요

010-3540-7739

사찰(급)안내
- 위치: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1,500평 남짓
- 법당, 목조 20평, 관음전, 종각, 차실, 요사채, 공양간
- 모두 방 10칸, 외부, 부속사 등등 대형주차장 등
- 가액 : 모두 2억 9,500만원 (대출 7,500만원 승계도 가능)

010-4628-5699
(부득이한 사정)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 뉴타운지역
- 4층건물의 4층 70평, 옥상사용
- 법당 40평, 욕실 갖춘 방2개 원목 불단, 리프트 설치
- 주차장 및 내부시설 최상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30만원 시설비는 협의 후 결정

010-9805-0345

도심속 작은사찰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 주택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법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대출 7천5백만원안고 1억2천만원)

010-7188-7723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가액 : 7억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 (불상,불화등 기타)
-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 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010-8716-2399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대로변
- 4층 건물 4층 약 80평 (엘리베이터)
- 시설 : A급(시설비 약 1억 소요)
- 구조: 법당, 방사1, 상담실, 주방, 화장실
- 가액: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는 방문후에 상호 결정

010-2270-6611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손맛이길 107
- 사찰건물 : 법당, 방2, 주방, 다용도실, 독채등기필
- 대지 : 도지료1년 35만원
- 넓은 마당 및 텃밭200평 사용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소유임)
- 가액 : 4천 5백만원

010-8525-195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약 25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공양간 : 약 35평
- 요사채슬라브 공양간 판넬 – 대지 총면적 : 약 430평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4억 5천만원(약간의 절충가능)

연락처 0505-308-2111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절 터 안 내
- 위치: 경북 예천군 효자면 영봉리 86번지 외 3필지
- 전체대지 : 860평
- 가액 : 1억 2천만원

※산세수려 1급수 맑은물

010-3540-019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중구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입구
- 포교하기 최상 장소
- 평수 : 약 80평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세50만원
- 시설비: 협의 결정

※ 불사관계로 급
010-4766-320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봉양읍
- 법당, 거실, 주방, 방
- 심야전기 보일러
- 가액 : 3천만원

010-5258-1570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역5번출구에서 5분거리
- 평수 : 2층 상가건물 약30평
- 교통 위치 좋음
- 보증금 1000만원,월50만원 시설비일체 1000만원 (가격절충)

010-8887-989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 465평, 현대식 건물 2동 1층 요사 30평, 14평 2층 30평 법당
- 가액 : 3억 9천만원

011-503-0517

사찰터 기도원안내
- 위치 : 경산 용성면 용천리
- 임야 : 12,000평
- 수목 : 소나무 참나무 진달래 약초, 고사리 참옻나무
- 작은 연못도 있으며 산정상으로 등산로 탐방길 되어 있습니다
- 가액 : 2억 2천

010-4953-172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하단 오거리(최요지) 뒤에는 산(숲속), 앞에는 빌딩 등산로 입구(하단오거리 도보 5분거리)
- 평수 : 74평(허가득) 30평 사용, 총 114평
- 법당 : 30평(방1), 창고1, 화장실 2개 요사채 : 30평(방2),다용도실1,샤워실1,창고1, 오래된 절(몸만 오시면 즉시법회)상업중
- 가액 : 3억 3천만원(불사관계로)

010-6565-2042

한 옥 안 내
- 위치 : 지리산 산청 단성 IC에서 5분거리 지방도 2차선접 토지 1,700평, 한옥 50평
- 정원수 백여종 다량, 식용가능 야생초 다량 식재
- 용도 : 사찰, 영수원, 동호인주택, 펜션, 찻집 음식점 가능
- 주변도시 진주시내와 20분거리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5분거리
- 가액 : 13억

010-5923-33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8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사찰(포교원)급안내
- 장소 : 부산 사하구 괴정동
- 대지 : 38평 (공시가 6천)
- 건평 : 40평 (2층 구조) (강철H빔 판넬 건축비 : 1억 5천)
- 1층 : 공양간, 친견실, 화장실2개 창고 및 다용도실 (꼭 하실분만!)
- 법당 : 2층 20평 (4자 비로자나동불)
- 총 소요 금액 : 2억 7천 이상
- 급 양도가 1억 5천/전세 : 8천

051)206-3488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 시장 옆 4층 건물 2층
- 35평, 방2
- 보증금 1천만원, 월55만원
- 완벽한 시설 즉시법회 가능

010-2049-9865

친환경
삼베타올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삼베샤워타올 (건포 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자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 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남부시장 옆
- 평수 : 40평
- 법당,공양간,요사완비
- 가액:보증금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3500만원
- 최고시설 몸만오시면 됨

※시장주변 상가밀집지역으로 명리 공부하신 비구니스님 수행적합도량※

010-4709-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 근교
- 임야 4천평, 대지 약1천평 법당 35평, 요사 60평
- 1천 3백년 고목 있고, 산세수려, 교통 편리 지하약수 천혜의 명당지리
- 가액 : 12억

010-4547-4990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새절역 3거리
- 평수 : 38평에 법당 30평 3층에 3층 방 2개, 화장실
- 보증금 천만원에 월90만원
- 시설비 및 설치비는 답사 후 절충가능 문의전화

010-7107-616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서동 부산은행 맞은편 농협 앞
- 4층상가 3층 건물 약 45평
- 삼존불, 칠성, 산신 등
- 보증금 :1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3590-57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요지)
- 부지 : 280평 삼존불, 각단탱화, 법당
- 스님방, 공양주방, 다용도방, 창고1,실내화장실2,실외화장실2
- 집기일체,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대출1억 안고 2억

010-8643-5235
010-7475-0474

전원주택안내 (암자가능)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연상리
- 대지 191평, 전176평
- 건물, 주택, 30평, 황토방 5평, 창고 8평
- 태양광,멋진정원,마당주차
- 넓은 텃밭,각종유실수 가득
- 가액 : 3억 7천만원

011-882-2897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만덕동
- 2층 80평 방 5개, 주방
- 삼존불 및 33관음보살 원불
- 보증금 1,500만/월100만원
- 시설비: 3,200만원,
- 시설 완벽 새 법당 주차장 대형주차장 완비
- 큰정 소임관계로 급양도

010-5638-5959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입구17년째 운영
- 평수 : 40평, 3층 옥상사용 사무실, 스님방
- 법당,삼존불 시설 원만.몸만 오시면 됨
- 전세 1000만원,월40만원 에어컨 완비
- 시설비 1000만원 절충가능

010-7536-258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가흥2동 8통 1반 472번지
- 큰방1개. 거실1개. 법당1개 산신각
- 1년 월세200만원 (이백만원)

010-9370-7513

전망좋은암자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 삼존불, 각단탱화
- 스님방사
- 산신각
- 가액 : 1억

010-8643-5235
010-7475-0474

“Me too” 외치고 나선 캐나다 불교계

“피해자 편에서 가해자 조사할 것”

박영빈 객원기자



캐나다 불교계가 미투 운동에 나섰다. 사진출처=CBC



샴발라 홀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있는 불교도들의 모습. 사진출처=샴발라 런던

성범죄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MeToo, 나도 당했다)의 열기에 캐나다 불교계도 자정활동에 나섰다.

캐나다의 ‘CBC 뉴스’는 5월 24일 북미 최대 불교단체중 하나인 ‘샴발라 불교(Shambhala Buddhism)’가 단체 내에서 일어난 성적 비행 혐의에 대한 처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샴발라 불교 캐나다 위원회의 의장 죠슈아 실버스타인은 지난 6년간 최소 12건의 성추행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실버스타인 위원장은 “핼리팩스(Halifax)에 소재한 캐나다 본원에서 조사한 결과, 그간에 성적인 비행들이 있었다고 밝혀졌다”고 전했다. 단 이중 한 건은 아직 혐의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서 “캐나다의 샴발라 불교 회원은 약 14,000명이며 이중 지도자로 활동하는 이들은 약 3,200명이다. 가해자들은 모두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지도자로 활동하는 회원의 다수는 교사로 밝혀졌지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성추행이 있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북미 최대 불교단체 나서
불교계 성추행 자정 목적
지난 6년간 12건 성추행
전문가 구성 대책반 꾸려
성적 접촉 대해 강령 발표

실버스타인 위원장은 “샴발라 불교는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겠다”고 다짐하며,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성추행 혐의자들로부터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위원회 조사결과, 가해자들이 사건에 대한 폭로나 불만을 나타낸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로 사건을 은폐하려한 사실이 포착됐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지난 2월, 위원회는 지역사회 전체에 샴발라 불교 명의의 서한을 통해 “성추행 및 부적절한 관계의 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반드시 나아갈 것”이라고 공표했다. 3월에는 전문가들과 피해자들로 구성된 성추행 · 성희롱 대책반을 구성했다.

실버스타인 위원장은 “일련의 계획을 세워 조사한 결과가 이번에 발표된 것이다. 수십 년 전의 혐의와 사건일지라도 제 3자 기관에 의해 조사될 것”이라고 말하며 “누군가를 침묵시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의지를 다졌다.

위원회는 오는 10월 조직 내 성적 접촉에 대한 새로운 강령을 발표할 예정이며, 최근의 변화를 통해 피해자들이 그간에 침묵했던 이야기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샴발라 불교는 1972년 티베트 출신의 불교지도자 최 촁파(Chögyam Trungpa)가 설립한 불교단체로, 미국과 캐나다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클릭! 템플스테이 예약 완료!

日 데라하쿠, 6월 15일부터 온라인서비스 제공





데라하쿠 공식 웹사이트에서 소개되는 사진들.

100여 사찰 등록 돼 ‘눈길’
관광객 숙박문제 해결 위한
일본 ‘민박법’ 시행 여파로
모바일이나 인터넷 통해서
간편하게 예약 할 수 있어

이제 일본서 템플스테이를 예약하는 일이 일반 숙소를 예약하는 것만큼 쉬워진다.

‘인콰이러통신’은 5월 27일 일본 템플스테이 예약이 쉽고 간편해졌다고 보도했다. 일본 회사 데라하쿠(Terahaku)는 6월 15일부터 일본 사찰 온라인에서 검색 · 예약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라 뉴스24’는 이가 일본서 5월 15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주택숙박사업법(住宅宿泊事業法, 이하 민박법)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박법은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숙박문제 해결과 무허가 민박을 줄이기 위해 민박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 법으로 사찰들이 마치 일반 숙소처럼 관광객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전통적 사찰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이점까지 더해져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과거 템플스테이의 복잡한 신청 절차가 이번 계기로 간소화돼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데라하쿠는 관광객들이 일본 전통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사경이나 명상등의 활동도 가능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데라하쿠 웹사이트는 현재 일본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점차 외국인 고객을 수용하기 위해 세계적 숙박공유사이트 ‘에어비앤비’와 제휴할 예정이다.

‘인콰이러통신’은 이런 현상이 사찰의 부흥과 더불어 사찰 근처의 농촌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데라하쿠는 100여 개의 사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서 가장 큰 호수인 비와코 근처에 있는 온죠지 사찰도 포함돼 있다. 미이데라 사찰로 더 잘 알려진 온죠지는 일본서 4번째로 큰 사찰이기도 해 눈길을 모은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300년 만에 재건된 법당, 새롭게 장엄하다

日 나라 코후쿠지 중금당(中金堂)

소실과 재건을 8번 반복한 일본의 법당이 300년 만에 다시 섰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5월 26일 나라에 소재한 코후쿠지의 중금당 점안법회 모습을 보도했다.

코후쿠지는 669년 창건된 법상종의 대본산으로 전성기에는 2만 1천석의 쌀을 거둘 정도였다. 그러나 전국시대의 병화와 거듭되는 화재로 많은 전각을 소실과 재건을 반복했다. 절의 중심이었던 중금당은 1717년의 대화재로 전소, 300년간 재건되지 못했다.

지난 2010년 코후쿠지는 창건 1,300주년을 맞아 중금당 재건을 발원, 오는 10월 완공과 낙성법회를 기다리고 있다. 낙성법회에 앞서 300년 넘게 임시 금당에 모셔오던 석가모니 불상과 협시보살, 사천왕상등을 이운하여 모셨다. 또 역사기록으로만 남아있던 법상주(法相柱)를 함께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법상주는 “법상종의 고승들을 중금당의 기둥에 그려 장엄한 것이다”라는 기록만 남아있다. 코후쿠지는 절의 보물인 법상만다라를 참고해 도안을 작성, 인도 · 중국 · 일본의 고승 14명을 선별했다.



점안의식중인 스님.



중금당 모형과 법상주에 그려진 조사들. 사진출처=닛케이 신문

중금당 내부 14개의 기둥 중에 단 한 기둥만을 옻칠을 하여 굳히고, 그 위에 여러 겹 일본종이를 배접했다. 그림을 그린 일본화가 하타나카 쥰코(71)씨는 “전통 안료만을 사용해 세필로 수없이 덧칠해서 질감을 살렸다, 앞으로 천년은 보존될 그림을 생각하고 그려냈다”고 전했다. 특히 배경을 선명한 군청색으로 칠해 붉은 칠이 된 중금당 내부에서 한눈에 주목을 받는 게 특징이다.

이날 점안식은 코후쿠지 관수(貫首) 타가와 ᄀᆞ이(71) 스님을 법주로 관계자 25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스님은 “잘 회향되어 만감이 교차한다. 붉은 기둥들 가운데 단 하나의 푸른 법상주를 많은 분들이 친견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중금당은 오는 10월에 공사가 최종 완료되고, 20일부터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윗 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기미, 손발톱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물린 후, 머리염색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 인등표 출력 | 위패 출력
문자발송 | 기부금 영수증 | 사주 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마인드풀니스
조셉 골드스타인

〈4〉 법에 대한 마음챙김
– 성스러운 여덟 가지 길 ①

八正道에 담긴 지혜와 도덕 요소들



세간적 안락함(바른 견해)

8정도의 제일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른 견해 또는 바른 이해이다. 때로는 우리가 '바른 견해' 라는 용어를 들을 때, 그것을 우리가 동의하거나 반대해야 하는 교조적인 도그마와 연관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붓다가 열거한 바른 견해는 처음 세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바르다' 로 보면 그 의미가 보다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세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바로 그런 견해이다. 붓다의 가르침은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붓다의 초대는 항상 '와서 보라' 고 한다. 즉 붓다의 가르침이 실재와 잘 맞고 우리의 행복과 안녕으로 이끄는지를 스스로 탐구하고 조사하라는 것이다.

바른 견해는 수행의 길에서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방향을 정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여정이 아무리 힘들고 길다 하여도,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면 확실하게 그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우리가 바른 방향을 모르면 아무리 강한 열망을 갖고 노력한다고 하여도, 오랫동안 헤매고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붓다는 여명이 떠오르는 해의 선구자이면서 전도자인 것처럼, 바른 견해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돌파하는 선구자이자 전도자라고 말했다.

붓다는 여러 경전에서 바른 견해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세간적이거나 세속적인 바른 견해-즉, 세간적인 편안함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이해-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세상적인 것을 넘어선 바른 견해, 즉 해탈로 이끄는 이해를 흥미롭게도 구분하였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바른 견해인가? 나는 바른 견해가 두 가지라고 말한다. 더러움에 물들어 있고, 공덕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며, 집착의 결과가 따르는 바른 견해가 있다. 그리고 성스럽고, 더러움이 없고, 출세간적이고, 길의 요소인 바른 견해가 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의 이해를 좀 더 살펴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세간적인 바른 견해는, 완전히 해탈되지 않은 우리의 선한 행동은 종종 욕망, 공덕을 쌓는 것, 행복한 결과를 목표로 하는 것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들이 설사 선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무엇인가를 취하는 영역에 있다. 즉,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좋은 결과를 위해 좋은 업을 쌓는 것이다. 이런 세간적인 바른 견해는 우리 같은 재가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특히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평범한 우리가 스트레스와 난관보다는 행복과 안락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욕(바른 사유)

8정도의 두 번째 단계는 바른 이해에 이어서 바른 사유이다. 이것은 때로는 바른 의도 또는 바른 결심이라고도 불린다. 수행의 길에서 이 단계가 갖는 중요성은, 분명하지만 종종 간과된 진리, 즉 우리 삶에서 전개되는 습관 및 습관적 경향의 대단한 힘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음에 어떤 특정한 생각이 자주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생각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높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자주 생각하고 숙고한 것은 무엇이든 마음의 성향이 될 것이다."

우리의 행동이 자신과 세상을 보는 방식에 조건화되어 있고, 선한 행동과 불선한 행동이 각각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는 수행의 길에서 바른 사유가 초래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인 바른 견해의 다양한 요소들 모두가 세간적인 행복과 더 궁극적인 자유를 가져다주는 그런 사유와 의도를 함양하도록 이끌어준다.

"그런데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금욕을 생각하고, 악하지 않은 의지에 대해 생각하고, 해치지 않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바른 사유라고 한다."

우리가 감각적 즐거움의 단점과 금욕이 주는 보상을 성찰한다고 할 때, '금욕' 이라는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종종 어려움을 느낀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명종을 울리기 시작하는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욕을 욕망의 억압, 박탈, 보다 음울하고 근엄한 생활 스타일과 연관을 짓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욕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금욕을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해탈적 측면에서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중독에서 벗어나는 체험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중독과 연관된 고통을 알고 있다. 우리는 한두 가지라도 중독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음식 · 약 · 섹스 · 알콜, 또는 눈에 띄지 않는 일 · 권력 · 인정 · 부 또는 더 편안함 등등이다. 명상을 하는 삶들 또한 희열 또는 평온함과 같은 여러 명상 상태에 중독될 수 있다.

맹목적인 믿음 강요 안 한 붓다
스스로 탐구하고 조사하게 도와
正見 · 正思惟 지혜 요소 갖추고
正語 · 正業 · 正命 도덕 요소 담겨

붓다는 종종 금욕의 장점을 '마음의 정화' 라고 언급하였다. 나는 금욕이 삶의 방식인 승원 생활에 아주 자리를 잘 잡은 비구와 비구니들과 같이 지낼 때 종종 장점을 느낀다. 거기에는 순수함, 맑음, 단순함, 만족이 있다. 이것은 번잡함, 어수선함, 세상의 일상적인 욕망과는 첨예한 대조를 이룬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일종의 높은 평화와 편안함과 만나는 것이다.

바른말

바른 견해로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을 확립하고, 바른 사유의 분별과 수행을 함양한 다음, 이에 대한 결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을 탐구해 볼 수 있다. 이것들은 8정도의 다음 세 단계이다. 즉 바른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이다.

바른말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정직함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 원칙은 너무나 명확하고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잘못된 말에는 약간의 과장과 사실이 아닌 유머에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까지 여러 종류가 있다.

거짓을 말하는 상황에서 그 동기는 무엇일까? 어떤 것에 대한 탐욕인가? 인정에 대한 욕구인가? 자기 권력의 확대인가? 거절에 대한 공포 또는 질투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주 복잡하다.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마크 트웨인의 말은 이것을 잘 지적하고 있다. 신뢰를 손상시키는 거짓말은 우리의 관계와 사회를 망가뜨리는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 독일 철학자 니체가 "나는 당신이 나에게 거짓을 말한 것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화가 난다"고 말했을 때 이런 점을 강조한 것이다. 붓다는 거짓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말하였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나 남의 이익을 위해서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도 고의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불성(佛性)을 향하는 보살의 긴 여행 동안, 보살은 여러 시대를 거쳐 오면서 이런저런 계율을 어기고 많은 잘못을 하였다. 그러나 그 어떠한 때에도 절대로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 깨달음의 길에서 핵심은 정직함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정직함을 지키도록 고무시킴으로써 이것을 깊이 숙고하게 된다.

바른 행동과 바른 생계

바른 행동과 바른 생계는 8정도의 도덕 부분을 완성한다. 바른말과 마찬가지로 윤리적 가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깨달음의 본질을 위해서도 이런 단계들을 함양해야 한다. 명상적 지혜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적 이해를 서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붓다는 이런 수행의 통합적인 길을 〈법구경〉의 유명한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유익하지 않은 것을 피하라, 선한 것을 행하라, 마음을 정화해라."

바른말 · 바른 행동 · 바른 생계는 모두 유익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말고, 유익하지 않은 것을 피하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모두 긍정적인 표현-선한 것을 행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바른 행동은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신체적인 행동을 삼가는 마음의 명료함과 힘을 함양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바른 행동이란 무엇인가? 살생을 하지 말고, 남이 주지 않은 것을 갖지 말고, 성적인 잘못을 삼가라. 이것이 바른 행동이다."

그러므로 붓다의 가르침은 대부분 너무나 분명한 듯이 보인다. 즉 죽이지 마라, 훔치지 마라, 해를 끼치지 마라.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다 보면, 우리는 이해와 헌신의 벼랑 끝에 서게 된다. 그리고 이런 벼랑은 우리에게 도전의식을 고취시키는 지점이 될 수 있다. 어떤 스승은 만약 계율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 계율을 더욱 자세히 탐구해 보아야만 하는 신호라고 말하였다.

나는 이런 지적을 높이 평가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8정도의 단계들을 실제적인 실천으로 간주하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어서 더 이상 진전할 것이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우리의 삶에서 이해하고 탐구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8정도에서 바른 행동의 다음 단계는 바른 생계이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일을 하더라도 봉사하는 태도를 계발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는 단순히 나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가, 또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마음의 태도를 관찰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도움이 되겠다는 순수한 욕망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가? 바른 생계는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바른 생계는 보리심을 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달라이 라마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런 진실을 잘 포착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의무를 다하는 것은 우리에게 광채가 나는 마음, 영웅적이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의 힘을 준다."

이 글은 깨달음으로 가는 실용적인 마음수행 안내서 〈마인드풀니스〉 (도서출판 민족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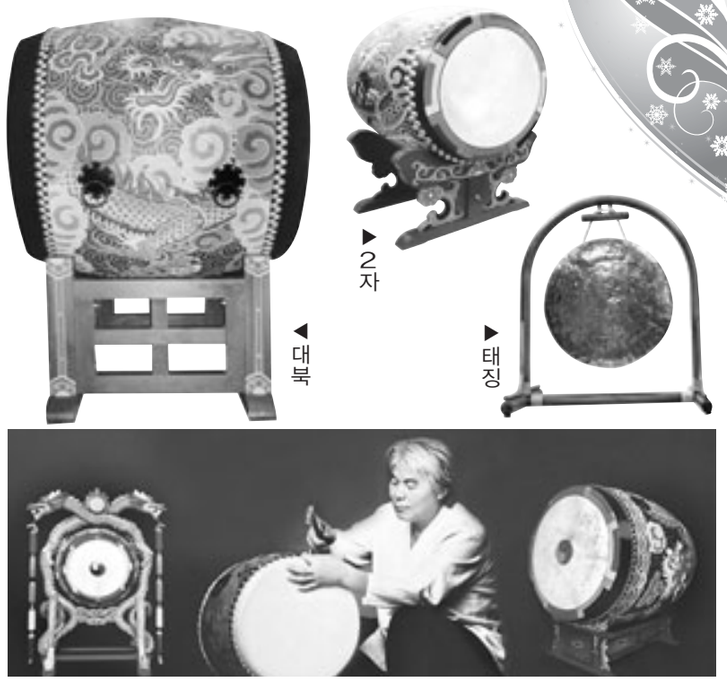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우주 생명 光(빛)의 기둥을
가슴에 세워드립니다!

자신이 직접 수행이나 기도, 명상, 참선중에 눈 앞에서
다양한 영적인 빛 기둥의 가피를 보면서 몸으로 체험하는
기도문과 수행법을 제시합니다. (특별한 자신만의 빛의 체험)

❶ 업장소멸, 한과 집착, 끝없는 고통의 소멸을 몸으로 체험(몸의 환골탈퇴)
눈물, 기침, 트림, 하품, 진동, 전율, 코물, 구역질, 담음, 빛의 변화,
몸, 마음, 영혼의 진동 주파수의 변화를 통한 삶의 대전환
❷ 인간의 3가지 고통 (1) 인간관계 (2) 금전의고통
(3) 몸의 질병의 고통 해결 기도문과 기도법제시
❸ 영적인 질환, 빙의, 영가장애, 무속병 원인없는 질병, 그 자리에서 확인
❹ 돈, 사업, 이혼, 사별, 별거, 자식, 취업 등의 마음상처치유 기도문
❺ 내몸에 잠자는 영혼을 깨워 마음, 몸을 쓰는 원리수행
❻ 가슴이 열리지 않아 수행에 진전이 없는 모든분(수십년기도하신분)
❼ 의통(심의과정)업장소멸후 의로움으로 재산환원 하실분
(심의대학 설립에 필요한 기금조성, 몸, 마음, 영혼을치유하는 의사 양성)
❽ 상단전(지성) + 중단전(감성) + 영성(단전) = 깨달음의 경지 수행

매월 3주, 4주 토요일 2시에
공개유료강연회 (10명에 한함 2만)
업장소멸, 고통소멸 원리, 가슴이 변해야
고통에서 행복으로 나아간다.
(강연후 체험 빛의 기둥)

【유튜브 동영상 강의 : 자각선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266-8
043-296-5258 010-9242-5259
자각선원 (부설 뇌파 마음수련원) 자각선원장 자각 합장



대행 스님

한마음 속에서 나오니 한마음 속에 모든 걸 맡겨 놓으세요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지 않은데 마음으로 즐겁게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마음이냐 하면, 오히려 여러분이 부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스님네들이나 여러분이 도반으로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 궂은 날씨도 마다 않으시고 이렇게 한자리를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밑바닥이 차지는 않습니까?

대중 예!

큰스님 허허허, 몹시 걱정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방석을 깔고 앉았는데 여러분은 찬 바닥에 앉아서 말입니다. 이럴수록 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것을 보면 항상 자기 마음에서 나오니까 자기 마음인 줄만 아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과거에 살 때 인연 지은 악업 선업의 그 생명체들이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몸속에 다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연이 돼서 말입니다. 한 덩어리에 있죠. 그런데 그 한 덩어리가 컴퓨터라면 바로 그 덩어리 속에 의식들이 잠재하고 있어요. 잠재하고 있다가 살아나가는 데에 차례차례로 생각을 내게 해서 애고도 오게 하고 불만도 생기게 하고 싸움도 하게 하고 병고도 생기게 하는 그 가지가지를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런데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운데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거, 안에서 천차만별로 일어나는 거, 그것을 마음이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은 우주에 직결이 돼 있고 세상과도 가설이 돼 있는 바로 한마음의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 속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경험과 체험을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나쁘고 좋은 거를 너무나 잘 압니다. 해(害)가 오는 것도 알고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잘 알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잘 압니다. 알고 있는 이 마음이 각자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 그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의식들이 자꾸자꾸 나오게 되면 그 마음을 거쳐서 나옵니다. 나오는 구멍은 한 구멍이기 때문이죠. 들고 나는 구멍이 한 구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몸속에 있는 생명의 의식들이 바로 악업 선업을 지은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이 나오면 그저 내 마음이 그렇게 하는 줄 아시지만 내 마음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은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잘된다는 것도 알고 전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마음도 그 마음속에 있고 모두 다 잘 아는데, 그 아는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잠재해 있는 생명의 의식에 의해서 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뜻을 헤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게끔 이러한 말을 항상 해 드리죠. 마음의 선장이 있고, 그 선장에 의해서 의식들이, 자생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이런 소립니다. 그 자생중생들의 의식이 내 마음을 거치면서 나오는 것을 항상 마음의 선장으로 다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건 줄 알고 속아서 항상 그렇게 헤매고 있다는 얘기죠. 마음 하나 잘 쓰면 잘 쓰는 대로 모두가 뒤바뀌지고 이 세상이 그렇게 참답게 잘 돌아갑니다. 빛보다도 더 빨리 지구도 돌아가고 모두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놓인 이 컵 자체도, 이 책상도 모두가 다 지금 쉴 새 없이, 눈에 보이지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를 진짜인 줄 알고 항상 나오는 대로 분노를 일으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서는 내가 인연 지은 대로, 즉 말하자면 악업을 지었으면 악업이 나오고 선업을 지었으면 선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모든, 즉 말하자면 유전성이라든가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인과성 이 전체가 바로 내 악업 선업 지은 그 자체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데 쉴 사이 없이 안팎에서 자꾸 나오는 것을, 나오는 대로 속고 자꾸자꾸 끄달리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끄달리게 하는 그 마음을, 잘 나오는 거든지 못 나오는 거든지, 잘 나와서 잘 이루어지는 것은 감사하게 마음의 선장에 놓고, 잘 안 나오는 것은 '잘 나오게 하는 것도 선장에게 달려 있으니까 당신만이 잘 이끌어 갈 수 있게끔 나오게 할 수 있다.' 하고 거기에다가 맡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맡겨 놓으면 맡겨 놓는 대로 의심을 하고, 또는 맡길 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의 선장은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장이라는 그 타이틀이 선장이 아닙니다. 진짜 그 좋은 생각과 알 수 있는 마음, 심안으로 볼 수 있는 마음,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마음,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마음, 남의 속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자기가 부모의 몸을 빌려서 영원함과 더불어 형성됐다는 앎을 숙명통이라고 한다면 그 다섯 가지 속에서 바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에 입력이 된 것처럼 항상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의 그 의식들이 컴퓨터에 입력돼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오는 것처럼"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거 들으실 때는 어려우시겠지만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내 마음의 선장은 그 모든 걸 알고 보고 듣고 하지마는 바로 몸속에 있는 중생들은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입력된 대로 나오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선장에 의해서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다가 모든 걸 맡겨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병이 났으니까 그 안에서 고쳐야 하고, 그 안에서 애고를 내보낸 거니까 그 안에서 애고를 처리해야 하고, 모든 것은 다 그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대답이 안 나옵니다. 하하하….

대중 네! (대중 웃음, 박수)

큰스님 지금 우리에게는 생활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 속에서 뛰어야 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순응해서, 즉 말하자면 내 마음속으로 두뇌, 즉 누진을 굴려서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시대에 따르면서 한생각을 해서 뛸 때에 천 리를 뛸 수 있고 만 리를 뛸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내용을 모르시지만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항상 얘기해 드리죠. 이 자리에 앉아서도 자기 집을 갔다 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자기 집에 갔다가 한꺼번에 보고 오실 수 있죠? 내 육신이 움죽거리지 않고도 집에 갔다 올 수 있듯이 무엇이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떠지지 못하고 마음의 귀가 뜨이지 못해서, 지금 여기서 자기 집에 갔다 오는 것처럼 어디든 그렇게 갔다 오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세히 보고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갔다 온다 못 갔다 온다 이런 것도 없죠. 지금 집에 갔다 오시는 데는 내가 "갔다" 하고 말할 수도 없고 "왔다" 하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한 찰나에 내가 그냥 눈 한 번 깜짝하니까 그냥 갔다 오게 되고 알게 되더라." 이런 거와 똑같이, 심안이 뜨이면 일체를 다 우주와 더불어 같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 이 공부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도 그렇고 일체제불도 그렇고, 모든 천백억화신의 보살들도 그렇고 역대에 내려오는 조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 내가 "너희 집에 갔다 왔다." 이러지는 않아도 여러분 가정에 가면 뜰이 어떻게 돼 있고 신발이 어떻게 놓여 있는 것까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뱃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부입니다. 여러분의 뱃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으며,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으며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거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는 것은 미래에 어떻게 되고 과거에 어떻게 됐고 이것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앞으로 오지 않았으니까 없는 것입니다. 단 하나 있다면 여러분의 몸속에 지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연이 돼서 자생중생들이 북적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는 뜻은, 왜, 요새 컴퓨터 있죠?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 놓으면 입력대로 나오지 그 외에 다른 게 나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와 같

☞ A18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성도사

● 주 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태백서로 90

● 법 명 : 혜운스님(강금석)

위 사찰과 위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 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욜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욜
상·중·하 단전 차크라 열려 기운 뿡뿡!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갑 체험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신화종합불사

● 전통한옥 법당 철거, 개축, 신축
● 30년 경력 대목장이 함께 합니다.
● 40년 경력 불모 조각장인이 함께 합니다.
● 40년 경력 범종 장인이 함께 합니다.
■ 9평 산신각, 신축,특 A급 가격저렴
■ 10평 정자, 18평 법당 증축 가능 A급
■ 17평 요사채, 21평 증축가능
■ 31평 재실, 38평 법당 증축가능 A급
■ 60평 한옥 2층 증축가능 (신축)
■ 80평 요사채, 40평씩 분할가능
■ 석탑 5~7층 다수있음. (5~3천만원)
■ 수익형 기도처, 서울, 매매 21억 (2억, 월 1천만원 세 있음)
■ 강원도 6천평 삼성각, 대웅전, 명부전, 요사채, 한옥 펜션 등 다용도 전환가능. 양도가 16억
■ 강원도 철원.대지4.800평. 대웅전. 삼성각등 건물 800평 전통 한옥목조건물임 납골당 수목장 요양시설등 전환가 양도가 40억원
■ 서울시내 전통사찰 부지 1,200평 양도가 120억원, 잔고증명 요함. 문화재 다수 보유
■ 이동식 스틸하우스 30평.설치까지 3천만원
■ 그외 다수의 사찰, 또는 매물 등이 있습니다.

010-6545-2020

힐링 에너지가 아주 좋은 명당터 인도합니다

산 수 배산임수(背山臨水), 전저후고(前低後高) 장풍득수(藏風得水), 남 동 향(南 東 向)

입 지 양지 바르고 아늑하며 앞이 탁 터져 있고 일조량이 적당하며 통풍이 잘 되고 주위 사방에 호위하는 산들로 싸여 있으며 산맥이 평지 쪽으로 유유히 뻗어 내려 있다.
500여평씩 4~5m의 단차를 두고 둘로 나뉘어 있으며 심한 가문에도 마르지 않는 지하수가 항상 나옴

접근성 서울 요금소에서 1시간 20분 (평일 기준) : 고속도로 104km, 자동차전용도로 7.5km, 마을길 2.5km로 최고의 접근성. 휴일에도 보통 1시간반 ~ 2시간 소요

용 도 힐링센터, 기도도량, 기도원, 암자, 요양원 등으로 최상의 요지

양도조건 980여평, 1필지, 관리지역, 건물 없음 4억원

연락처 010-2723-3278

터 중심에서 아주 강한 치유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코드를 스캔하면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 아는 분만 연락하세요.

주장자에 한번 굴러서 나오는 그 마음은 바로 법이 된다

☞ A17면에서 계속

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듯 모두 자동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며 살아나가는 지금 생활 속에 자꾸자꾸 나오는 겁니다. 좋은 일도 나오고 언짢은 일도 나오고 애고도 생기고 병고도 생기고 뭐, 일이 한두 건이 아니죠. 이렇게 생기는 이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과거에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이렇다고 하는데, 입력이 돼서 바로 여러분 몸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과거도 찾지 말고 미래도 찾지 말고, 현실도 모든 게 공했다 이겁니다. 단지 입력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 입력한 데다가 다시금 맡겨 놓는다면 과거에 입력된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팔자 운명도, 영계성, 세균성, 인과성, 유전성, 업보성 이 모두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새로이 생각하고 사시는 그것이 그냥 입력돼서 자꾸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려 있고, 여러분이 어떡하면 사는 동안까지 애고나 병고에 휘달리지 않고 자유스럽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교는 영원한 겁니다. 생명이 불(佛)이요, 말로 전달이 되고 통신으로 전달이 되고 뜻으로 전달이 되고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는 그 자체가, 바로 무의 세계 유의 세계, 죽은 세상 산 세상이 전부 연결이 되고 곤충에 이르기까지 연결이 되는 그 자체가 바로 교(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깎은 사람만이 불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든지 가톨릭교를 믿든지, 알라신교를 믿든지 티베트 불교를 믿든지, 어떠한 종교를 믿든 간에 불교 안에 있는 거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왕지사 칼을 뽑았으면 그 칼로 내 동료들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모든 일체 만물의 은혜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법을 배운다면 모든 조상들과 일체제불의 은혜도, 돌 쪼가리 하나 나무 한 그루의 은혜도 다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최상승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전이 됐다 하더라도 과학자들이 자기가 은하가 될 수가 없고 자기가 태양이 될 수가 없고, 자기가 위성이 될 수가 없고 자기가 나무가 될 수가 없고, 자기가 곤충이 될 수가 없고, 천차만별의 일체 만물만생이 자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일체 만물만생이 다 내가 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어떤 용도, 어떤 소원이든지 그것에 따라서 모두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고 분자로 화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응해 주시는 응신으로서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 만 개도 되고, 곤충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꽉 차게 다 응해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부처님의 뜻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만약에 소가 무명을 벗겨 달라고 애달프게 애원을 하고 마음공부를 하면서 정성을 지극하게 한다면 바로 부처님은 소 속에 들어가서 그 소 무명을 벗겨 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 그 소 속에 들어간다면 소가 되시고, 한 찰나에 말입니다. 한 찰나에 무명을 벗겨 주고 나오시고, 돼지 속에 들어가면 돼지의 무명을 벗기고 나오시고, 사람의 차원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화하시고, 또 찰나에 화해서 부처가 되시고, 이렇게 찰나찰나에 나투시는 그 만 가지 법은 헤아릴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려면, 바로 평등공법으로서 문 없는 문으로 오고 감이 없이 여러분에게 응해 주시는 천차만별의 이름을 가진 여래라고 합니다. 또 부처님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공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소리를 하니까 또 이 생각이 나네요. 마음은 바다도 없기 때문에 배도 소용이 없고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미국을 간다고 합시다. 그런다면 산과 물을 넘는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미국도 한 찰나요, 요 문지방 너머도 한 찰나입니다. 마음이기 때문에 저승과 이승을 찰나찰나 한 찰나에 넘나들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이 세상 자체가 바로 죽은 세상 산 세상이지 딴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활을 하시면서 잘 아시겠죠. 나쁜 일을 하면 교도소에 가고 감옥소에 가고 경찰서에 가고 이런다고요. 또 남이 알지 못하게 일을 저질렀는데 남이 모른다고 그래서 지옥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은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알기 때문에 그게 마음의 지옥고입니다. 마음에 지옥고가 벌어지기 때문에 현상세계에 나오는 대로 받는 겁니다. 마음에 지옥고가 입력이 돼 있으니 그게 안 받고 될 법한 일입니까? 한 치도 에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거는 여러분이 꼭 받게 마련이고,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신 거는 여러분이 그 결과를 꼭 받게 마련이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줬다고 해서 '내가 그걸 줬지.' 이러지 마세요. '내가 살렸지.', '내가 참 많은 걸 갖다 주었는데….' 하시지만 그게 아닙니다. 남을 갖다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은행에 돈을 갖다 넣습니까? 그 은행 사람들 잘 먹고 잘살라고 갖다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되찾아다 쓸 양으로 은행에 갖다 넣으시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냥 남은 이렇게 힘들여서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그저 희미하고 아리송하게, 들을 때만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이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 말 한 마디에, 이 행동 하나에, 이 마음먹고 행동 한 번 하는 데에, 허! 세세생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세생생이 달려 있는가 하면 자손 대까지 내려가면서 달려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거사가 직수굿이 짐을 지고 가는데…, 스님네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 상관없이 자기 일만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거사가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그 아주 하찮은 것이지만 꾸준히 짊어지고 가는, 아무 이유도 붙이지 않고 가는 그 행을 보고 '아!' 하고서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천 년 만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다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하나하나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정말 눈 뜨고 귀 뜬 사람한테 한 번 띄기만 하면 그게 천지를 진동하고도 남음이 있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조그만 거라고 우습게 생각하고 크다고 크게 생각을 하고 이러지 마세요. 조그마한 데서도, 즉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의 뜻이 아마 거기에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내가 경험을 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이걸 어떻게 속속들이 여러분한테 말로 다 하리까? 내가 스스로 깨친 건 내가 아는 것이지 여러분이 아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이 공부를 하면서 느끼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반야줄을 잡고 놓치지 마시고 항상 생활하는 데서 행선으로써 하십시오. 참나를 믿고…, 그 의식에서 그냥 나오는 자체가 바로 헛생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번뇌 망상이라고 합니다. 헛생각으로 나오는 것을 마음에서 나오는 줄 알고 속지 마시고, 또 속지 않기 위해서 선장의 주장자에 모든 것을 다 맡겨 놓으십시오. 맡겨 놓으면 거기서 바로 입력이 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모두가 재생이 되고, 구정물이 나올 것도 바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새 물로 바뀌어 나옵니다. 주장자에 한번 굴러서 나오는 그 마음은 바로 법이 되지마는 의식에서 나오는 생각대로만 여러분이 그냥 하신다면 그거는 바로 중생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걸리게 됩니다. 모든 게 잘못되게 되고 잘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파산까지 이르게 됐다고 어떡하면 좋으냐고 하기에 야단을 막 쳤습니다. 왜 당신네들이 그렇게 해 놓고, 그것도 처음에 그렇게 됐을 때 말을 하지 못하고 인제 아주 망하기 직전에 그냥, 다 뺏길 때 와서 얘기하느냐고요. 좀 생각들이 있어야죠. 야단을 치고 나니까 내 마음도 안됐죠. 하지만 그대로 보냈어요. 며칠 있다가 그게 어떻게 뒤집어져서 잘됐다고 좋다고 하고 왔는데 말입니다, 나는 그래도 미심쩍은 게 뭐냐 하면 그 한 찰나의 괴로운 거는 면했는데 그 사람에게 또 그런 게 닥쳐오면 어떡합니까, 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한테 자꾸자꾸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뿌린 것 자기가 거두어야 하고 자기가 뿌려서는 안 될 일이라면 냉정하게 단호히 끊고, 해야 할 일이면 단호히 해야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만이 이 세상에 조금도 어김이 없고 자유스럽고 즐겁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공부는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과학자들만 얘기할 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도 가만히 보십시오. 모두 바깥으로 끄달리고 다닙니다. 지금 뿌리가 썩어서 죽어 가는데 저 딴 나무를, 남이 볼 때 크고 좋은 나무를 보고서 그냥 살려 달라고 하니, 아니, 그 나무에서 이쪽으로 와서 이쪽 싹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어리석습니다. 냉철하고 좀 단호하게 인생을 돌아다볼 줄 알고 자기가 어디서 와서 지금 무엇을 하면서 걷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 두 발을 만들어 놨습니까? 기울지도 틀지도 말라고 두 발을 해 놨지 않습니까? 한 발만 없어 보십시오. 절름발이죠! 왜 두 손을 만들어 놨습니까? 한 손이 없으면 병신일 뿐만 아니라 한 손으로 다 들 수가 없어요. 한 손으로 집을 거나 집지요. 이러니 한 다리 병신, 한 팔 병신, 한 귀 병신, 귀머거리, 한 눈 까막눈, 이렇다면 여러분이 살기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은 한쪽 눈이 없고 한쪽 귀가 없고 한쪽 손이 없고 한쪽 발이 없습니다. 그것을 몽땅 다 겸해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태도와 하고 다니는 모습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옷은 기워 입든 꿰매어 입든 얼룩얼룩하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옷 빛깔이 그렇다 하더라도 정갈스럽고 정돈이 돼 있어야죠. 신발도 그렇고 양말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이빨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정돈되지 않았다면 바보 병신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면 벌써 상대방에게 간판이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에나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왕지사 이 세상에 나왔으면 좀 더 시대를 좇아서 순응하면서 옳은 법을 배우면서 내 몸뚱이도 아주 정갈하게 정돈해서 다닐 줄 아는 그런 행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짤막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나 모든 애고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꼬리표가 없더라도, 허허허…, 진짜 공부를 하다가 막히거나 이런 분들은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해(害)가 오는 것도 알고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잘 알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잘 압니다.
알고 있는 이 마음이 각자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질문자1(남) 먼저 한마음 주인공 도리를 공부하게 됨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질문을 드리게 돼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사항이 많은데 다음 질문자를 위해서 우선 한 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태어나면서 모습과 의식들도 제각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가 둔한 사람 등등 제각각 소질과 재능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날까지 진화되어 오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른 생각인지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그거야 말하나마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차원에 따라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곤충에서 고등 동물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차원은 자기가 마음의 계발을 하는 대로, 발전을 하는 대로 차원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모르면 차원이 낮고 알면 차원이 높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도 천차만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시라고 하는 거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4년 6월 19일 광명선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현불 논단

이념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한국전쟁은 민족적 비극
분단의식 고착화 시발점
이념 논의는 사고 위축 시켜

문화의 오류에 집착하는 현상
이념의 노예 사회에 양산해

부처님 '용어 탈피' 사사
열린 마음으로 열린 사회 구성
평화공동체 형성의 역할 다하자

우리 땅 한반도가 큰 파도에 휩쓸리고 있다. 청소년 시절에 어느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탄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공포와 어지러움 그리고 스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모습을 보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느낌과 비슷하다. 이 글이 지면에 실릴 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 감이 잡히지 않는다. 이러한 혼란의 격랑 속에 한국 현대사의 아픔이 새롭게 다가온다.

고래로 같은 민족이 칼끝을 마주하고 대치한다는 것은 우리 의식 속에는 그려질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식민지 통치하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고통과 억압을 공유하였고, 그만큼 해방의 기쁨도 컸으리라. 그러나 곧 한반도는 냉전적 국제정치의 이념적 대결장으로 되면서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나아가 한국전쟁이라는 우리 땅 전체가 전쟁터가 되는 민족적 비극을 겪었다. 이와 함께 분단의식의 고착화는 견고해졌고 우리 모두는 이념의 족쇄 속에 갇히게 되었다. 이제 70년의 틀에서 벗어나는 민족사적 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어쩌랴. 민족사적 전기의 매듭을 우리 민족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민족 공동체 구성원의 내공(內攻)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공을 기르는 제일 중요한 과제는 이데올로기적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이념 논의는 정신병리적이라 할 만큼 우리의 사고지평을 위축시켜 왔고 그만큼 파행적이었다. 지금 남북정상이 만나고 북미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남남갈등의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주변의 사람들과 남북평화를 주제로 대화하기가 불편한 경우가 많다. 이 모두가 이념의 문제에서 나온다. 이념으로 분단되고, 이념으로 전쟁을 치르면서 한국인의 정치적 삶은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이념은 긍정과 부정적 측면이라는 양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칼과 같다. 어머니가 칼을 들면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내고 강도가 들면 큰 흉기로 변한다. 인류 역사상 이데올로기가 큰 흉기로 등장한 예는 너무도 많다. 이데올로기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정신줄을 잠깐 놓치면 함정에 빠지기 쉽다. 그 함정의 제일 큰 요인이 바로 언어와 실재를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에는 많은 용어가 동원되고 이 용어로 현실을 진단하고 분석한다. 이를 물화(物化)의 오류라고 부른다. 현실을 추상화시킨 것이 용어인데 이 용어의 안경을 통해 현실을 파악하고 이에 집착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회현실에 얼마나 많은 이데올로기적 용어로 사람을 자극하고 동원하고 있는가. 이념은 인간 삶에 있어 하나의 도구다. 그런데 이념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어이하랴.

붓다가 열반에 드실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신 말씀이나, 연꽃의 의미를 가섭이 미소로서 화답한 '염화시중'을 상기하면 이제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용어에서 해탈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결코 무슨 주의니 하는 용어로 현실을 진단할 수 없고 인간과 사회의 미래를 처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용어에 속박되어 왔다. 남북 평화의 시대를 만들기 위한 내공은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을 갖도록 여러 영역에서 노력하는 것이다. 열린 마음은 바로 평화로운 열린사회를 만드는 제일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이 통일문화 창조의 핵심이다. 일찍이 칼 포퍼K. Popper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저서에서 열린사회의 적으로서 닫힌 이념체계를 비판하면서 '열린 마음'을 강조한다. 아 그렇다. 열린 마음은 바로 '연기적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리라. 연기적 마음은 타자와 함께하는 상호관계의 가치이다. 남북의 평화로운 공동체 형성을 위한 불교의 사명과 불교도의 역할이 새삼 자명해 진다.

社說

불교무형문화재 복원 이어지길

진각종이 신라시대 밀교의식인 문두루비법을 복원하겠다고 나섰다. 2016년부터 3년간 진행되는 〈한국밀교총람〉 발간 사업의 일부로 나당전쟁 당시 당나라 군사를 물리쳤다는 의식 복원에 나선 것이다. 문두루법은 나당전쟁 당시 통일신라의 여러 지역 백성들이 불교의식을 통해 하나로 뭉친 것을 의미한다.

불교계에서는 그동안 수륙재와 영산재 같은 무형유산의 복원 및 문화재 지정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전체 220여 무형문화재 중 불교무형문화재는 5종 7건만이 지정됐을 뿐이다. 유형문화재의 약 40%가 불교문화재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미약한 수준이다.

불교무형문화재는 근대화 과정에서 전승의 맥이 단절됐다. 사찰의 많은 의례와 의식, 풍속들이 사라졌다.

불교무형유산은 사찰 등 유형유산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민족의 정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무형유산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불교무형유산은 1700년 역사 속에 민족의 사상과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진각종의 문두루법 복원 추진은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불교무형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현재 불교계에서는 서울 봉은사의 생전예수재, 천태종의 삼회향놀이, 월정사의 탑돌이 등 무형유산이 많다.

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려면 이들 무형유산이 지닌 공동체성에 대한 주목과 대중들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한국불교의 기반에 들어있는 무형유산에 대한 주목과 함께 의례와 의식 등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일기를 기원한다.

어린이 영어지도자 네트워크 필요하다

지역의 한 교구본사에서 2013년 야심차게 추진한 영어어린이법회,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 법회는 사라졌다. 그 이유는 영어에 능통한 지도법사가 보직을 바꾸며 후임을 찾지 못하면서다.

2000년대 초반부터 불어온 영어조기교육의 열기는 불교계에까지 미쳤다. 영어법회를 비롯해 영문자타카암송대회 등 프로그램과 행사가 생겨났다. 불교영어도서관이 건립되고 각종 영어 서적도 많이 나왔다. 하지만 어린이영어포교의 현장은 최근에서야 불붙는 모양새다. 현장에서는 이를 지도하는 지도법사들에 대한 재교육 및 네트워킹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종립대에서 영어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을 개설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 사찰에서는 영어 지도가 가능한 수준까지의 스님들을 찾기란 어렵다.

이런 와중에 일부 사찰에서는 영어교사 및 강사 등을 초빙하거나 원어민들을 활용해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어에 능통한 스님을 찾기 보다 주변에서 불교에 관심있는 재가자를 활용하자는 취지다.

'바늘 가는 데 실 가듯이'라는 말이 있다. 바늘과 실은 함께 있지 않으면 그 활용도가 급감한다. 불교계는 이들 지도자에 대한 네트워킹을 해야 할 때다. 불교계 영어지도법사들이 필요한 사찰에 제대로 결합될 때 어린이영어포교 또한 활성화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영어지도법사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의 종단 차원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 시대는 변화했다. 단순히 신심에만 기대 사찰로 나오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영어교육과 함께 발전하는 어린이 포교의 모습을 그려본다.

특별기고

종단 정상화에 발 벗고 나서라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조계종과 소속 승려들이 시궁창에 처 박혔다. MBC TV의 〈PD수첩〉은 2회에 걸쳐서 조계종 총무원장 등 중진 스님 6명에 대해 중대 범죄에 해당되는 내용을 방송했다. 만일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계종은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

당해 스님들과 소속 기관은 모함이며 사실무근의 허위방송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송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관련 스님들은 즉시 합동으로 검찰에 MBC TV와 대표자 그리고 담당자 전원을 형사고소 및 민사상 보상을 청구하고 당장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들의 무고함과 MBC TV와 〈PD수첩〉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려야 마땅하다.

현실 상황에서 관련된 스님들은 타인을 시켜서 대변하거나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방송내용이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불조와 대중에게 참회하고 즉각 현직에서 물러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 등 속죄해야 마땅하다.

특히 제2회 방송은 현직 원로의원까지 거론 되었는 바 사실이 아니라면 원로회의는 즉시 명예회복에 나서야 하며,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원로회의는 즉시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해당 원로스님은 사직하고 참회해야 마땅하다.

묻노니, 종단이 이 지경이 된 현실에서 누가 먼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원로회의와 중앙종회는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관련자들을 청문하는 등 조사를 해서 무고하다면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죄가 있다면 강력한 징치를 통해서 종단이 바로 설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절대로 시간을 끌거나 눈치를 볼 일이 아니다. 현 종단 사태를 원로회의와 중앙종회가 지속해서 외면한다면 스스로 직분을 망각함이다. 만일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원로회의와 중앙종회가 응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자진 해산하거나 종도들이 해산시켜야 마땅하다.

종헌에 "종도 대중은 민족통일과 문명사의 새로운 흐름에 대비하고 종헌의 큰 뜻을 받들어 실천하여 이 땅의 불일을 만고에 빛나게 하고 삼보를 법계에 유전케 하라" 했다. 과연 오늘의 현실에서 조계종과 종도들이 "불일을 만고에 빛나게 하고 삼보를 법계에 유전"케 할 수 있는가?

조계종의 원로회의, 총무원장을 비롯한 각 수뇌들, 그리고 중앙종회는 종단을 이끌어 가는 고위직으로서 조계종 공직의 핵심을 구성하며 종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건강성을 유지해야 하는 책무가 이들에게 부여되어 있음이다. 그러나 종단을 이끌어간다는 고위급 승려들이 집단적으로 세간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니, 수행과 포교에 열중하는 대다수 대중 및 불자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었고, 한국불교 대표 종단으로서 그 본연의 기능은 진즉에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

원로회의와 중앙종회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당장 회의를 소집해서 종단을 정상화시키고 안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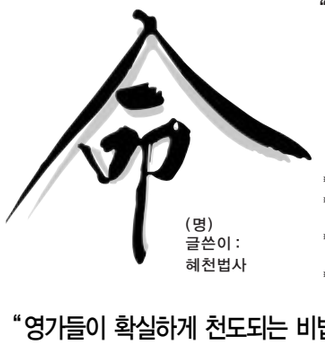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황금룡을 집안으로

황룡나한과 복호나한

황룡나한은 용위에 큰복을 실어다 줄 것이며
복호나한은 악귀를 물러치고 삼재를 소멸하여 들어온 복을 지켜 줄 것입니다.

나한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리며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자 이시다.

황룡나한은 미륵불의 화신이라고 하며, 황금룡을 타고 다니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해 주신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치며 삼재을 소멸하여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어 준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8명의 나한들에게 부탁 하시기를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줄것을 당부 하였으니 16명의 나한들은 그들의 권속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설파하고 황룡나한과 복호나한은 거처를 정하지 않고 세상을 두루 돌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하고 악을 몰아내며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고 있다.





- 족자 크기 : 세로 120cm × 가로 54 cm
  족자 1개 금액 : 10만원
  족자 2벌 구입시 19만원에 드립니다.
- 그림 크기 : 세로 67cm × 가로 44 cm
  금액 : 그림당 7만원
- 구 입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구입하시는 모든 분께 18나한 설명서 를 보내드립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설악산 신흥사 조실 무산 대종사가 5월 26일 법랍 62년, 세수 87세로 원적에 들었다. 무산 대종사는 최근까지 신흥사 조실이자 조계종 종립 기본선원 조실을 맡으며 후학 양성은 물론 쉼 없는 수행을 이어왔다. 또한 1968년부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시조시인으로 만해사상실천선양회를 설립해 '만해대상' '만해축전' 등을 만들어 새로운 포교의 장을 열었다. 그 공로로 무산 대종사는 제23회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본지가 촬영한 위 사진은 2011년 10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한 무산 대종사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그 어느 날도 산 것 같지 않다며 늘 빈틈없는 하루를 꿈꾸던 노장. 이제 그는 뜨는 해도 없고 지는 해도 없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 더 이상 그 좋은 문자도 그 깊은 음성도 일체 전하지 않는다. 그 문자와 음성의 주인이 자리를 옮기고 나니 그 문자와 음성이 많은 질문으로 남는다. 노장에게 여쭈어볼 시절이 분명 있었건만 그 좋은 시절을 놓치고, 뒤늦게 뜨거운 불 앞에 앉아 그 뜻을 여쭈어본다. 5월 26일 원적에 든 무산 대종사의 만다라다. **〈편집자주〉**

圓 寂

雪嶽堂 霧山 大宗師
(1932~2018)

아득한 성자

조오현

하루라는 오늘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뜨는 해도 다 보고
지는 해도 다 보았다고

더 이상 더 볼 것 없다고
알까고 죽는 하루살이 떼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나는 살아 있지만
그 어느 날 그 하루도 산 것 같지 않고 보면

천년을 산다고 해도
성자는
아득한 하루살이 떼

■ 무산 대종사 주요 연보

1932년 경남 밀양 출생
1957년 밀양 성천사 인월 화상에게 사미계 수지
1960년 밀양 금오산 토굴서 6년 고행
1966년 〈시조문학〉 통해 시조시단 등단
1968년 범어사 석암 율사 계사로 비구계 · 보살계 수지
1977년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취임
1989년 낙산사서 오도, 오도송 '파도'를 짓다
1992년 신흥사 회주가 돼 설악산문 재건을 시작
1997년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설립 · 만해대상 시상
1998년 백담사 경내 무문관 '무금선원' 개원
2000년 신흥사에 '향성선원' 개원
남설악 진전사 복원
2002년 백담사에 조계종 '기본선원' 개원
2003년 인제군 북면 용대리 '만해마을' 설립
2011년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조실 추대
2014년 조계종 기본선원 조실 추대
2015년 조계종 원로의원 피선, 대종사 법계 품수
2018년 세연을 거두고 5월 26일 오후 5시 원적

■ 무산 대종사 추모 일정

초재 6월 1일 오전 10시 신흥사
2재 6월 8일 오전 10시 백담사
3재 6월 15일 오전 10시 낙산사
4재 6월 22일 오전 10시 만해마을
5재 6월 29일 오전 10시 진전사
6재 7월 6일 오전 10시 건봉사
7재 7월 13일 오전 10시 신흥사

무산 대종사 영전에 올리는 글

대종사의 원적, 슬픔 아닌 준엄한 죽비

부처님 오신 사나흘 지나 돌연히 날아든 스님의 입적 소식을 받잡고 소제(小弟)는 눈물보다는 황망하고 허탄한 마음 억제하기 힘들었습니다. 그간 맺은 사적 인연을 떠나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한 엄혹한 현실을 직시할 때 무엇보다 또 한 분 시대의 큰 스승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돌아서서 냉정히 성찰해보면 당신의 부음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좌절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중생의 머리에, 가슴에 내리치는 한 준엄한 죽비소리. 할(喝)! 그만큼 가르쳤으면 이제 너희도 또한 스스로 깨우쳐 이 땅에 불국정토의 이상을 실현하라는 당부 아니겠습니까?

사문(沙門)이 일생을 가는 도정에는 여러 갈래 길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대덕은 홀로 선방에 은거하여 한 생을 오로지 참선수행으로 바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대덕은 생활 속에서 불성을 실천하여 한 몸을 중생 구제하는 일로 바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평생 사문의 길을 걷는 동안 당신은 자주 당신이 '참 중'이 아니라 하셨지만 소제가 보기로 그 어떤 대덕보다 당신은 이 양자의 길을 하나의 사표로 성실히 걸으신 분이셨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진여(眞如)를 찾고 또 참선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우리 시대의 보기 드문 보살행의 사문이셨습니다. 입적을 앞에 둔 80 노구에도 무애자재하게 매년 안거에 드신다는 것이 어디 흔한 일이겠습니까.

어느 날 소제는 당신을 모신 자리에서 무심결에 '큰 스님'이라는 호칭을 사용다가 야단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불가에서는 모든 중생들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 물론 선림(禪林)의 수좌들이나 문중의 사문(沙門)들 사이에서도 어떤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나는 혹시 경문은 더 잘 외울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음식을 만드는 일은 이 절의 공양주를 따라갈 수 없다. 절의 사무를 보는 사무장은 내가 할 수 없는 컴퓨터를 잘 다루고, 절의 셔틀 버스 기사는 내가 못하는 운전을 잘하니 이 절간에 누가 더 크고 고귀할 수 있겠느냐. 세상의 이치 또한 이와 같다. 이 세상 두두물물,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옆에서 지켜보면 당신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높은 관직을 가진 권력가들도, 돈이 많은 기업가, 유식한 지식인, 문화인들은 물론 이름 없는 중생, 장삼이사(張三李四)의 가난한 민초들이나 의지처 없는 노약자 등 일로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때 소제는 가끔 당신은 하나의 큰 정자나무요, 당신을 찾아 몰려든 대중들은 그 나무에 깃을 친 뭇 중생들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자나무는 분명, 〈벽암록(碧巖錄)〉 제18칙, 혜충(慧忠) 국사가 당나라 대종(代宗)에게 던진 화두에 등장한 바로 그, '무영수(無影樹)'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언제인가 당신은 제게 또한 당신의 불가적 깨달음이 사실은 수행시절 함께 생활했던 나병 환자와의 삶에서 비롯했다는 이야기를 들려 준적이 있었습니다. 나병이란 신체가 짓무르고 훼손되어 결국은 그 육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병이니. 이야말로 '나(我)'를 무화(無化)시키는 일 즉 제법무아(諸法無我)의 경지를 가리키는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수행·자비행 아우르신 '참 스승'
어느 날 '큰 스님'이란 호칭에
"절간 어느 누가 더 크냐" 일갈
항상 대종사 주변엔 사람들 몰려
중생 보듬은 큰 정자나무 같았다

生死一如… 무엇을 더 탄하겠는가
대종사 가르침, 행동으로 실천해야

선(禪)의 제3조 승찬(僧璨)의 별칭이 적두찬(赤頭璨)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저로서는 한국 선종의 비조(秘祖) 도의 선사의 정기가 서린 신흥사 문중에서 조계종단의 새로운 선풍을 진작시킨 당신이야말로 현대 한국불교의 승찬이 아니실까 생각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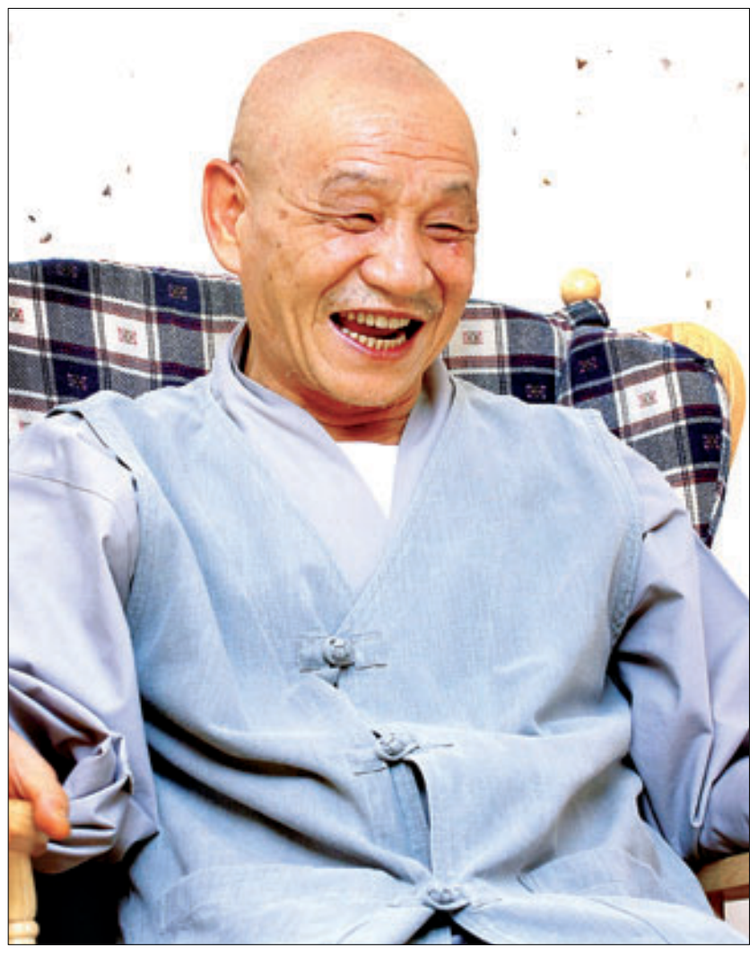
생사가 일여이니 더 이상 무엇을 탄하며 무엇을 서러워하겠습니까. 남겨진 우리로서는 스님의 그 크고 고귀하신 가르침에 마땅히 힘써 행동으로 실천할 따름입니다. 부처님오신날에 맞추어 입적하신 스님, 저세상에서도 필시 성불하시어 무간지옥 우리 중생들을 무량 제도하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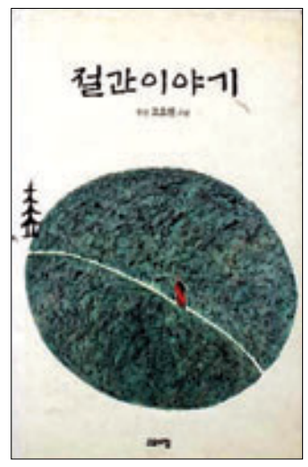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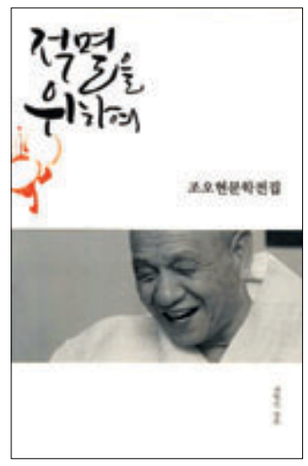
오세영
(시인 · 한국예술원 회원)











'한글 禪시조'로 '時禪一如' 경지 보이다

학위논문으로 살펴본
무산 대종사 詩 세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설악 무산 대종사는 세간의 대중에게는 '조오현'이라는 필명이 더 친숙할 수 있다. 1968년 〈시조문학〉으로 등단한 이래 대종사는 '선'과 '시조'를 함께 병행했던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 '선시조'라는 새로운 문학사적 지평을 열기도 했다.

오세영 시인은 저서 〈현대시와 불교〉에서 무산 대종사 작품세계를 이렇게 평가한다. "오현의 시가 우리 문학사에서 하나의 의의를 지닐 수 있다면, 그것은 시조 시형에 의한 선시의 현대적 확립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무산 대종사의 시조 연구는 꾸준히 이뤄졌다. 평론이나 연구 소논문들 이외에도 4편의 석·박사학위 논문들도 발표됐다. 그만큼 무산 대종사의 작품세계가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올해 중앙대서 박사학위를 받은 배우식 시조시인은 무산 대종사의 선시조의 특징과 유형을 고찰했다.

"불립문자 언어도단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선'과 정형성의 '시조'가 만나 형성된 것이 '선시조'"라고 정의한 배 시인은 "조오현의 선시조는 평생을 선수행하며 닦고 비우고 또 비우며 닦아온 마음 혹은 영혼의 울림이며 표현이어서 쉽게 그 속뜻을 보이지 않는다. 조오현의 선시조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인 해탈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산 대종사의 선시조의 사상적 배경에 반야공·중도·불이·화엄·연기·불살생 등이 복합적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불살생에 대해 배 시인은 "조오현의 선시조에서 보여지는 불교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은 깊고 넓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생명존중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작품을 통해 보여준다"면서 "불살생의 승화는 결론적으로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생명존중의 세계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종사 작품의 궁극점 '해탈'
공·중도·화엄 등 사상적 배경
"시조 선시 현대적 확립 이뤄"

그러면서 무산 대종사가 '우리 문학사상 최초의 선시조 창작자이자 완성자'라고 상찬한다. 이에 대해 배 시인은 "조오현은 깨달음의 순간을 형상화한 수많은 선시조를 선보여 본격적인 한글 선시의 전범을 제시했다"며 "불가 전통의 한시 형식을 과감히 깨뜨리고 새로운 형식인 한글 선시조를 최초 발표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오현 선시 연구'를 통해 2014년 경기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민서 박사는 무산 대종사의 첫 시집 '심우도(1978)'부터 '아득한 성자(2007)', '비슬산 가는 길(2008)' 등 270여 편의 시를 대상으로 분석해 대종사의 문학세계를 규명했다.

그는 대종사의 선시를 △조사활구의 고칙시(高則詩) △자연경계의 선취시(禪趣詩) △중생구제의 우범시(又凡詩) △승속일여의 선화시(禪話詩)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오현 스님의 시는 일종의 돈오, 자성에 대한 직관적 지각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오현은 시인이면서 선승이므로 종교와 문학이 분리되지 않고 평등하게 용해돼 있다. 그의 선시는 선과 시가 균형을 이룬다"고 평가하며 "고려시대 교화를 목적으로 불교와 문학의 결합으로 승화시킨 혜심의 선시를 작금에 이르러 조오현이 현대 선시로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순덕 씨의 박사학위 논문 '현대시조에 나타난 형식미학과 생명성 연구—이병기, 조운, 김제현, 조오현을 중심으로'는 각 시인의 '형식미학'과 '생명성'에 주목한다. 특히 무산 대종사의 작품에 대해 "단시조와 연시조, 사설시조를 정격으로 창작하면서도, 점차 변용 및 확장으로 나아가는 형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오현은 시인이자 구도자의 길을 걸으며 순환적 생명성을 추구한다. 직관적 초월의식을 통해 집착과 욕망에서 문제가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깨달음과 구도의 시를 창작한다"고 평가했다.



▲ 종로구 창신동 안양암 극락왕생도 <서울시 유형문화재 188호>

BTN 불교TV가 만든
불교계 유일의 불교전문 장례!!! 불 국 토 상 조
불국토상조는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진심을 다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불국토상조가 불교문화를 이어갑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이 설립한 불국토상조
가입상담 1577-7675

"불국토상조만의 불교전문 장례서비스 특징"

스님의 시다림 봉사
입관 및 성복제를 하는 동안 스님이 여법한 염불 집전을 해드립니다

장엄한 제단장식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을 나타내는 번(幡)장식을 통해 제단의 불교식 장엄함을 구현합니다

불경수의/ 지장보살상 위패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지장경(금박)이 새겨진 불경수의와 지장보살상 위패를 제공합니다



대리점주 (장례포교사)를 모십니다. 상담문의 02-525-3370
부처님오신날 봉축할인 4.23 – 5.22(중복할인 불가)

BTN 불교TV 불국토상조

불국토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하여 회원의 소중한 상조납입금을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조관련 중요정보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btnlife.co.kr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 대표이사 구본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서울-2011-제 68호

격외의 증도가로 중생 보듬은 '무애도인'

설악 무산 대종사는?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제3교구본사 속초 신흥사 조실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인 설악당 무산 대종사가 5월 26일 오후 5시 11분경 원적에 들었다. 법랍 62년, 세수 87세.

무산 대종사는 격외의 증도가를 대중에게 내보인 선사였으며, 깊은 선취가 담긴 시조 문학으로 한국 시조 문단을 풍부하게 한 시인이었다. 또한 만해 스님의 선양과 이를 통한 다양한 포교로 중생을 제도한 부루나의 후예였다. 대종사는 생을 통해 대승불교의 진수인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그대로 보였다.

1932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무산 대종사는 성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7년 경남 밀양 성천사 인월 화상으로부터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1968년 범어사 석암 율사를 계사로 비구계와 보살계를 수지했다.

설악산문 재건한 설악의 宗師

무산 대종사는 출가 직후부터 일대사를 해결하기 위한 수행을 거듭했다. 1960년부터 경남 밀양 금오산 토굴서 6년을 용맹정진했으며, 1989년 양양 낙산사에서 정진하면서 불조대의를 투득하게 된다. 무산 대종사는 오도 직후 '밤늦도록 책을 읽다가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먼바다 울음소리를 홀로 듣노라면/ 千經 그 萬論이 모두 바람에 이는 파도란다'는 오도송을 지었다. 1977년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를 거쳐 1992년 회주가 된 이후 무산 대종사는 설악산문 재건에 역량을 집중했다.

1998년 백담사에 무문관 '무금선원'을, 2000년에는 신흥사에 '향성선원'을, 2002년에는 백담사에 '조계종 기본선원'을 개원했다.

2011년 신흥사 조실로 추대되며 설악산문의 종사가 됐지만 무산 대종사는 설악선풍의 진작을 위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정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4년부터 백담사 무문관에 입실한 뒤 원적하기 전까지 4년동안 동·하안거를 폐관 정진했다.

이런 대종사의 노력은 2016년 '조계선풍시원도량설악산문' 현판하며 산문 재건을 내외에 알리면서 결실을 맺었다.

이 같은 대종사의 선사적 풍모는 종단의 귀감이 돼 2014년 조계종 기본선원 조실로 추대됐으며, 2015년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피선돼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2005년 도의국사가 창건한 남설악 진전사 복원 낙성법회에서 무산 대종사(사진 가장 오른쪽)와 참여 대중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아득한 성자'로 2007년 정지용문학상을 받고 있는 무산 대종사. 대종사는 시조시인으로 한국 문단에 큰 업적을 남겼다.

시조로 선을 노래한 文人

무산 대종사는 시조 문학과 이를 통한 포교에서도 큰 업적을 남겼다. 대중이 익술한 '조오현'은 대종사의 속명이자 필명이다. 1968년 〈시조문학〉 시조부문에 등단한 무산 대종사는 〈심우도〉, 〈아득한 성자〉, 〈마음 하나〉, 〈절간 이야기〉, 〈적멸을 위하여〉 등 시집을 출간하며, 선과 현대시가 조우하는 지점을 꾸준히 모색했다.

특히 〈심우도〉는 스님의 정신적 사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제된 시어로 대기대용한 선불교의 가르침을 담아냈다.

해외에서도 무산 대종사의 시 세계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0년 미국 제인출판사에서 〈아득한 성자〉가, 2016년에는 시집 〈적멸을 위하여〉가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번역·출판됐다. 2015년에는 미국 버클리 대학의 초청을 받아 '설악무산 그리고 영혼의 울림'을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

대종사는 이러한 문학적 업적을 높이 인정받아 가람시조문학상, 정지용문학상, 공초문학상을 수상했다.

만해 선양을 통한 포교

또한 무산 대종사는 만해 스님의 애민정신과 생명·평화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만해사상실천선양회를 1996년 창립, 1997년 만해대상을 제정해 평화상·실천상·학술상·포교상·예술상 5가지 분야에 대한 시상을 시작했다.

만해 대상의 의미를 더한 것은 1999년부터 함께 시작한 '만해축전'이다. 1999년 8월 13~16일 백담사에서 열린 제1회 만해축전은 한국문학 심포지엄부터 '만해문학'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까지 다채롭게 열렸다.

또한 무산 대종사는 '만해마을' 조성에 힘써 2003년 8월 완공시켰다. 만해마을은 문인들의 창작 공간이자 문학 포교의 전진기지이기도 했다. 2013년에는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운영한 만해마을을 동국대에 무상 증여했다.

당시 '무상 증여'를 결정한 무산 대종사는 "동국대의 전신인 명진학교 1기 졸업생인 만해 스님은 동국대를 상징할 수 있는 분으로, 불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동국대가 스님의 정신을 잘 받들어 계승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항상 높은 곳보다 낮은 곳에 있었던 무산 대종사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렸다. 고관대작부터 용대리 마을 주민까지 그 계층은 다양했다. 이들에게 대종사는 아낌없이 내주었다. 특히 용대리 마을에는 '무산 스님의 장학금을 안 받은 가구가 없다'고 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적잖은 수익이 보장되는 용대리-백담사간 셔틀버스 운행권도 마을에 넘겼다.

대방무외의 풍모를 우리에게 보여준 무산 대종사. 모든 것을 내어준 대종사는 '天方地軸 氣高萬丈/ 虛張聲勢로 살다보니/ 온 몸에 털이 나고/ 이마에 뿔이 돋는구나/ 억!'이란 게송을 남긴 채 우리 곁을 떠나갔다.

설악 무산 대종사의 사자후



"대장경에서는 부처님이 어떻고, 어떻고…. 이것을 버리는 날이 해제날이다. 중생의 삶 속으로 들어가 선지식을 찾고 가르침을 구하라.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와 살아가고자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세상 속에서 문수의 지혜를 배우고 보현의 행원을 배워야한다."

-2012년 2월 5일 동안거 해제 법어 中

"대통령이 되겠다고 떠들어대는 정치인들의 추태가 점입가경(漸入佳景)이다. 사람들은, 스님들을 보면 뭘 좀 많이 안다고 지레짐작하고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냐고 묻는다. 삼독(三毒)의 불길을 잡는 사람이 민심도 잡고 대권도 잡는다고 정중히 전하라."

-2017년 2월 10일 동안거 해제 법어 中

"나는 대중 여러분 한번 바라보고 대중 여러분들은 나 한번 바라보면, 나는 내가 할 말을 다했고 여러분들은 오늘 들을 말을 다 들은 겁니다. 날씨도 덥고 하니 서로 한번 마주보고 그랬으면, 할 말 다하고 들을 말은 다 들은 겁니다. 오늘 법문은 이게 끝입니다."

-2017년 8월 5일 하안거 해제 법어 전문

知音 정휴 스님이 본 무산 대종사

"뜨거운 인간애 펼친 불세출의 선지식"

"무산 대종사의 삶을 겉으로만 보면 파격적인 것처럼 느껴져 마치 기인인 듯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사람들은 무산 대종사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의 진면목은 감춰져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뜨거운 인간애를 실천한 이 시대의 선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고성 화암사 회주 정휴 스님은 평생 지음(知音)이자 도반인 무산 대종사의 진면목을 이 같이 강조했다. 정휴 스님은 무산 대종사 원적 후 호상차지(護喪次知)를 맡아 다비식까지 모든 장례를 총괄했다. 스님은 인간 조오현을 '탈권위적인 사람'이라고 밝히며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무산 대종사의 그릇은 겸손과 덕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의 권위 같은 것은 내던지고, 상대를 포용해서 안는 인물이니까요. 이런 점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무산 대종사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하는 요소 같습니다. 또한 모든 일을 스스로 일궈놓고 공적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돌리는 것 역시 무산 대종사의 넓은 품입니다. 도반인 제가 보기에 이처럼 아름답고 큰 미덕은 그가 불교에 들어와 치열하게 갈고 닦아 이룬 덕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휴 스님은 이어 무산 대종사와의 인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꼽았다.

"무산 대종사가 불치병에 걸려 수술을 한 뒤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치열하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생사의 벽을 뛰어넘으려고 자신과 싸우는 모습이었죠. 개인적으로 불교정화운동 이후 몇몇 선지식 외에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치료조차 거부했지요. 이 같은 노력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본적이 없습니다."

무산 대종사 원적 후 곳곳에서 대종사의 도움을 받았다는 미담이 공개되는 것과 관련해 정휴 스님은 "오래 전부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남을 도왔다"고 회고했다.

"스님들부터 문인, 정치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무산 대종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대종사는 상을 내지 않고 남몰래 선행을 펼쳤죠. 저도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 받았는지는 몰랐습니다."



2017년 하안거 해제 당시 무산 대종사(사진 왼쪽)와 평생도반인 정휴 스님이 백담사 무문관 앞에 나란히 섰다.

무산 대종사는 시조시인으로서 문단에서도 선(禪)을 가장 문학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독보적인 존재였다. 정휴 스님은 그를 "문학적 상상력이 뛰어난 천재적인 인물"이라고 평하면서 "선에 대한 깨달음을 글로써 가장 잘 표현했다"고 말했다.

산중의 주인을 잃은 설악산에서 후학들이 느끼는 선지식의 빈자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터. 정휴 스님이 무산 대종사의 상좌를 비롯해 문중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마음 속 자비를 일구라는 것'이다.

"무산 대종사의 삶을 후학들이 깨달으려면 족히 3년 이상은 있어야 할 겁니다. 영전에 패를 모시고 있을 때까지는 허전함만 느끼지만 1년, 2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뇌리에서 싹 없어지겠죠. 3년을 지내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새롭게 조명되고, 또 다른 평가가 나올 겁니다. 무산 대종사가 실천한 인간애의 미덕은 우리가 계속 배워야할 가르침입니다. 사람을 높낮이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포용하는 넓은 마음, 훗날 다시 법신처럼 다가오겠죠."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불심으로 정성드려 한획씩 써내려간 경구들....

아래 경전은 銀 98%의 미세(나노급)한 銀가루로 1차 집필후 2차 금분으로 덮어 집필한 세계 초유의 경구들입니다.

【금강경】



【반야심경】



은(銀)의 효능

인체에 유해한 균을 소멸하고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효능이 탁월합니다.

◆인터넷 : 순銀의 효능을 참고 바랍니다.

규 격

◆금강경 : 8폭 360cm × 180cm
6폭 270cm × 180cm

◆반야심경 액자형 : 70cm × 40cm

◆족자 : 맞춤제작

구입가격

◆금 강 경 : 8폭 550만원
6폭 550만원

◆반야심경 : 액자형 45만원
족자형 40만원

◆가격 문의시 절충가능

구입하는 불자님께서는 금강경, 반야심경 말미에 존함을 써 드립니다.

◆구입및 문의전화 : 법지스님 010-2604-6511,
집필한 불자 - 초암 류성열 031-845-3598, 010-8988-3536

모든 종도의 귀감… 참된 수행자이셨다

法語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만고휘연하쳐멱 萬古輝然何處覓고
두두물물현고풍 頭頭物物現古風이라.

만년토록 빛나는 것을 어느 곳에서 찾을고?
두두물물이 옛 고풍을 나툼이라.

설악의 주인이 적멸에 드니 산은 슬퍼하고 골짝의 메아리는 그치지 않고, 도의국사가 중국에서 해동海東으로 선법禪法을 전하고 만해萬海선사가 터를 닦은 설악산에 무산霧山대종사가 일거불출一去不出하여 선禪의 도량道場을 세웠습니다.

무산霧山대종사께서 남기신 팔십칠의 성상星霜은 선禪과 교敎의 구분이 없고, 세간世間과 출세간出世間에 걸림이 없던 이시대의 선지식의 발자취였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일찍이 동진출가童眞出家하시어 치열熾熱한 정진으로 선과 교와 종무宗務를 두루 섭렵하시고, 오직 본분本分수행과 후학불사佛事와 불교문화 쇄신刷新을 평생의 원력願力으로 매진邁進하였습니다.

산중을 지혜와 덕망으로써 원융화합을 이루어 내고, 설악의 불교문화를 부처님의 정법正法으로써 세계의 문화로 발전전승發展傳承하고 전법포교傳法布敎로 화합回向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종도宗徒들의 귀감龜鑑이 되니 실로 수행자의 참모습을 보이셨습니다.

雪嶽堂 霧山 大宗師 覺靈 前에

고목용음진견도 枯木龍吟眞見道요
촉루식진안초명 　　識盡眼初明이라.
소식진시희식진 消息盡時喜息盡어늘
당인나변탁중청 當人那辨濁中淸고?

마른 나무에 용이 소리를 내니 참으로 도를 봄이요,
해골 빠디귀에 분별이 다하여야 진리의 눈이 처음 밝음이라.
소식이 다한 때에 기쁜 소식이 다했거늘,
마땅히 사람들이 어찌 이 탁한 가운데 맑은 것을 가릴고?

주인 적멸에 든 설악산 슬픔에 잠겨

永訣辭 조계종 원로의장 세민 스님

지난 밤 雪嶽山이 소리 없이 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계곡물도 울먹이며 지나갔고 새들도 깊을 잃고 슬픔을 참지 못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森羅萬象이 무릎을 꿇고 슬퍼하는 것은 이 山中의 主人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스님께서는 오랜 세월동안 大淸峰에 홀로 앉아 꽃피고 새가 울면 아름다운 서정과 깊은 禪旨로 雪嶽의 眞景山水를 노래하였습니다.

낙엽이 물들고 떨어지면 내려놓음의 省察로 우리를 일깨우고, 눈보라치고 칼날선 바람이 불 때면 一機一境으로 禪旨를 풀어내린 霧山大宗師께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두고 無生의 세계로 還歸本處하셨습니다.

온갖 障 ㅅ와 고통으로 얼룩진 四大를 逍脫하고 無生法忍을 증득하여 法界의 自由人이 되셨습니다.

보고 듣는 것을 거둔 것은 生滅이 없는 本分을 나투기 위함이요,
말하고 움직이는 것을 그친 것은 나고 죽음이 없는 生死의 틀을 바꾼 것입니다.

스님! 비록 寂滅의 깊은 곳에서 解脫의 安樂을 누리고 계시더라도 無生의 한소식을 한번 보이십시오.
여기 모인 大衆은 광소 소탈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이끌어주시던 그 禪容과 法音을 뵙고 들을 수 없어 슬픔에 잠겼습니다.

일생동안 걸림없이 縱橫無盡, 가는 곳마다 圓通自在하셨던
그 一機一境을 보지 못해 가슴이 무너집니다.
生死自在한 機用으로 格外示蹟을 한번 보이십시오.

스님께서는 우리 宗門에 歸依하여 一念精進으로 自己命根을 밝히고 凡聖의 미혹을 떨쳐버렸고 蹤跡쏘를 틀고 앉아 엄메이는 틀에서 벗어나, 버리고 구하지 않는 趙州家風으로 一生을 百納의 삶을 사신 눈밝은 雲水였습니다.

스님이 남긴 業蹟은 깨달음의 價値로 빛날 것입니다.
百潭寺에서 無門關을 개설하여 빛바랜 禪門을 일으켜 세운 것도 스님이었고 역사 속에 묻혀있던 萬海를 일으켜 세워 平和와 正義, 그리고 生命思想을 전개한 것도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이 성취한 깨달음과 大方無外한 禪旨는 산과 바다를 누르고 大機大用은 하늘높이 치솟았습니다. 밝은 眼目은 本分자리를 벗어난 일이 없고, 갈고 닦아서 이룩한 德行은 下心으로 이어져 밑바닥까지 自己를 내려놓았습니다.

특히 스님이 남긴 禪詩는 頓悟雷聲이었습니다. 우리 文學史에 이렇게 큰 울림은 없었습니다.

句節마다 담긴 禪旨는 우리 가슴을 울리고 一言一句마다 아름다움을 풀어내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 영혼을 후려치는 ?杖子이기도 하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雷聲 같았습니다.

이제는 生滅없는 世界에서 解脫의 自由와 安樂을 누리시고 오고감이 없는 大自在力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衆生을 깨우치소서.



설악 무산 대종사 열반송

天方地軸 氣高萬丈
虛張聲勢로 살다보니
온 몸에 털이 나고
이마에 뿔이 돋는구나
억!

'涅槃' 불이 들어간다 진정한 무애로 돌아간다







5월 26일 원적에 든 설악산 신흥사 조실 무산 대종사의 다비식이 5월 30일 금강산 건봉사에서 봉행됐다. 불이 들어간다. 열반(涅槃)이다. 불생불멸, 육신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한 시절에 남긴 그의 말과 글은 흰 연기 되어 날아간다. 그의 설법이 무엇이든 불꽃을 보는 동안은 우리는 슬프리라. 수백의 만장이 무슨 소용이며, 수백의 조사가 무슨 소용일까. 진정한 무애로 돌아간 그 이름이야 그 사연을 보았겠지만 한 걸음을 사이에 두고도 볼 수 없는 우리는 그저 그의 이름을 불러볼 뿐.

고성 건봉사=박재완 기자

용대리 주민들 친가족처럼 챙겨

弔辭 정래옥 前 용대리 이장

큰스님! 23년 전 큰스님께서 백담사에 오셨을 때, 저는 이장으로서 백담사에 발걸음을 자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때부터 마을과 주민들을 사랑과 덕으로 늘 생각하시고 도와주시는 큰 스님을 부모님과 같이 섬기고 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장하고는 나하고는 나이 차이가 열마 나지 않아 이제부터는 내가 이장을 친동생으로 생각하고 살터이니 그리 알고 지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때부터 큰스님에게 온갖 사랑과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스님께서 입적하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철썩 내려앉았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용대리 전체 주민들도 갑작스러운 큰스님의 비보를 접하고 큰 슬픔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큰스님께서는 20년이 넘는 세월을 백담사에 계시면서 우리 용대리 주민들에게 덕과 올바름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마을에서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장학금을 주시고, 노인 복지에도 늘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신도들이 큰스님 쓰시라고 용돈을 드리는 것을 푼푼이 모아 아낌 없이 용대리 주민들에게 베풀어 주시
며 마을 발전에 물심양면 도와주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 용대리가 우뚝 서게 됐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이제는 저희들도 천분의 일이라도 큰스님께 마음으로나마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훌쩍 떠나가시고 나니 그저 마냥 안타까움에 마음이 무척 애통하기만 합니다.

큰스님! 이제 그동안 지고 계시던 무거운 짐을 홀가분히 벗어버리시고 하늘나라 좋은 곳에 가셔서 푹 잘 쉬시기를 저희 용대리 주민들은 머리 숙여 기원드립니다.

저희들은 용대리 어느 곳을 가나 큰스님께서 남기신 발자취를 돌아보며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새기고 열심히 살아가겠사오니 이제 편히 잠드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부터 대학생까지 '스님 그립습니다'

대종사 마지막 가는 길 이어진 각계 애도 물결

5월 26일 오후 5시 경 조계종 원로의원 설악 무산 대종사가 원적에 들었다. 조계종 제1교구본사 신흥사에 빈소가 마련됐다. 장례가 진행되는 5일 동안 전국적으로 애도의 물결이 이뤄졌다. 너도 나도 할 것없이 대종사와의 추억들을 되새기며 대종사를 추모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문 대통령은 5월 27일 자신의 SNS에 "불가에서 '마지막 무애도인'으로 존경받으셨던 신흥사 조실 오현 스님의 입적 소식을 들었다"며 대종사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스님께선 서울 나들이 당시 저에게 한번씩 막걸리 잔을 건네 주시기도 하고 용돈을 쥘려주시기도 했다. 물론 묵직한 화두를 하나씩 주셨다"고 회고했다.

이어 "얼마 전 스님께서 〈아득한 성자〉 시집을 인편에 보내오셨기에 아직 시간이 있을 줄로 알았는데, 스님의 입적 소식에 '아뿔싸' 탄식이 절로 나왔다"면서 "언제 청와대 구경도 시켜드리고, 이제는 제가 막걸리도 드리고 용돈도 드한번 드려야지 했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문 대통령은 "살아계실 때에도 생사일여, 생사를 초탈하셨던 분이셨으니 '허허' 하시며 홀홀 떠나셨을 스님께 막걸리 한잔 올린다"고 애도를 표했다.

무산 대종사의 남모를 선행도 조명됐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양희동, 이하 대불련)는 5월 29일 성명을 통해 무산 스님의 원적을 애도하며 "큰 스님께서는 지난 2011년 반값등록금 촉구 집회에 나갔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된 대학생들의 벌금 193전만 원을 대납하게 하시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대불련 측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 당시에는 조계종 한 스님의 기부로만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무산 스님은 백담사가 있는 인제 산골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대학 재학 때까지 남몰래 장학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불련 역시 큰스님께 은혜를 입었다. 2012년 재정적인 어려움 당시 지원과 격려를 해주셨다. '아무 걱정 말고 잘 돌아가라'는 말씀은 시름을 덜어주는 것이었다"며 "큰스님께서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대학생 청년들의 활동에 격려와 위로를 주셨다. 그 때 받은 격려와 위로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직접 전할 수 없게 되었지만 남겨주신 선물로 여기고 앞으로 저희의 활동에 화두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신흥사 빈소에는 불교계와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의 조문이 이뤄졌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총무원장 설정스님을 비롯해 총림 방장 · 원로의원 · 교구본사주지 · 중앙종무기관장 스님 등 종단 주요 인사들이 빈소를 찾았다.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성낙인 서울대 총장, 김진선 前강원도지사, 김진태 前검찰총장, 임채진 前검찰총장, 김희옥 前동국대 총장 등 각계 인사들도 조문했다. 특히 김진태 前검찰총장은 '설악산 위의 구름이요(雪嶽山上雲)/ 동해 물속의 달이라(東海水中月)/ 무산 스님은 어디로 갔습니까(霧山何處去)/ 하게비가 꼭두각시를 비웃는구나(幻人嘲傀儡)' 라는 게송을 지어 양양 낙산사 주지 금곡 스님에게 전달해 화제가 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www.shcandle.com

자연과 건강을 생각하는 삼환양초

조연향당은 국내향 제조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식물성양초 : 팜유 원료의 자연주의 캔들, 그을음이 적고 연소시간이 파라핀 양초보다 깁니다.

■ 밀납양초 : 토종 한봉 밀납만 사용한 자연 그대로의 색과 향

■ 약쑥양초 : 특유의 향과 탈취 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연꽃소이양초 : 자연친화적이며 은은한 연꽃향이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연봉 원기둥 7.0Φ×34cm / 원기둥 7.5Φ×29cm / 돈타레 5.6Φ×26cm / 일대 4.7Φ×24.5cm
연봉 원기둥 7.0Φ×34cm / 돈타레 5.6Φ×27cm / 일대 4.7Φ×25cm
연봉 원기둥 7.0Φ×34cm / 돈타레 5.6Φ×27cm / 일대 4.7Φ×25cm
6.5Φ×30cm / 5.9Φ×18cm / 향나무가루 1포 1kg

NEW 국내산 연꽃향 장·단 / 대바라
NEW 국내산 강화자생쑥향 장·단 / 대바라
NEW 국내산 향나무향 장·단 / 대바라

우창산업 삼환양초는 1993년부터 양초를 생산해왔고 2대째 가업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믿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환양초 (우창산업) 농협 221133-51-020122 (예금주 : 장경분) 소비자무료전화 : 080-0766-8888 상담문의 031)766-0242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염주세트 40,800원
(무료배송)



희담석 稀潭石 (Batu Hitam) 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 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정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2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하고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오체투지로 2,500km '순례'

영화 '영혼의 순례길' 5월 24일 개봉

티베트 순례단의 오체투지 순례 조명
장양 감독, 연출, 각본, 제작
중국 역대 다큐영화 박스오피스 3위
부산 등 국내외 다수 영화제에 초청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영화 '영혼의 순례길'은 티베트 불교의 성지 라싸로 향하는 티베트의 니이마 순례단의 오체투지 순례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티베트인들의 오체투지 순례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영혼의 순례길(감독 · 장양, 2015)'이 5월 24일 국내에서 개봉됐다.

이마와 양 팔꿈치, 그리고 양 무릎을 땅에 던져 그 힘겨움과 낮은 자세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낮춘 자세로 불 · 법 · 승 삼보께 최대의 존경을 표하는 예법인 오체투지는 티베트인들에게는 경전과도 같은 삶이며 공부다.

영화는 티베트 불교의 성지 라싸로 향하는 티베트의 니이마 순례단의 오체투지 순례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순례단은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신의 몸을 가장 힘겹고 낮은 곳에 둠으로써 힘겨움과 낮은 곳에 있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힘겹고 낮은 곳에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 있다고 믿는 자신만의 세상을 향해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아니 온 몸으로 다가간다. 더 나은 내생을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 윤회의 고리를 끊고 해탈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 그들은 묵묵히 길을 간다. 죽기 전에 순례를 떠나고 싶다는 노인, 살생을 너무 많이 했기에 길을 나서야 한다는 백정, 출산을 앞둔 임산부와 어린 소녀에 이르기까지 각자 다른 이야기와 서원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 육체적 고통을 극복하고 서로를 다독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읽어간다. 아니, 자신을 읽어간다. 그들이 그렇게 지나간 길은 2,500km, 기도하고, 걷고, 몸을 던지고, 자고, 웃는 단순한 행위 속에서 삶의 의미를 길어 올리는 순례단의 모습이 티베트의 대자연과 함께 영화를 채운다.

영화 '영혼의 순례길'은 토론토, 부산,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등 국내외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며 이목을 집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흥행 수익 1억 위안을 돌파하며 중국 역대 다큐멘터리 영화 박스오피스 3위에 오른 화제작이기도 하다. 비평가들의 평가로 산정되는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 100%, 메타크리틱 스코어 90점을 기록하며 언론과 평단 모두를 만족시킨 작품이다. 또한, 황량함 속 아름다움을 간직한 티베트의 사계절을 담아낸 뛰어난 영상미 역시 영화의 매력이다.

영화는 중국 6세대 거장으로 손꼽히는 장양 감독이 연출, 각본, 제작을 모두 맡았다. 장양 감독은 티베트와 중국 운남 지방에서 약 1년 동안 2,500km의 순례길을 기교 없는 담백한 연출로 담아냈다.

장양 감독은 "나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오래 전 순례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동기를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영화 제작의 동기를 밝혔다. 장양 감독은 실제로 노인, 젊은이, 임산부와 순례길에서 태어난 4개월 된 아이로 구성된 순례단을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캐릭터들을 생각해 두었다. 그리고 티베트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끝에 이 모든 인물을 만날 수 있는 망캉주의 한 마을을 찾아내 마을 사람들을 섭외했다. 망캉주 사람들은 영화에 대한 것은 잘 알지 못했지만, 순례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장양 감독의 제안을 기꺼이 수락했다. 그렇게 비전문 배우들과 함께 제작에 돌입한 장양 감독은 1년 동안 4천 미터 고도의 길 위에서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순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가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장일을 도와야 하는 배우들에게 휴가를 주어야 하는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모두의 진심이 모여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냈다. 이에 대해 장양 감독은 "다큐멘터리식으로 대본도, 전문 배우도 없이 촬영된 이 영화는 내게 힘든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놀라움과 진정한 기쁨을 안겨 주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중국 베이징 출신의 장양 감독은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이면서 배우로도 활약하고 있다. 1999년 '샤워'라는 작품을 통해 중국 내 흥행은 물론 해외 유수 영화제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감독으로 떠올랐다. 이후에도 '해바라기', '낙엽귀근' 등 소시민들의 생활상을 통해 숭고한 인간애와 신념을 담은 작품을 꾸준히 선보였다.

서산대사 일대기 UHD다큐로 만난다

BTN, 6월 6일 다큐 '휴정 서산대사' 방영



임진왜란 당시 민초들을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의승군. 이 중심에는 서산대사가 있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서산대사의 일대기를 다룬 UHD다큐멘터리가 방영된다.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는 6월 6일 오후 10시 2부작 특집 UHD다큐멘터리 '휴정 서산대사'를 방송한다.

제1부 '주장자와 칼'에서는 성균관 유생이었던 어린 시절부터 출가 전후의 청년시절 그리고 승병의 중심이었던 노년 등 서산대사의 전 생애를 아우르며 주요 일화를 다큐드라마 형식으로 엮어냈다.

특히, 배우 전무송 씨와 아들 전진우 씨 부자가 함께 출연해 젊은 날의 서산대사와 노년의 서산대사

2016년 4월부터 1년여 제작
전무송 父子 동반 출연 눈길

의 역을 맡아 눈길을 끈다.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이 직접 출연해 숭유억불 조선시대 스님의 역할로 나선 점도 주목해볼 만하다.

제2부 '그가 선택한 땅, 해남'은 서산대사의 유언으로 의발(依鉢)을 모신 두륜산 대흥사를 비롯해 해남의 정신과 문화를 이원규 시인과 역사지리학 전문가 이현군 박사가 성찰 · 소개하는 로드 다큐멘터리다.

연출진은 2016년 4월 기획을 시작해 약 1여 년에 걸쳐 해남 등 전국을 다니며 촬영을 했고, 지난해 5월에는 대흥사에서 제작발표회 형식의 고불식도 진행했다.

연출을 맡은 윤정현 PD는 "서산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으로 활약했던 한국불교계의 대표적 위인이며 국민으로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며 "주장자 아닌 칼을 들어야 했던 서산대사의 정신을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고려의 개태사를 깨운다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특별전
'개태사-태평성대 고려를 열다'
국립부여박물관 5. 22 ~ 7. 22


개태사 쇠북

국립부여박물관(관장 · 윤형원)은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원장 · 이종수), 논산시와 함께 5월 22일(화)부터 7월 22일(일)까지 특별전 '개태사-태평성대 고려를 열다'를 개최한다.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에 위치한 개태사는 936년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창건한 기념비적인 사찰이며, 태조의 진영을 모신 진전(眞殿) 사찰로서, 태조의 위업을 상징하는 고려 왕실의 대가람이다.

총 4부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고려의 번영을 염원한 태조 왕건의 호국 의지와 이를 증명하는 개태사의 현장, 그리고 1376년 개태사에 침입한 왜구를 쫓아 부여 홍산대첩의 승전을 거둔 최영 장군의 업적까지 한자리에 모아 개태사의 위상을 조명한다.

1부 '고려 태조 왕건, 개태사를 세우다'에서는 개태사의 창건으로 새로운 고려의 기틀을 이루고자 한 태조 왕건의 자취와 태조의 진영을 모신 진전 사찰로서의 개태사를 다룬다.

2부 '왕실 사찰 개태사의 가람배치와 불교문화'에서는 현재의 개태사에서 북쪽으로 약 300m 떨어진 개태사지(충청남도기념물 제44호)의 가람과 발굴조사로 출토된 고려시대 문화재를 소개한다.

3부 '개태사에서 태평성대 고려를 열다'에서는 왕실 사찰의 위엄을 드러내는 개태사 문화재와 관련 영상을 소개한다. 국내 최대의 고려시대 쇠북인 '개태사 쇠북(開泰寺 靑銅金鼓, 지름 102㎝)'과 실제 크기에 준하는 '개태사석조여래삼존입상(보물 제219호)'의 영상을 활용하여 태조 왕건의 뜻을 계승한 왕실 사찰로서의 면모를 소개한다.

4부 '1376년, 개태사와 최영 장군의 홍산대첩'에서는 14세기 후반 왜구의 침입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태사의 위기를 최영 장군이 홍산대첩의 승전으로 극복한 부여군 홍산면의 역사를 다루었다. 박재완 기자

〈삼국유사〉 진본을 만난다

부산 범어사성보박물관
5월 22일~6월 30일



부산 범어사성보박물관은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8년 부처님오신날 특별전 '〈삼국유사〉 진본을 만나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범어사가 소장하고 있는 〈삼국유사〉 1394년 간행본(보물 제419-3호)의 진본과 인경본, 1512년 간행본의 인경본 등 총 5권이 전시된다.

〈삼국유사〉는 서울대 규장각, 연세대 박물관, 고려대 도서관 등이 소장하고 있으며, 사찰 중에서는 유일하게 범어사가 소장하고 있다.

〈삼국유사〉는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와 더불어 현존하는 한국 고대 사적(史籍)의 쌍벽으로서, 〈삼국사기〉에서 볼 수 없는 고대 사료(史料)들을 수록하고 있는 문헌이다. 이러한 〈삼국유사〉는 총 다섯 권, 아홉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진본(1394년 간행본)은 4권과 5권이 한 권으로 묶인 책이다.

훼손 등을 고려해 전시된 일이 거의 없었던 1394년 간행본은 현존하는 간행본 중 가장 오래된 간행본으로서, 1512년 간행본의 오류를 잡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삼국유사〉의 집필 장소와 저자인 '일연'이 표기되어 있는 간행본 중 가장 이른 간행본이다.

문의 (051)508-6139 박재완 기자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조립식 도량장엄등설치

전문인력, 장비없이 조립·해체 가능
다목적 활용으로 경제적
기둥을 최소화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도량 면적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연출

법당연등 자동승강장치


법당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등


위패


공단등


만월등


불기등


사찰 고유의 디자인으로 제작 가능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박재완의 PhotoEssay



대답 없는 이름

먼 곳에서
또 이름 하나 태운다
어제까지 생생했던 이름
뜨거운 불 속으로 사라진다

오는 것도 한 순간
사라지는 것도 한 순간
그 한 순간과 한 순간 사이를
설명할 길이 이곳엔 없어
그렇게들 가는가

먼 곳에서
또 이름 하나 태운다
타버린 이름
돌 위에 남고
불러도 대답은 없다



정지천의
가족이 건강해지는 비법
③ 면역력을 높이는 비결 (중)

비위장 약해지면 면역력 저하돼

면역력을 높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평소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다. 이전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했을 때 운동하지 않고 공부만 하던 학생들이 많이 걸렸다. 특히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던 고3 수험생 중에 걸려 수능을 망친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한다. 이웃 중국에서는 신종 플루가 확산되면서 초중고교에서 매일 1시간씩 체육을 하도록 했다는데,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기를 기르려면 체육 단련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체격은 좋아졌으나 체력이 많이 허약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게다가 학교체육이 경시되고 있어 면역력을 높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 싶다.

조헌 선생의 강한 면역력의 비결 3, 강한 정신력

정신양생법을 잘 지켰다. 조헌 선생은 당대의 뛰어난 학자였던 우계 성혼, 율곡 이이 선생으로부터 성리학, 경세론을 배웠고, 토정비결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토정 이지함 선생으로부터 유유자적하는 삶을 배웠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 건강의 달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랬기에 면역력이 강해서 염병이 들어오지 못했던 것이다.

조헌 선생의 의지와 끈기는 실로 엄청났다. 벼슬살이가 임명과 파직을 밥 먹듯이 했을 정도로 순탄치 못했는데, 나라의 기강과 시책을 바로잡고자 수도 없이 상소를 올리는 바람에 벼슬자리에서 쫓겨나거나 귀양을 가거나 혹은 스스로 벼슬을 내던졌던 것이다. 특히 46세 때는 지부상소(持斧上疏 :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표시하기 위해 작은 도끼를 들고 가서 올리는 상소)를 올리는 바람에 왕의 노여움을 사서 함경도 길주로 유배되고 말았다.

임금 앞에 나아가 도끼를 들고 상소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기가 넘쳐흘러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선생은 '기가 왕성한 분'이었다고 하겠다.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기에 정기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헌 선생의 강한 면역력의 비결 4, 보양 음식이나 보약 먹기

선생의 집안은 아주 가난했기에 별다른 보양식이나 보약이 있을 리는 만무한데, 내려오는 보양식이 하나 있었다. 몸에도 좋고 소화도 잘되는 '양탕'이다. 율곡 선생이 세상을 떠나자 조헌 선생은 관직에서 물러나 옥천군의 궁벽한 산골로 들어가 '후율정사(後栗精舍)'를 짓고 제자



양곰탕은 비위장을 보강하여 면역력을 높힌다.

평소 꾸준한 운동 필요
양곰탕 비위장에 좋은 보양식

양성과 학문을 닦는데 정진했다. 학문에만 몰두하는 제자들의 건강을 염려하여 보양식을 먹이려고 하였는데 여유가 없다보니 좋은 식재료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푸줏간에 가서 당시에는 별로 먹지 않던 소의 위장을 싸게 사와 끓여 먹였던 것이다. 그것이 '양탕'인데, 요즘의 양곰탕이다. 선생도 기본적인 한의학 공부를 했기에 '양'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로 조헌 선생의 집안에서는 본격적인 농사철로 접어들 때, 체력 보강을 위해 큼직한 무쇠솥에 양탕과 양죽을 끓여 온 식구가 먹었다고 한다. 400년 넘게 내려오는 전통음식이다.

양(膳)은 소의 위장

소는 위장이 4개로 구성되어 먹은 것을 차례로 옮겨가며 되새김질을 하는데, 그 중에 첫째, 둘째 위장이 '양'이다. 첫 번째 위장의 맨 위쪽 두툼한 부위는 '양깃머리'이고, 그 아래에 붙은 얇은 부위가 양곰탕 재료로 사용된다. 두 번째 위는 벌집 모양처럼 주름이 있어 '벌집양'이라고 부르는데, 뒤집어 놓으면 마치 검은 수건처럼 생겼지만 먹어보면 맛이 좋다. 이탈리아, 중국에서도 요리 재료로 사용하는데, 육질이 매우 질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양곰탕으로 먹는다. 세 번째 위가 천엽, 네 번째 위가 '막창' 또는 '홍창'이다.

양은 살코기에 비해 연하고 부드러우며 고소한 맛이 나는데다 비타민 B2와 철분이 풍부하고 좋은 단백질도 많이 들어 있다. 구이로 먹거나 곰탕으로 끓여 먹는데,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적고 다이어트에 좋은 섬유질도 많아 체중이 늘어날 우려도 없다.

'양'은 어떤 약효가 있기에 좋은 보양식이 되나?

동물은 부위에 따라 사람의 같은 부위에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동물의 간이나 쓸개가 간장이나 담낭 질환의 치료에 좋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세종대왕께서 수탉의 고환을 드신 것이나 연산군이 백마의 음경을 먹은 것은 동물의 생식기가 성기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닭의 모이주머니는 닭이 먹어치우는 모이를 무엇이든 삭여내기에 소화를 잘되게 하는 효능이 크다. 육류 중에서 소고기는 비위장을 보강하는 효능이 있는데, 소의 위장인 '양'은 사람의 비위장을 보익하는 작용이 더욱 강하다. 그래서 '양'은 비위장이 제 기능을 잃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혹은 체하여 '식적(食積)', 즉 음식을 먹은 것이 내려가지 않고 응어리가 맺혀 있는 것을 치료한다. 그러므로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혹은 병을 오래 앓은 뒤에 비위장이 허약해지고 소화력이 약해진 사람들의 체력 보강에 아주 좋다.

'양'이 면역기능을 높이는 효능도 있나?

한의학에서 면역력과 관계있는 장기는 '폐', '비', '신'인데, 양은 비위장을 보강하므로 면역력을 강하게 한다. 면역력이든 무엇이든 영양이 공급되어야 가능한 일인데, 비위장의 기가 허약해지면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흡수되지 못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으니 힘을 쓸 수 없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비위장'을 '후천의 근본'이라고 한다. 태어난 뒤 스스로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것이다. 실제로 비위장이 허약해지면 기와 혈이 생성되지 못해 원기가 생겨나지 못하여 장부와 조직의 기능이 손상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므로 밖으로부터 질병을 일으키는 나쁜 기운이 들어와 병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니 비위장도 면역기능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기에 비위장을 돕는 음식이라면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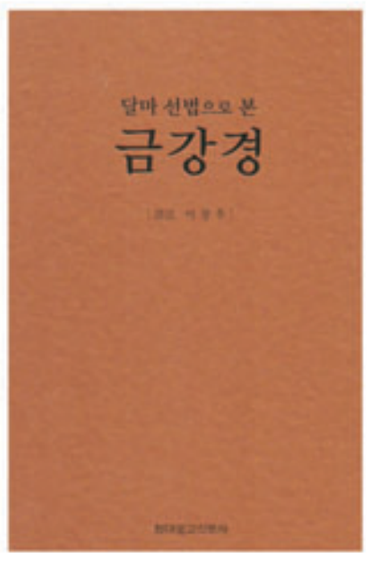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는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
19,000원 | 여시아문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 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에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탈의 돈법
삼계를 벗어나는 **최상의 해탈법**
담허대사의 염불론과 정혜쌍수(定慧雙修)



담허대사 저 · 송상섭 편역 | 신국판 | 부분칼라 | 232쪽 | 12,000원 | 여시아문
전국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출판 및 구입 문의 : (02)2632-8739

중국의 고승 담허(倓虛,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은 법문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왕생극락하여 해탈하게 되어있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연관스님 · 보정거사 번역 |
4×6배판 | 부분칼라 | 250쪽 |
10,000원 | 비움과소통

곧바로 불퇴전지에 올라 성불하는 묘법!

이 책은 『무량수경』 상권의 아미타부처님의 48대원을 서술한 한문과 번역문 및 해설, 보정 서길수 박사가 산스크리트어로 옮긴 『아미타경』 한문 원문과 번역문,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법을 개술한 대만 방륜거사의 『정법개술(淨法概述)』 번역문으로 이뤄져 있다. 『정법개술』은 삼상사 화엄학림 학장을 역임한 연관스님이 번역한 염불수행의 중요한 지침서이다.

염불이 살아나야 불교가 살아납니다!
비움과소통은 정토불서 발행을 통해
아미타부처님의 대원大願을 일깨우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도서출판 비움과소통
비움과소통은 여시아문의 자매 브랜드입니다.
불교쇼핑몰 비움과소통 몰(www.bns-mall.co.kr)
불서전문 책방 비움과소통(02-2632-8739)

여시아문 도서출판 여시아문 | 전화 : 02-2004-8213